제2편

역 사

제1장 선사시대의 증평

제2장 삼국시대의 증평

제3장 통일신라시대의 증평

제4장 고려시대의 증평

제5장 조선시대의 증평

제6장 근 · 현대의 증평

제1장 선사시대의 증평

우종윤 집필

제1절

제1절 선사시대의 증평

증평에는 사람이 언제부터 삶의 터전을 일구고 생활하기 시작했는지? 증평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고, 그 유적의 성격은 무엇인지? 증평에 형성된 최초의 문화는 무엇이고, 그 문화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지금의 축적된 고고학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답을 내놓기는 대단히 어렵다.

증평이라는 명칭은 많은 변천이 있어 왔고, 그 명칭의 구체적 대상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것에 기준을 둔다면 더욱 복잡한 변천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 오늘날의 행정에서 구획한 증평과 선사시대의 증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 측면에서 구획한 증평이라는 한정된 공간적 범위에서 선사시대와 그 문화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증평은 지리적으로 미호천과 그 지류인 보강천 유역을 중심으로 구획된 행정단위임으로 문화적 기준에서 선사시대의 증평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서 조사된 고고학적 자료를 보다 폭넓게 살펴볼 때 증평의 선사시대문화 이해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1. 구석기시대의 증평

인류가 유인원(類人猿)과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분리 · 진화되어 도구를 제작 · 사용한 단계로부터 농경이나 목축 · 토기의 제작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인류 최초의 문화단계를 구석기시대라고 하며, 약 300만년 전부터 약 12,000년 전 사이에 해당된다. 이 시대는 지질학상 제4기 갱신세(pleistocene)에 속하며 빙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기로 빙하시대라고도 한다. 이 기간 동안 지구는 심한 기후변동과 빙하의 진퇴에 따른 지형 및 동 · 식물상 등 커다란 환경변화를 맞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변화된 환경에의 적응과정을 통해 문화가 차츰 발달하게 됐다.

송정리 고인돌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강가 · 해안가의 언덕, 동굴, 바위밑 등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뗀석기[打製石器]와 뼈 · 뿔 · 나무연모 등을 만들어 짐승사냥이나 먹을 거리를 채집하여 삶을 꾸렸으며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뗀석기이며, 이 뗀석기의 제작방법 · 종류 · 문화특징 및 자연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전기 구석기(약 300만년 전－12만년 전), 중기 구석기(약 12만년 전－3만 5천년 전), 후기 구석기(약 3만 5천년 전－1만 2천년 전)의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 구석기시대는 도구를 처음 사용한 남쪽원숭사람(Australopithecus)으로부터 점차 진화되어 약 100만년 전쯤의 곧선사람(Homo erectus)단계에 이르러 석기의 형태적 정형성이 보다 뚜렷해지고 동일한 제작기술로 만든 거의 같은 형태의 석기가 장소를 달리한 무리들 사이에서 사용된 현상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 인류 최초로 불을 사용했다. 석기의 주요 형태는 주먹도끼 · 찍개 등으로 대표되며, 대체로 거칠고 크고, 무거우며 종류는 단순한 편이다.

죽리 숫선돌

중기 구석기시대는 슬기사람(Homo sapiens)이 나타난 시기로 이들은 보다 발달된 석기제작기술로 찍개 · 뚜르개 · 긁개 · 홈날 · 톱날석기 등 용도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연모구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주검을 매장하는 장례행위도 있었다.

죽리 암선돌

후기 구석기시대는 오늘날의 우리와 거의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춘 슬기사람(Homo sapiens sapiens)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시기이다. 이들은 매우 발달된 석기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다양한 종류의 석기, 즉 슴베찌르개 · 새기개 · 돌날 · 좀돌날 몸돌 등을 만들어 사냥의 능률을 훨씬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술을 보다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문화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곳은 1,000여 곳이 넘고, 발굴되어 문화성격이 밝혀진 유적만도 10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증평에서는 아직 구석기시대의 유적 · 유물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증평

주변지역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권 내에 포함되는 미호천유역 일대의 진천 장관리 · 송두리 · 상신리유적과 청원 소로리 · 각리 · 원평리 · 만수리유적, 청주 봉명동 · 율량동 · 복대동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적은 모두 한데 유적(open site)으로 미호천과 그 지류가 만나는 곳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 시기는 중기-후기 구석기시대로 밝혀졌다. 이로 볼 때 증평 주변지역에서 적어도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증평지역은 대부분이 해발 100m이내의 구릉성 지형으로 이루어졌고, 미호천 주변 지역에 해당되며 보강천과 문방천 · 문암천 · 삼기천의 두물머리가 증평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구석기유적이 자리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호천 유역에서 확인된 이들 유적의 입지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증평지역에서의 구석기유적 존재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중석기시대의 증평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가 물러나고 새로운 후빙기(後氷期)가 시작될 무렵부터 약 8천년 경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지금의 기후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중석기시대라 한다. 이 시기는 기후가 따뜻하고 해수면(海水面)의 상승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연모제작, 먹을 거리 확보 수단 변화 등 생활체계를 바꾸어 앞선 시기보다 훨씬 발달된 문화를 갖게 된다.

광덕리 선돌

여러 가지 기하학적 모양의 잔석기[細石器]를 만들게 되어 원료와 노력을 덜 들이면서 많은 석기를 만들게 됐고, 잔석기를 나무 · 뼈 · 뿔 등에 끼워서 쓰거나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을 증가 시켰다. 짐승을 가축화하여 사냥이나 물건을 나르는데 이용하기도 했고, 빙하가 물러나면서 큰 동물이 사라지고 작은 동물이 번성하게 되자 새로운 발달된 사냥기술을 터득하여 효율적인 동물사냥을 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1~3cm 크기의 작은 잔석기이며, 이러한 잔석기가 확인된 유적으로 충북지역에서는 남한강가에 위치한 단양 금굴유적이 유일하다. 그밖에 공주 석장리유적, 통영 상노대도유적, 홍천 하화계리유적, 승주 곡천유적, 평양 만달이유적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중석기시대 유적은 매우 적다.

증평지역에서는 이 시대의 유적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미호천 유역의 청

원 소로리유적 상부의 고토양층 연대가 9,450bp · 9,580bp로 측정됐고, 청주 봉명동 유적의 후기 구석기 문화층에서 12,260bp의 연대값을 얻어 미호천 일대에 후기 구석기시대 말기~중석기시대에 해당되는 고토양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호천 일대에 발달된 이러한 고토양층에서 중석기시대문화가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신석기시대의 증평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성립은 후빙기(後氷期)의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빙하권내와 높은 산에 쌓여 있던 얼음이 녹아 흘러 바닷물의 높이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황해와 대한해협이 형성되고, 내륙지방에는 산맥과 큰 강이 형성되는 등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구석기시대의 주된 식량공급원이었던 큰짐승들이 멸종 또는 극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식량확보를 위해 작은 짐승을 사냥하거나 조개류 · 해조류 · 물고기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바다로 적극 진출했고 그 결과 남겨진 것이 조갯더미[貝塚]이다. 또한 단순 식량채집 단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농사짓기와 가축기르기를 했다. 이같은 농경과 목축의 출현은 신석기시대가 식량생산경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인류생활에 미친 영향력이 혁명적이었다고 보아 '신석기혁명' 이라 부르기도 한다. 식량생산에 의한 정착생활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도구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고 새로운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여러 문화요소들의 등장, 즉 식량생산[農耕], 토기, 간석기[磨製石器], 정착생활 등이 신석기시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토기, 간석기, 정착생활은 확인되지만 농경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농경이 발달한 근동지역에서와 같은 신석기시대 개념과는 다르고, 해안이나 강가 호수가에서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시베리아, 일본 등과 같은 환북극권 신석기문화에 속한다.

남하리사지 토기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움집터[竪穴住居址], 무덤, 조갯더미 등 뚜렷한 유구(遺構)를 갖는 것과 유물이 출토되는 포함층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며, 형태가 다양하고 시대성 ·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어 문화성격 규명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빗살무늬토기이

다. 빗살무늬토기는 토기표면에 긋기 · 누르기 · 새기기수법으로 표현한 물고기등뼈무늬[魚骨文], 덧무늬[隆起文], 문살무늬[格子文], 짧은빗금무늬[短斜線文], 톱니무늬[鋸齒文], 번개무늬[雷文], 마름모꼴무늬[菱形文], 손톱무늬[瓜文], 점열무늬(點列文) 등 다양한 기하학적인 무늬가 만들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토기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권을 남부지역, 중서부지역, 중동부지역, 서북지역, 동북지역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구분에 따르면 증평지역은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직 증평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 ·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문화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인접한 미호천유역에서 신석기유적이 조사됨으로써 이 일대의 신석기문화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청원 쌍청리유적, 청주 봉명동유적, 청주 상당산성 남문유적 등이 미호천유역에서 조사 보고됐다.

이들 유적은 내륙지역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며 움집터[竪穴住居址] 및 불땐자리[爐址]가 확인된 생활유적으로, 빗살무늬토기와 금강식토기[1]가 출토됐다. 금강식토기는 바닥이 둥근밑인 구형(球形) 또는 편구형(偏球形)의 형태이며, 짧게 직립 혹은 외반한 아가리형태를 갖춘 단지모양토기(壺形土器)로 문양은 아가리부분부터 몸통 최대지름 부분까지 능형압인문(菱形押印文)이 겹치지 않도록 시문된 토기이다. 이 토기는 금강 수계(水系)를 중심으로 한 지역성을 띤 독특한 형태의 토기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밖에 돌도끼 · 숫돌 · 돌보습 · 갈판 등의 석기가 출토됐다. 이들 유적의 시기는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 이르면 미호천 유역 일대의 구릉지역에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의 입지조건과 문화성격으로 볼 때 증평지역에서는 미호천의 지류인 보강천 일대에서 신석기시대 유적 · 유물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신종환,1993.『淸原 雙淸里 住居址』(국립청주박물관)

4.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사람들이 청동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림을 꾸리던 시기이다. 처음에는 순동(純銅)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차츰 아연 · 주석 · 납 등을 섞어 단단한 청동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청동기시대에 널리 쓰이던 민무늬토기와 간석기 · 청동기를 중심으로 이룩된 문화를 민무늬토기문화[無文土器文化]라고도 하는데, 이는 앞시기인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구분되며 청동기시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무늬토기의 출현은 곧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탄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
(국립청주박물관 보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상한 연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대체로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하한 연대는 철기문화가 등장하는 기원전 3세기까지로 보고 있다. 청동기 문화의 기원은 시베리아지역의 미누신스크(Minussinsk), 스키트(Scyth) 청동기문화에 북방 오르도스(Ordos)지역 청동기문화가 섞인 시베리아 청동기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청동기의 합금술과 청동기의 성분분석에서도 중국과는 다른 아연이 섞여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 우리나라의 초기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은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 · 청동단추[靑泡]이며, 후기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은 한국식동검[細形銅劍] · 뚜겁창[銅矛] · 꺽창[銅戈] · 잔무늬거울[多紐鏡] · 의기(儀器) 등으로 기원전 3세기 경에 이르러 대동강과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청동기의 제작단계에 이르더라도 괭이 · 반달돌칼 · 돌낫 등 농경용, 그물추 · 화살촉 · 돌창 등 어로 및 수렵용, 돌도끼 · 홈자귀 · 대패날 등 벌채용과 같은 실용도구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다.

이 시대에 사용된 토기를 일괄해서 일반적으로 민무늬토기[無文土器]라고 한다. 민무늬토기는 문양이 없는 적갈색토기를 의미하나, 아가리부분에 구멍무늬[孔列文] · 짧은빗금무늬[單斜線文] 등 단순한 문양이 있는 토기 및 붉은간토기[紅陶]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이 토기는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 지역과 시기에 따라 토기 종류와 형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원지방의 민무늬토기는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 · 골아가리토기[口脣刻目土器] · 붉은간토기[紅陶] · 깊은바리토기[深鉢形土器] 등 동북지방 계통의 토기문화와 서북지방의 팽이형토기[角形土器]문화가 유입되어 변형된 팽이형 토기문화 등 두갈래의 토기문화를 받아들여 새롭게 변화된 문화양상을 띠고 있다.

청동기시대를 특징 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농경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경이 처음 이루어진 시기는 신석기 시대이나,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농경에 의존하는 생계의 비중이 훨씬 증대되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밭농사와 함께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된 논농사[水田]가 본격화되며 쌀 · 보리 · 밀 · 조 · 수수 · 기장 · 콩 · 팥 등의 곡물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농경도구도 나무를 베거나 밭갈이에 쓰인 돌도끼 · 홈자귀, 땅을 가는데 쓰인 괭이 · 보습, 수확용 도구인 반달돌칼 · 낫,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갈돌 · 갈판 등 농경단계에 따라 쓰임새와 기능에 맞는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했다. 이 시기의 농경에 관한 뚜렷한 자료로 금강수계인 대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농경문청동기(農耕文靑銅器)가 있다.[2] 따비

를 가지고 밭 가는 모습과 수확하는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청동기시대의 농경에 관한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농경이 가능한 곳에는 취락이 형성되어 농경마을을 이루었고, 농경마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무덤으로서의 고인돌의 존재이다. 증평지역의 청동기시대 생활문화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에 같은 생활권내에 포함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미호천 유역의 청동기시대 집터와 고인돌 및 선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한병삼, 1971.「先史時代農耕文靑銅器에 대하여」『考古美術』(한국미술사학회), 112호.

1) 집터

증평지역에서 아직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조사된 예는 없으나,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미호천 유역의 여러 지점에서는 이 시기의 집터들이 조사되어 당시의 주거생활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하천이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구릉지대의 정상부와 경사면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집터 형태는 움집[竪穴住居址]으로 평면이 네모 또는 긴네모꼴, 둥근꼴 등이 있다.

도안면 송정리 움막집

미호천 유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집터는 청주 내곡동유적 · 향정동유적 · 봉명동유적 · 가경동유적 · 서촌동유적 · 정북동유적 · 용정동유적 · 강서동유적, 청원 궁평리유적 · 내수리유적 · 마산리유적 · 풍정리유적 · 대율리유적 · 만수리유적 · 국사리유적 · 연지리유적, 진천 신월리유적 · 사양리유적 · 장관리유적, 음성 하당리유적 등이다. 이들 집터는 모두 미호천을 배후로 한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입지상의 공통점을 보이며, 집터 평면형태는 네모꼴 · 긴네모꼴 · 긴타원형 · 둥근꼴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청주 봉명동유적에서는 37동의 집터가 조사되어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로 보면 미호천 유역에서 가장 큰 마을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집터 평면형태는 네모꼴 · 긴네모꼴 및 송국리형 집터인 둥근꼴이 함께 조사됐고, 절대연대측정 자료로 밝혀진 연대로 보면 3,000~2,400bp까지의 약 700~800년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사회집단을 이루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3]

증평 북동쪽편의 음성 하당리 유적에서는 구릉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6동의 집터가 조사 됐는데, 평면형태는 모두 긴네모꼴이고, 집터 내부에 불땐자리[爐址] · 기둥구멍[柱穴]이 공통적으로 시설됐으며, 저장시설 · 초석 등이 시설된 것도 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약 18.2평) 잘 남아 있는 6호 집터의 경우 돌돌림형태[圍石式]의 불땐자리(3개) · 기둥구멍 · 저장시설(4개) · 초석 등이 모두 확인됐고, 초석이 움벽과 50~100cm 떨어진 집터 안쪽에 2열(列) 9주(柱)의 초석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 당시 집의 구조를 복원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주목된다.[4] 아울러 내부공간을 일상생활공간 · 작업공간 · 저장공간 등으로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활용했던 것으로 여겨져 당시 사람들의

3) 차용걸 외, 2004.『청주봉명동유적(III)-IV지구 조사보고②』(충북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03책)

4) 중앙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4.『음성-생극간 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내 음성하당리유적』(발굴조사보고 제35책)

주거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 · 붉은간토기 · 구멍무늬토기 · 골아가리토기 · 팽이형토기 등 토기류와 돌도끼 · 홈자귀 · 화살촉 · 숫돌 · 반달돌칼 · 갈판 · 간돌검 등의 석기류가 출토됐으며, 출토유물상으로 볼 때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의 민무늬 토기문화가 유입되어 양 문화가 융합된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증평지역에서 이 시기의 살림터인 집터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미호천 및 그 지류인 보청천을 배후로 한 구릉지역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 좋은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집터[住居址]가 찾아질 가능성은 높으며, 증평지역에서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인돌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대부분 돌로 만든 무덤이고, 축조방법에 따라 고인돌[支石墓] · 돌널무덤[石棺墓] · 돌덧널무덤[石槨墓] · 돌무지무덤[積石塚] 등으로 구분되는데, 미호천 유역에서는 고인돌과 돌덧널무덤이 확인됐다. 청주 비하동에서는 한국식동검 · 검은간토기 · 덧띠토기 · 흙가락바퀴 등 일괄유물이 발견되어 돌널무덤의 존재가능성이 있다.[5]

송정리 고인돌

고인돌은 커다란 돌을 가지고 만든 무덤이다. 지상에 큰 돌이 드러나 있어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 일찍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왔고, 돌무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 조사됐다. 주로 강을 낀 낮은 구릉지대나 주변의 자연지세에 알맞은 골짜기 방향이나 강 ·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며, 우리나라 에서는 함경북도 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고인돌은 29,500여기로 알려져 있다.[6]

고인돌의 형식은 밖으로 드러난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굄돌[支石]에 따라 탁자식(북방식) · 바둑판식(남방식) · 구덩식(개석식) 등으로 구분되며, 지하 매장시설은 만든방법과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진다. 또한 고인돌의 기능은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든 무덤이 거의 대부분이나 제단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고인돌도 있다.[7] 이러한 고인돌은 커다란 돌의 채석, 운반, 축조에 이르는 과정과 무덤으로써 장례의식 등 당시의 사회성격과 의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화재이다.

지금까지 미호천 유역에서 확인된 고인돌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 韓國考古學會, 1974.「淸原 飛下里出土 一括遺物」『考古學』3집, 150~152.

6) 최몽룡 · 이청규 · 이영문 · 이성주 편저, 1999.『한국 지석묘유적 종합조사 · 연구(Ⅱ)』(문화재청 · 서울대학교 박물관).

7) 이융조 · 하문식, 1989.「한국 고인돌의 다른유형에 관한 연구-제단 고인돌 형식을 중심으로-」『東方學志』(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3호.

표 1. 미호천 유역의 고인돌

연번	위 치	입 지	형 식	수 량	비고
1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	평지	개석식	2	
2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	평지	남방식	1	굼 12개
3	청원군 북이면 학평리	구릉	개석식	1	
4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군졸	구릉	개석식	1	
5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곡수	구릉	남방식	1	
6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산기슭	개석식	4	
7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의수	산기슭	개석식	2	
8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용두	구릉	개석식	2	
9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구릉	개석식	1	
10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구릉	개석식	1	
11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	산기슭	북방식	1	
12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구릉	개석식	1	
13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구릉	개석식	1	
14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산기슭	개석식	4	
15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논실	산기슭	개석식	5	
16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구릉	개석식	1	
17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방축	구릉	개석식	8	
18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수의	구릉	개석식	1	
19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구암	구릉	개석식	1	
20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용전	평지	남방식	1	
21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용대	평지	개석식	3	
22	음성군 삼성면 앙덕리	산기슭	북방식	1	
23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구릉	개석식	3	
24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평지	개석식	12	
25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진암	구릉	개석식	1	
26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칠성	구릉	개석식	3	
27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평지	개석식	1	
28	괴산군 도안면 송정리	구릉	개석식	1	
29	괴산군 증평읍 미암리	산기슭	개석식	3	
30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벌말	구릉	개석식	1	

미호천 유역에서 찾아진 고인돌은 69기이나 주로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것으로 구체적인 문화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고인돌을 형식별로 보

면 북방식(2기) · 남방식(4기) · 개석식(63기)으로 개석식 고인돌이 거의 대부분이나 3형식이 함께 분포하고 있어 주목되며, 고인돌의 입지면에서 보면 산기슭(20기) · 구릉(29기) · 평지(20기)로 거의 비슷한 분포한 양상을 보인다. 이중 평지는 대체로 구릉 끝자락의 약간 도드라진 지형임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집터 입지조건과 비슷한 곳에 고인돌을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인돌의 분포는 주변에 농경마을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이기도 하다.

증평지역에 분포한 고인돌은 5기로 모두 개석식 고인돌이다. 고인돌 형식 · 입지조건 등으로 보면 미호천유역 뿐만 아니라 중원지방의 고인돌과도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청동기시대에 증평지역에도 동일한 매장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 된다. 이 가운데 도안면 송정리 고인돌은 보강천 상류지역에 위치하며 덮개돌은 두께가 고른 평면 타원형꼴로 276×157×34cm 크기의 개석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긴 길이 방향은 산줄기 흐름과 같은 남-북방향이다. 덮개돌의 동 · 북쪽면 둘레에서 떼기를 베푼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까지 증평지역에서 확인된 선사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는 고인돌이 유일하며, 이러한 고인돌의 존재로 볼 때 증평의 역사는 적어도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3) 선돌

광덕리 선돌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큰돌문화[巨石文化]로 알려진 선돌은 광덕리 덕암마을에 1기와 증평읍 죽리 암선돌 1기, 숫선돌 1기가 있다. 중원지방에 분포한 선돌의 세워진 양상을 보면 ⅰ) 선돌이 홀로 세워진 경우, ⅱ)선돌이 짝을 이루며 서 있는 경우, ⅲ)선돌과 돌탑이 복합형태를 이루며 서 있는 경우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 중 ⅱ)의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한 선돌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금강유역의 선돌 명칭을 보면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8]

ⅰ) 성(性) · 인격과 관련된 명칭 : 할아버지 · 할머니 · 할미바위 · 숫돌 · 암돌 · 산랑 · 각시 · 숫바위 · 암바위 · 큰부인 · 작은부인 · 어미돌 · 아들돌 · 장군석 등

ⅱ) 기능과 관련된 명칭 : 수살 · 수구맥이 · 장승 · 벅수 · 돛대바위 · 서낭 · 탑 · 미륵 · 미륵댕이 등

ⅲ) 형태와 관련된 명칭 : 삿갓바위 · 선바위 · 독작 · 비석 · 망부석 · 돌벙거지 · 좆바위 · 선돌뱅이 등으로 성(性)과 관련된 명칭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성은 선돌의 형태에서도 뚜렷히 구별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선돌의 형태가 위부분이 뾰족하거나 한쪽으로 기운면을 갖는 것을

8) 우종윤,1993.「금강유역의 선사유적 · 유물(Ⅰ)」『年報』(충북대학교 박물관) 2호, 79~82.

남성선돌로, 둥글거나 편편한 것을 여성선돌로 구분하기도 한다.[9] 또한 선돌이 서 있는 곳, 세워진 양상은 선돌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호기능 · 풍요기능 · 무덤선돌로써의 기능 등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광덕리 선돌은 높이 90cm로 사다리꼴 형태이며,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어 수호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9) 이융조, 1985.「한국 선사문화에서의 선돌의 성격-충청도지방의 몇 예를 중심으로①-」『東方學志』 46 · 47 · 48호, 409~475.

제2절 마한시대의 증평

1. 철기문화의 유입과 마한 소국의 형성

기원전 4~3세기 경이 되면서 한반도의 농경공동체 사회는 큰 변동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청동기시대의 발전된 농업생산력은 사회분화를 촉진시켜 북서부지역에서는 고조선이 출현하여 새로운 문화가 파급된다. 이들의 발달된 기술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고인돌 사회를 장악하여 토착사회의 사회질서를 재편하며, 그 중심세력은 한국식동검 · 투겁창 · 잔무늬거울 등 가장 발달된 청동기를 소유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과시했고, 새로운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상당히 발전된 금속문화를 유지했다. 한국식 동검과 공반하는 다양한 청동기와 철기유물의 갖춤새, 새로운 토기로써 덧띠토기[粘土帶土器] · 검은목항아리[黑陶長頸壺]의 등장, 이들 유물이 출토하는 무덤양식으로 돌널무덤[石棺墓] · 움무덤[土壙墓] · 독무덤[甕棺墓] 등은 이 시기의 고고학적 특징이다. 이처럼 사회질서가 재편되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삼한시대(三韓時代)라고 하며, 고고학상 시대구분으로는 초기철기시대 ·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삼국시대 형성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한(韓)에는 세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辰韓), 셋째는 변한(弁韓)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고,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12국이고, 변한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12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마한은 지금의 경기 · 충청 · 전라도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한은 낙동강의 동쪽을, 변한은 낙동강의 서쪽을 대략적인 지역적 구분성을 두고 분포해 있다. 이 시기는 남한지역으로 철기문화가 확산된 때이며, 연(燕)을 통해 철기기술을 습득한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어 남한지역으로 이주하는 시기와 대체로 일

치한다. 남하한 준왕 세력이 정착한 지역은 한반도 서남부지역인 경기 · 충청 · 전라도 일원에 해당하며, 이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정치집단이 마한(馬韓)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마한은 50여 국으로 대국(大國)은 1만여 가(家)이고, 소국(小國)은 수천 호로 총 10여만 호(戶)라 했고, 변진은 12국으로 여러 별읍(別邑)이 있으며, 대국은 4~5천호, 소국은 6~7백호로써 총 4~5만여 호라 하여, 삼한사회의 인구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마한의 소국 규모는 진 · 변한의 대국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써 동일한 정치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구성과 사회성격으로 볼 때 마한지역에는 대규모의 유적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미호천 유역에서 확인된 마한시기의 유적으로는 진천 산수리 · 송두리유적, 청주 송절동 · 봉명동 · 화계동 · 상신동 · 문암동유적, 청원 송대리 · 상평리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적은 낮은 구릉성 산지에 위치하며 토기가마와 집터, 토광목관묘 · 토광목곽묘 · 주구묘(周溝墓) 등 떼[群集]를 이룬 무덤이 조사됐다. 이러한 유적의 분포는 이들 지역에서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갔음을 알려주며, 미호천 유역의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마한의 국읍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증평지역에서 발달된 청동기유적이나 철기시대의 유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들 문화를 소유한 세력집단의 존재에 대한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으나, 진국(辰國)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삼한 가운데 중서부지역에 형성됐던 마

증평읍 증천리 유물산포지 전경

한의 문화권에 인접하고 있어 마한시기의 설정은 가능하다고 보며, 주변의 미호천유역 일대에서 마한시기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평지역에서 이 시기의 유적들이 찾아질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증평읍 증천리와 대동의 낮은 구릉에서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음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2. 마한의 종교문화

『삼국지』동이전 한전의 기록을 통하여 마한의 종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귀신숭배는 마한의 신앙전통이었으며 기본적으로는 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샤머니즘적 속성을 띠고 있다.

발달된 철제농기구를 이용한 농업생산경제의 정착으로 농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인 5월과 10월에 제사지내는데, 모든 구성원이 모여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거나 풍년에 감사하면서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겼다. 이러한 농경풍속은 귀신에 제사지내고 섬기는 보편적 종교현상으로써, 종교적·정신적 지도자인 천군(天君)이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종교의례가 소국단위로 성행했다. 이는 농경사회인 마한의 종교가 천신으로 대표되는 농업신을 섬겼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국(國)에는 각기 별읍(別邑)이 있는데 이를 소도(蘇塗)라고 했으며,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기는 신성한 곳이다. 방울과 북이 큰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은 신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신을 부르는 악기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농경문청동기로 앞면에 농경행위를 묘사한 모습이 있고, 뒷면에 신간(神竿) 위에 새 모습이 음각되어 있어 솟대의 의미와 기능이 잘 드러나 있다. 아울러 고고학적으로 마한영역의 돌널무덤[石棺墓]에서 팔주령(八珠鈴)·쌍두령(雙頭鈴)·간두령(竿頭鈴)·조합식쌍두령(組合式雙頭鈴) 등 다양한 청동방울[銅鈴]과 이형동기(異形銅器) 등 청동의기가 출토되어 소도의례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도의례는 마한의 소국형성과정에서 종교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했다.

제2장 삼국시대의 증평

차용걸 집필

제1절

제1절 마한연맹체 단계의 증평

한반도의 북쪽 지역과 중국 동북지방에 걸쳐 고조선(古朝鮮)이 있었던 시기에 한반도의 중부 이남지역에는 진국(辰國)이 있었으며, 이어서 삼한(三韓)이라 불리던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이 존재 했다.

고조선이 스스로 최고 지배자를 왕(王)이라 한 시기는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연(燕)나라 소왕(昭王) 때를 중심으로 했던 시기인 B.C 4세기경이었다.

북쪽의 고조선이 연(燕)과 국경을 마주하고 성장하여 예맥(濊貊)족을 아우른 연맹체로 발전할 때 연의 장군 진개(秦開)가 이끄는 군대가 동쪽으로 고조선을 쳐서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아 갔다. 연나라의 뒤를 이은 진(秦)·한(漢)과 교섭하며 대립하는 시기에 한반도의 중부 이남지역에 있었던 진국은 청동기 문화 단계에서 차츰 철기 문화를 받아 들이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고인돌을 특징적인 무덤 양식으로 삼은 청동기시대에도 일반적인 생산도구는 간석기(磨製石器)와 토기·목기 등이 위주였고, 지역의 가장 유력한 지배자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정신적 지도자 겸 정치적 지배자로 군림했다. 이런 단계에서 보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철기문화의 혜택은 사회 발전의 큰 요소가 됐다. 철기문화는 농기구의 혁신을 가져와 목기나 석기를 사용하던 농경 도구가 가래와 삽, 괭이와 낫을 사용하게 되어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대략 B.C

삼국시대의 농경도구

4~3세기경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었던 연(燕)·제(齊)·조(趙)나라 등지에서 전란을 피하여 많은 이주민들이 고조선으로 옮겨와 토착민과 섞여 살게 되면서 철기문화가 확산됐다.

중국에 한(漢)이 건국되어 안정을 이룩한 시기인 서기전 2세기 말에 연(燕)의 영역에 살던 위만(衛滿)이 무리 1,000여인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주하여 그 서쪽 지역에 살면서 계속하여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토착 종족들을 이끌게 되자 고조선의 준왕(準王)은 위만을 박사(博士)로 임명해 고조선의 서쪽을 지키도록 했다.

B.C 194년에 위만은 거짓으로 '한(漢)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니 왕을 보호 한다' 는 구실로 자신이 거느린 군대를 이끌고 와 준왕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됐다. 이 때 준왕은 좌우 신료들과 궁인들을 이끌고 바닷길로 배를 타고 남하하여 한(韓)의 땅에 이르러 살게 됐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은 보다 우세한 철기문화의 전래와 확산을 촉진했다. 위만은 조선의 왕이 되어 한(漢)에 대해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교섭의 조건은 조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종족이나 정치세력들을 통할하여 안정시키고, 그들이 한나라와 교역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위만은 한나라에 대하여 무기와 위엄(威嚴)을 나타내는 여러 물품 및 많은 재물을 요구하여 받아냈다.

무기와 위엄을 갖춘 위만조선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사방 수 천리 땅을 차지했으며, 그에게 복속한 지역의 외교나 교섭권을 빼앗아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교역권을 손에 쥔 위만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추고 한나라와 대립하게 됐다.

위만의 아들을 거쳐 손자인 우거(右渠)가 왕을 할 때에 이르러 한나라에서는 위만조선의 주변에 있는 여러 세력들과 직접 교역하고자 위만조선의 복종을 요구했으나, 위만조선은 한나라의 간섭을 싫어하여 더욱 대립했다. 한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자 외교사절로 왔던 섭하(涉河)가 그를 호송하던 조선비왕(朝鮮裨王) 장(長)을 마부를 시켜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이에 격분한 조선은 한나라 사신의 처사에 대한 보복으로 몰래 습격하여 요동 동부도위로 부임한 섭하를 죽이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다.

한나라는 산동반도의 제(齊)에서 배를 타고 7,000명의 수군이 왕험성(王險城)으로 침략하고,[10] 육군은 5만 명이 동원되어 죄수들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다. 조선은 첫 침략을 맞이하여 한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한나라에서는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자하여 사신 위산(衛山)을 보내어 항복을 요청했다. 조선에서도 항복을 위하여 태자에게 말 5,000필과 무장한 군사 1만을 이끌고 교섭에 응했으나, 양 측이 서로 의심한 나머지 협상이 결렬됐다. 흩어지고 도망하던 한

10) 『史記』권115 朝鮮列傳 55에서는 王險城이라 했으며, 다른 기록에서는 왕검성(王儉城)이라 기록되기도 했고, 왕험성(王險城)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나라 군대가 다시 모이게 되자 왕험성은 포위되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화친을 주장하던 세력들은 차츰 한나라에 항복을 했으나, 일부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약 1년에 걸쳐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성이 함락 됐다. 이후 조선의 관할구역은 옛 조선의 중심부에 낙랑군이 설치되고, 예맥의 중심지에 현토군, 진번 지역에 진번군, 동해안 지역에 임둔군이 설치됐다. 이들 군(郡) 아래는 현(縣)이 편제되어 있었다. 그 바깥의 지역은 토착 종족들이 읍락마다 우두머리를 가진 상태였으나, 차츰 유력한 곳을 중심으로 뭉쳐져서 세력이 커지게 됐다. 위만조선이 보다 남쪽에 있었던 진번과 그 나머지 여러 나라(衆國)들이 한(漢)과 직접 교역함을 방해한 기록에서 이미 B.C 2세기 경에 한반도의 중부지역 이남에 여러 정치체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에 따라 옛 조선의 중심지로부터 이주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각지로 퍼져 살게 되면서 철기문화가 급속도로 파급됐으며,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열도에 이르는 교역의 중요한 길목에 유력하고 부강한 나라들이 성장하게 됐다. 북쪽 지역에서의 위와 같은 정치적 변화는 중부이남지역에도 파급되어 진국(辰國)이 각기 지역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삼한(三韓)으로 연맹체를 가지게 됐다. 즉, 경기 · 충청 · 호남 지역은 54개의 나라가 마한(馬韓)을 구성했으며, 동남쪽은 12개의 나라가 진한(辰韓), 12개의 나라가 변한(弁韓), 혹은 변진(弁辰)이라 는 연맹체를 이루었다.

당시의 나라들은 국읍(國邑)으로 기록에 보이고 있다. 국읍의 우두머리들은 신지(臣智)라 불리고 좀 작은 국읍은 읍차(邑借)라고 불렀다. 국읍은 마한 지역의 경우 큰 국읍은 4~5만 호(戶), 작은 것은 몇 천 호의 규모로 일정하지 않았다. 국읍 가운데서 큰 것은 오늘날의 군(郡) 단위보다 큰 경우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는 군 단위 정도가 하나의 작은 나라를 구성했다.

증평군 지역은 금강의 큰 지류 연변이어서 청동기시대 이래의 농사에 적합한 구릉과 충적평야가 많고, 또한 하천 유역에 넓은 들판이 많아 논농사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약 2,000여년전경에는 고인돌과 민무늬토기, 청동검과 청동거울 등으로 대표되던 움집 생활의 문화정도에 머물던 청동기시대와 달리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철기문화는 우선 쇠도끼와 쇠낫, 쇠끌, 쇠칼 등의 도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됐다. 이들 철제도구는 농사에 필요한 목제 농기구를 만들기에 청동기보다 적합했다. 철기문화는 보다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수리관개시설을 할 수 있었으며, 간단한 주초를 사용한 지상가옥의 건축, 목책과 토축 성벽의 축조, 실생활에서 보다 단단한 토기의 제작과 사용, 무덤 양식의 널무덤(木棺墓)과 나무곽무덤(木槨墓)의 보편화 등이 이루어졌다. 의복에서도 삼베를 짜거나 누에치기 등 양잠 기술이 발전되어 고급 직물인 비단이 생산되고, 금과 은을 비롯한 옥과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무덤 내부

변화는 청동기문화의 기반 위에 이웃한 다른 문화와의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룩된 것이었다. 오랫동안 생활과 밀접했던 석기가 점차 사라지고 정교한 목기와 철기로 변화됐으며, 문자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는데, 이런 현상들은 보다 많아진 생산력의 향상 결과였다.

증평군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이 조사된 것이 아직 없으나, 이웃한 청원과 청주지역의 경우 일부지역의 조사에서 나타난 현상과 거의 동일한 생활상을 유지했다고 여겨진다.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대략 A.D 3세기경까지의 모습을 기록한 것에서 대략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진(晉)나라 사람 진수(陳壽)가 기록한 『삼국지』 「위서」의 동이족(東夷族) 가운데 한(韓)을 설명한 가운데 한반도의 서쪽지역에 있던 마한은 54개의 소국(小國)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나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 나라 이름 가운데는 훗날 백제(百濟)인 백제국(伯濟國)의 이름도 들어 있다.

일찍이 압록강 중류유역에서는 고구려가 일어나 대륙과의 접촉을 하면서 크게 성장하여 갔다. 백제는 마한의 백제국(伯濟國)이 고구려로부터 이동해 온 유이민(流移民)의 집단에 의하여 세력을 형성하여 마한의 약소한 국읍(國邑) 세력들을 아우르면서 백제(百濟)로 발전해 갔다. 진한 지역에서는 사로국(斯盧國)이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이웃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훗날 신라(新羅)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낙동강 유역의 변한 지역은 구야국(狗邪國)을 중심으로 6개의 나라가 연맹체를 형성했다. 이를 가야(加耶)연맹체로 부른다.

이러한 시기 증평지역은 아직 마한에 소속된 어떤 국읍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체적인 국읍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A.D 1세기 초에 백제는 마한뿐만 아니라 진한(辰韓)까지도 병합할 의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한을 정복한 시기가 기록에는 온조왕(溫祚王)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기에는 마한의 북부지역 국읍들을 아우르는 단계였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유적은 증평군 내에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으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유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유적과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유적, 진천 송두리 유적 등이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바 있다. 이 유적들은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혹은 4세기 경까지의 미호천 유역 유력한 정치집단의 문화양상 일부를 알려준다. 생활 유구로는 청주 신봉동 산 10번지에서 조사된 집

자리가 있다.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 서쪽 경사면에서 조사된 A 구역 제 7호 집자리는 등고선을 따라 길이 10m, 너비는 서쪽이 유실되고 남은 최대 3m로 길다란 네모꼴이다. 땅을 15cm쯤 파내어 바닥을 고르고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15cm의 깊이로 구덩을 파고, 그 위에 지름 38cm, 두께 13cm 크기의 주춧돌을 놓은 다음 나무 기둥 언저리 아래를 자갈돌로 돌린 중심 기둥이 있으며, 불규칙하게 약 3m의 간격으로 보다 작은 기둥 구덩들이 있는데, 지름 15~20cm, 깊이 10cm 정도의 것이 있다.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이용했고, 북쪽 모서리를 따라 너비 30cm, 깊이 8cm의 작은 도랑을 만들어 여기에 숯과 불에 탄 흙이 들어 있었다. 작은 아궁이와 흙으로 만든 구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집자리에서는 황갈색의 무르게 구운 토기 조각, 흑색의 그릇 조각 들이 발견됐는데 모두 삿자리무늬를 두드려 찍은 것들이었다. 다른 집자리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움집의 평면이 凸 자 모양으로 된 것과 기둥 구덩만 남은 것인데, 기둥 구덩만 있는 것은 다락 모양의 고상식(高床式) 집이라 여겨지고 있다. 평면 凸자 모양의 A 구역 제 1호 집자리는 두 집자리가 겹쳐진 것이고, 2호 집자리, 3호 집자리 등은 모두 중앙에 화덕을 마련한 것이고 땅을 파내고 기둥을 세운 자리가 남아 있었다. 모두 6개의 집터가 확인됐는데, 당시 사용됐던 토기의 조각들에는 삿자리무늬나 문살무늬가 두드려 찍힌 것이 대부분이고 둥근 바닥, 옆으로 선을 그어 돌린 것, 납작 바닥의 작은 바리, 시루 바닥 등이 있다. 고상식의 집은 기둥 구덩이 보다 깊으며 남북 길이 3.6m, 동서 너비가 1.86m의 규모가 확인된다. 이들 집자리에서 나온 숯을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2호 집자리는 1,865±90년(1950년 기준), 1호 집자리는 1,805±135년과 1,780±75년의 연대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면 이들 집자리는 A.D 1세기에서 3세기에 걸친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11]

이 시기 무덤 유구는 송절동과 송두리에서 나온 두 가지 양상이 알려져 있다. 모두 깊게 긴 네모꼴로 묘광을 파고 목관을 이용하여 매장했는데, 관의 주변에 그릇과 무기 등의 껴묻거리를 부장품으로 같이 매장했다. 이처럼 죽은 인물에 대하여 껴묻거리를 같이 묻어주는 것은 당시 널리 유행한 것이며, 현실 세계가 아닌 죽은 뒤의 영혼의 세계를 믿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무덤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일수록 많은 양의 껴묻거리를 함께 매장했으며, 작은 것은 한 두 개의 껴묻거리라도 넣어주고 있다. 토기뿐만 아니라 쇠도끼와 쇠낫, 쇠화살촉과 쇠창 등의 꼭 필요한 작업 도구나 무기가 있고, 구슬도 묻힌 것이 있어 목걸이 등으로 치장한 유력한 사람과 일반 생산계층이 분화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나씩 묻은 것도 있지만 구덩을 따로 파고 옆에 붙여 묻은 합장 무덤도 존재한다.

11) 차용걸 · 노병식 · 박중균, 2002.「청주 봉명동유적 Ⅰ지구 발굴조사」『淸州 鳳鳴洞遺蹟(Ⅰ)』- Ⅰ地區 調査報告 - (忠北大學校博物館 · 淸州市)

제2절

제2절 백제의 성장과 증평지역 진출

백제와 신라, 가야 연맹 등이 각기 성장 발전하여 서기 4세기경이 될 때까지 충청북도 지역은 차츰 백제의 영역으로 속하게 됐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증평읍과 도안면 사이에 있는 이성산성이 있어서 당시 증평군 지역의 여러 생활 구역의 중심된 방어 도시가 있었던 곳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증평지역은 초기에는 백제가 지배하는 지역이 됐다. 백제가 건국한 것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추모(鄒牟), 혹은 주몽(朱蒙)이라고도 하는 인물이 졸본부여(卒本扶餘,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忽本)에 이르러 그곳의 왕이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는 가운데 둘째 딸과 결혼하여, 왕이 죽은 후 아들이 없자 사위인 주몽이 왕위를 잇게 됐다. 이후 주몽의 맏아들인 비류(沸流)와 둘째 아들인 온조는 뒤에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류(孺留)가 와서 태자가 되자,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오간(烏干)·마려(馬黎) 등 열 명의 신하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백성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한다. 그들이 한산(漢山)에 도착하여 부아악(負兒岳)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형인 비류는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열 명의 신하가 말렸으나 듣지 않고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돌아가 살고, 동생인 온조는 한수의 남쪽 위례성(慰禮城)을 도읍으로 정하여 열 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十濟)라 했는데, 이때가 B.C 18년 이었다고 한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어서 동생의 나라인 위례성에 돌아와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히 잘 살아 부끄러워한 나머지 후회하다 죽으므로, 그 신하와 백성이 모두 위례에 돌아와 하나로 됐다고 한다. 이처럼 형제가 각각 세운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자 나라 이름을 백제(百濟)라 했으니, 그 의미는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는 데서 연유했다고 했다.[12)]

백제가 건국했던 초기에는 마한(馬韓) 연맹체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백제는 도읍을 옮기는 일을 마한에게 알리거나 사냥으로 얻은 사슴을 마한에 보내기도 했다. 마한의 동북 지역 약 100리의 땅이 백제의 영역이었으니, 온조왕 24년(A.D 4)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웅천(熊川)에 목책을 세운 것을 나무라는 말에서 나타나고 있다. 백제는 처음 마한의 북쪽에 자리하여 보다 북쪽의 낙랑(樂浪)과 동북쪽의 말갈(靺鞨)이라 한 동예(東濊)의 침략을 스스로 방어하면서 발전했다. 농사를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침략자들을 물리쳐 차츰 세력이 커진 백제는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그 영역이 북쪽으로는 패하(浿河), 동쪽으로는 주양(走壤), 서쪽은 큰 바다로 막히고, 남쪽은 웅천(熊川)까지를 범위로 했다고 했다. 이러한 영역은 오늘날의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12) 『삼국사기』권23, 백제본기 1의 백제시조 온조왕에서는 이러한 건국의 사실 이외에 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내용으로 다른 전설이 실려 있다. 시조 비류왕은 그 아버지가 우태(優台)로 북부여왕 해부루(解夫婁)의 서손(庶孫)이었고, 어머니는 소서노(召西奴)로 졸본 사람 연타발(延陀勃)의 딸이었다.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이는 비류라 하고 둘째를 온조라 했다.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내다가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않자 서기전 37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라 했으며 소서노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주몽은 소서노가 나라를 일으키는 것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총애하고 특별히 후하게 대접했으며 비류와 온조도 자식처럼 여겼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부인(禮氏夫人)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孺留)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아 왕위를 잇게 됐다. 이 때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골라 따로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드디어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이르러 살았다.

지역을 영역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백제는 고이왕(古爾王) 때인 3세기 중엽에 이르러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옛 마한 지역의 맹주(盟主)적 지위를 행사했다. 이 시기까지 남쪽으로는 평야지대를 순차적으로 병합하여 차령산맥을 넘어 금강 유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언제 증평 지역이 백제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웃한 진천 지역과 청주 지역은 4세기에 이르러 백제의 영역으로 포함 됐다고 여겨지고 있으므로, 증평군 지역도 4세기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백제의 영역이거나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증거는 당시 백제의 중심지가 오늘날의 한강 유역, 그 가운데서도 현재의 서울 강남 · 강동 지역인 풍납동 토성과 몽촌 토성 일대이므로 그 지역과 같은 유물을 들 수가 있다. 당시의 지배 방식은 중앙에서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위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주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각종의 물건을 하사하고, 그 대신 지방 세력은 일반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납물(貢納物)을 거두어 그 일부를 바치는 형태였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의 유력한 지배자가 백제의 왕으로부터 받은 물건들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못하나, 대략 인수(印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인 자기(瓷器)나 병위(兵威)를 상징하는 둥근고리 큰 칼, 재갈을 물리고 등자와 안장을 갖춘 말(鞍厩馬) 등 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증평군 지역에서는 아직 이러한 것들이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웃한 지역에서는 철(鐵)의 생산지로써 진천 석장리 유적, 토기를 구워내던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가마 유적, 청주 가경동의 백제 가마터, 청주 봉명동의 백제시대 무덤떼와 마을 유적, 청주 정북동토성, 청주 신봉동 고분군, 청주 가경동 유적, 청원 오창 송대리 및 주성리 유적, 청주 명암동 유적 등 매우 다양한 유적들이 조사되어 있다.

증평 지역에서 알려진 유적은 이성산성(尼城山城, 柢城山城)이 있다.[13] 그러나 아직 정확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웃한 지역의 경우를 보고 어느 정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 백제의 도성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의 유적에서 기와가 나오므로 이미 기와집이 왕궁이나 중요한 관청, 사찰 등이 지어지고, 왕과 왕족, 귀족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높았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에 백제는 보다 북쪽의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과 접촉하면서 중국 계통의 문화와 교섭했으므로, 당초의 고구려 부여 계통의 문화와 한(韓)의 문화적 토대 위에 중국 계통의 문화를 흡수하여 차츰 백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급의 칠기(漆器)와 금속제 초두(鐎斗) 등의 고급 제품은 한강 유역뿐만 아니라 이웃한 청주 지역에서도 칠기가 부장된 봉명동 고분군처럼 그 일부는 지방의 유력자에게 하사(下賜)되기도 했을 것이다. 지배자로서

13) 『新增東國輿地勝覽』권16 淸安縣 山川에는 柢城山이 고을 서쪽 20리에 있다고 하고, 佛宇에서는 連天寺가 柢城山에 있다고 했다. 『朝鮮寰輿勝覽』槐山郡 산천에서는 柢城山 외에 尼聖山이 옛 청안현의 북쪽 15리에 있다고 했다. 한글학회, 1970『한국지명총람』3(충북편)에서는 이성산(尼聖山)[이성산성]을 증평 미암리와 도안 화성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 258m, 옛 성터가 있다고 했다.(25면) 도당리 도암 남쪽의 도토성(都土城), 화성리의 성도리(城都里) 윗작다리 북쪽 마을은 옛날 이성산에 성을 쌓고 이곳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성산성 토기
(증평향토사료전시관)

의 권위와 관련하여서는 마구(馬具)와 지휘용의 칼을 비롯한 각종 무기류가 하사되기도 하고, 옷과 치장을 위한 장신구, 외국에서 수입된 희귀한 물품도 하사됐다고 믿어지고 있다. 백제 중심지에서는 이미 서진(西晉)에서 유행한 전문도기(錢文陶器) 등이 나오고 있으며, 이후 동진(東晋)에서 수입한 것으로 원주 법천리 고분군에서 나온 양(羊)모양의 자기나 천안 출토품과 비슷한 유물이 청주 신봉동에서 나왔다고 알려진 것이 있다. 지역의 유력자들을 차츰 세력권으로 편입하여 도성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양식의 용품들이 지방으로 퍼지는 단계에서는 도성에서 나온 물건과 같은 유형의 유물들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지역 세력이 언제쯤 백제왕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편입됐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입이 넓은 둥근 밑 항아리 · 세발달린 토기 · 곧은 입 넓적 밑 항아리 · 굽다리 접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물은 청주 신봉동고분군에서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이 밖에 마구로써 재갈과 발걸이(鐙子)와 지휘자가 사용하던 둥근 고리 큰 칼(環頭大刀) 등은 약 4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봉명동고분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대략 4세기 후반이 되어서 이웃한 청주지역과 진천지역이 백제왕국의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증평지역도 같은 시기에 백제왕국의 영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백제가 증평지역에 진출하여 그 거점을 삼은 곳이 곧 이성산성 이었다고 추측된다.

이성산성은 삼국시대 초기의 성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즉, 사방의 평야가 잘 내려다보이는 냇가의 구릉 위에 자리하며, 흙을 겹으로 주어가며 다져서 쌓는 판축(版築) 방법으로 벽체를 쌓되 지세를 따라 성벽을 굴곡 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주로 널무덤, 나무곽무덤, 돌방무덤 등이 주요한 무덤양식이었다. 이웃한 청주지역에서 조사된 예를 보면 가장 신분이 높은 무덤이 돌방무덤과 나무곽무덤이며, 다음이 널무덤, 가장 작은 움무덤이 있어서 신분의 분화가 점차 확대되어 신분제사회를 구성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제3절

제3절 백제와 신라의 경쟁과 증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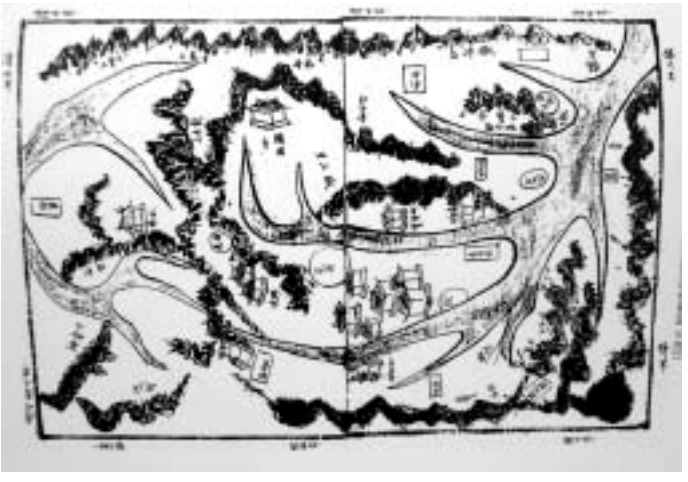
백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지로 하여 북쪽으로 옛 낙랑과 대방군의 땅을 고구려와 다투면서, 한편으로는 동남쪽의 신라와 교섭할 때, 백제와 신라와의 교통로로써 가장 중요한 곳의 하나에 위치한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따른 변화와 신라의 북진정책에 의한 활동이 벌어진 곳이었다.

백제는 주변 마한의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면서 성장해 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다루왕(多婁王, A.D 28-76)은 낭자곡성(娘子谷城)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회담하기를 청한 일이 있다. 이때 신라는 거절했다고 했는데, 이때의 낭자곡성은 오늘날의 청주, 혹은 충주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는 그 초기에 이미 한강을 거슬러 올라, 혹은 경기 지역의 교통로를 따라 남하하여 금강유역 상류지역에서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는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인 A.D 64년에 백제가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와산성(蛙山城)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옮겨 구양성(狗壤城)을 공격했다. 그러나 신라가 기병으로 역습하자 패하여 달아났다. 여기에서 와산성과 구양성은 오늘의 보은과 옥천 지방으로 비정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본다면 A.D 1세기 후반으로 들어서 백제는 충북지역의 북부지역은 충주방면까지, 남부지역은 보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은 끝내 확보하지 못하고 신라지역으로 남게 됐음을 볼 때, 충북의 남부지역에까지는 백제의 세력이 계속하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지지』에서는 충청도의 역사적 변화 초기에 청주보다 남쪽인 회인현과 문의현 이남은 본래 신라가 개척한 땅이었으며, 나머지 청주 인근과 충주 인근은 백제의 지역이었다가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으로 남쪽 웅진(熊津, 지금의 公州)으로 도읍을 옮긴 뒤 고구려가 빼앗았으나, 서기 551년에 신라에 병합된 곳이라 했다. 이러한 주장으로 보면 오늘날의 증평군 지역은 초기에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A.D 475년 백제 개로왕(蓋鹵王)이 고구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는 커다란 정세 변동 이후의 사실을 지리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후 통일신라 때의 소속에 의하면 한산주 소속으로는 중원경(지금 충주)·괴양군·흑양군(진천)이 있고, 흑양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현의 이름에 도서현(지금의 도안)과 음성현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옛 땅을 기록한 곳에서는 금물내군(今勿內郡)을 혹은 만노(萬弩)라고도 했다고 하고, 도서현(道西縣)은 혹은 도개(都蓋)라고도 했다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안현 옛지도(1875년도)

고구려가 남하했던 시기의 이름이 도서, 혹은 도개라 했던 곳이 지금의 도안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는 진천 방면에서 동쪽으로 도안과 음성을 관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관할 구역은 대략 금강수계의 상류인 진천지역에서 미호천으로 흘러드는 상류뿐만 아니라 한강 수계의 달천 상류인 음성을 관할했음을 알 수 있고, 한강 수계인 괴산에서는 보다 상류까지, 금강 수계인 청주에서 한강 수계의 상류인 청천을 관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금강 수계인 미호천 상류지역이 같은 금강수계인 진천과 넓은 범위의 단위가 됐으며, 한강 수계인 달천 지역과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음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교통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결국 백제에 이은 고구려의 세력이 지배했던 기간인 A.D 475년부터 A.D 550년에 이르기까지 증평지역은 같은 금강 수계의 관할 구역으로써 진천을 거쳐 중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의존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통로는 백제의 마한 국읍 세력 통합 때에도 같은 교통로가 이용됐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당시의 성터 분포에서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진천 북방이고 음성과 안성 사이인 망이산성(望夷山城)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남쪽으로 가장 큰 규모의 토성은 진천읍 성석리의 대모산성(大母山城)이 있다. 그 사이에 해당하는 산 위에는 서북쪽의 장군봉산성(將軍峯山城)과 남동쪽으로 증평과 경계를 이루는 두타산성(頭陀山城)이 있다. 결국 진천 동남쪽으로 바로 위치한 이성산성은 금강 수계 동방의 최대 요충지로서 백제가 이 지역에 세력을 뻗치고 경영하는 구실을 했던 곳으로 여겨진다. 또 음성에서 남쪽으로 괴산으로 통하는 곳의 다락산성(多樂山城)에서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서 진천 → 음성 → 괴산, 진천 → 증평(도안) → 청안 → 청천, 진천 → 증평(도안) → 괴산 → 연풍 방면으로의 교통로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증평읍 미암리 말무덤

처음 백제가 동남쪽으로 한강 상류를 거슬러 세력을 확장하여 진출할 때 백제로써는 와산성(蛙山城)과 구양성(狗壤城) 등이 신라로 통하는 중요한 요새임을 알고, A.D 66년에는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나서 군사 2백 명을 주둔시키기까지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으며, A.D 75년에도 또다시 공격하여 함락시킨 일이 있다. 그러나 이듬해에 신라는 군사를 보내어 이 와산성을 도로 빼앗고, 백제에서 보내어 살게 한 2백 여 명을 모두 죽였다고 했다.

백제는 이 무렵에 동남쪽으로는 천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백산맥 가까이의 충주지역까지 아우르고, 남쪽으로는 금강 상류 지역으로 신라와 가야로 향하는 요충지인 보은 · 옥천 방면에 대한 공략을 하여 공고한 국경선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충주의 탄금대토성(彈琴

臺土城)과 장미산성(薔薇山城), 옥천의 삼양리토성(三陽里土城) 등이 있다. 백제가 남쪽으로 진출할 때 신라는 이에 맞서 북쪽으로 진출해 소백산맥을 넘어서고 있었다.

즉 천연의 경계를 이루는 신라와 백제의 경계는 소백산맥이다. 이 산맥의 중요한 교통로는 모두 신라에 의하여 개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신라 아달라니사금(阿達羅尼師今) 3년(A.D 156)에는 계립령(鷄立嶺)을, 2년 뒤에는 죽령(竹嶺)을 뚫어 개통하고 있다.

신라와 백제는 이웃의 작은 나라들을 병합한 뒤 소백산맥이라는 천연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직접 대결이 이루어지자 산맥중의 가장 넘기 쉬운 계립령과 죽령을 개척하여 교통로로 이용했다. 이 시기 백제와 신라의 경쟁적인 영토 확장으로 전쟁이 이루어진 곳은 장령진(長嶺鎭)·사도성(沙道城)·모산성(母山城)·구양성(狗壤城)·부곡성(缶谷城)·와산성(蛙山城) 등인데, 신라가 서쪽 국경이라 생각하는 곳에 이르는 길이 한수(漢水)에서부터 이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한강 상류에서 금강 상류 쪽으로 전투 지점이 이동되고 있는 것이다.[14]

백제와 신라는 서로 국경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충돌이 있었다. 백제의 초고왕(肖古王)은 A.D 167년 7월에 몰래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서쪽 지경에 있는 두 성을 습격하여 남녀 천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돌아온 일이 있다. 이에 다음 달인 8월에 신라에서는 왕이 일길찬(一吉飡) 흥선(興宣)에게 2만의 군사를 주어 백제의 동쪽에 있는 여러 성을 공격케 하고, 왕 자신도 친히 정예로운 기병 8천을 거느리고 뒤를 따라서 한강(漢江)까지 엄습해 왔다. 이에 백제의 초고왕은 신라군사의 수가 많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앞서 빼앗은 포로를 되돌려 보내고 화친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한강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늘의 괴산지역을 거쳐 충주지역을 포함하는 남한강변에 이르는 지역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사건도 시기적으로 보아 너무 이른 시기로 기록됐다는 견해도 일부 있으나, 이미 계립령과 죽령을 개척한 신라로서는 그 동북쪽으로 진출하여 한강변에 이르려고 한 노력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신라의 벌휴니사금(伐休尼師今) 5년(A.D 188)의 기록에서는 백제의 초고왕(肖古王)은 신라의 모산성(母山城)을 공격하게 했다. 이 때 신라에서는 파진찬(波珍찬) 구도(仇道)에게 명하여 백제군을 막게 했다. 이때의 모산성을 오늘의 진천(鎭川) 대모산성(大母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렵에 신라의 영역이 진천지역에까지 미쳐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시기의 영남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유적이 진천 대모산성 바로 북쪽인 송두리(松斗里)에서 조사된 바 있다. 시기적으로 보아 백제와 신라의 충돌은 너무 이르다는 의심이 있으나, 이 기록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서기 157년의 감물현(甘勿縣)과

14) 『三國史記』 新羅本紀 2, 阿達羅尼師今 14년(A.D174) 가을 7월에 백제가 신라의 서쪽에 있는 두 성을 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성 1천 명을 붙잡아 돌아갔다. 8월에 일길찬 흥선(興宣)에게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치게 하고, 왕도 또한 기병 8천 명을 거느리고 한수(漢水)로부터 그곳에 다다랐다. 백제가 크게 두려워하여 잡아갔던 남녀들을 돌려보내고 화친을 청했다.

마산현(馬山縣)을 처음으로 설치한 신라가 이 지역을 확보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듬해인 A.D 189년 모산성에서 백제군을 막았던 신라 장군 구도(仇道)는 구양성(狗壤城, 沃川 지역)에서 또한 백제군과 싸워 이기고 있으며, A.D 190년에는 백제가 신라의 서쪽 경계지역에 있는 원산향(圓山鄕)을 습격하고, 또 다시 진격하여 부곡성(缶谷城)을 포위하자, 신라 장군 구도는 정예로운 기병 5백을 거느리고 백제군을 쳤다. 백제군은 거짓으로 달아나는 척 하다가 구도가 쫓아오자 와산성(蛙山城, 報恩 지방)에 이르러서 도리어 유인당해 깊숙이 들어온 신라군을 쳐서 패퇴하게 했다.

백제와 신라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고 북부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보다 남부의 보은지방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경분쟁은 이 지역 즉, 충주지방과 진천지방, 보은과 옥천 지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증평군 지역은 일단 백제의 영역이었음에도 신라 영역에 가까운 곳이므로 분쟁의 와중에 휘말릴 수 있는 곳이었다.

A.D 214년(신라 柰解尼師今 19년, 백제 肖古王 49년)에도 백제는 신라의 서쪽 요거성(腰車城)을 쳐서 성주 설부(薛夫)를 죽였다. 신라는 이벌찬(伊伐湌)이음(利音)을 장수로 삼아 6부(部)의 정병 6천으로 백제의 사현성(沙峴城)을 함락했다. 이때 백제와 신라가 다투던 지역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경상북도 북부에서 충청북도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A.D 240년(신라 助賁尼師今 11년, 백제 古爾王 7년)에 백제는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입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A.D 275년(신라 沾解尼師今 9년, 백제 古爾王 22년) 9월에 백제는 신라를 침공하여 괴곡(槐谷)의 서쪽에서 신라군을 격파하고, 신라 장수 익종(翊宗)을 죽였으며, 다음 달인 10월에 또다시 신라의 봉산성(烽山城)을 쳤으나 이기지 못했다. 이 때의 괴곡이 지금의 괴산지역으로 비정되고 있어서 당시의 싸움이 오늘날의 증평군 지역 일원에서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A.D 266년(신라 味鄒尼師今 5년, 백제 古爾王 33년)에도 백제는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했다. 이때 신라의 성주 직선(直宣)은 장사 2백인을 거느리고 나가 백제군을 격퇴시켰다. 또 A.D 278년에는 백제가 신라의 괴곡성(槐谷城)을 포위 공격하자 신라에서는 파진찬(波珍찬) 정원(正源)에게 군사를 이끌고 백제군을 막도록 했다.

이와 같이 A.D 3세기 후반에 이르도록 증평의 남동쪽 일원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서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으므로, 증평 지역도 백제의 신라 방면 국경에서 도성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요충이자 전방 진출의 총 본부가 되어야 할 위치여서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이 때의 괴곡성(槐谷城)과 봉산성(烽山城)이 지금의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괴곡성은 오늘날의 괴산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백제 고이왕 때의 끈

질긴 공략과, 신라의 이에 대한 철저한 방어전은 증평의 동남쪽 어디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괴곡을 오늘날의 괴산 지역으로 보거나, 혹은 지금의 괴산군 청안면에 괴곡리가 있으므로 증평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는 고이왕(A.D 234 286)때에 이르러서 체제를 정비하고 대내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북쪽으로는 낙랑과 대결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신라와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토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외적인 적극책은 활발하게 정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체제 정비에 뒤이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A.D 246년에는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공격하여 대방태수를 전사시키는 등 한(漢)의 군현에 대항하면서 국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배체제를 정비했으니, 고이왕 27년(A.D 260)에는 관료제도를 정비하여 6좌평(佐平)과 16관등(官等)을 설치하고, 관리의 옷 색깔(服色)을 제정했다. A.D 262년에는 법령을 반포하여 관리로서 재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 한 자는 장물의 3배를 배상하고 종신금고에 처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백제가 왕권의 강화 기반을 확립하고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정비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A.D 3세기 중엽인 고이왕 때에 이르러 광대한 정복국가를 이루고 고대국가의 체제를 완비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라에 대한 침공은 고이왕 53년(A.D 286)에 이르러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화친을 이루게 되고, 북방의 수비에 전력을 기울이게 됐다. 이처럼 정책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고구려와 대결하여야 하는 새로운 정세변화 때문이었다.

제4절 고구려 세력의 남진과 증평지역

백제가 고이왕 때에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크게 국력을 드러낸 것은 근초고왕(近肖古王, A.D 246~375)과 근구수왕(近仇首王, A.D 375~384)때였다.

근초고왕은 한반도의 서남쪽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마한(馬韓)의 잔여세력을 정복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정복정책을 펼침으로써 백제는 한강유역에서부터 오늘날의 충청도와 전라도지방 전체까지를 완전히 장악하여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이 무렵에 신라와 백제는 죽령과 계립령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

장군총 벽화

다.

A.D 3세기 말부터는 남진정책을 펴고 있던 고구려와 대응하기 위하여 북진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근초고왕은 북진정책을 펴기에 앞서 A.D 366년(近肖古王 21년, 신라 奈勿麻立干 11년)에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고자 사신을 보내고, A.D 368년에는 신라에 사신을 보낼 때 좋은 말 두 필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백제가 북방의 고구려와 대응하기 위해서 후방지역인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화친을 도모한 조치였다.

고구려는 A.D 3세기 중엽 동천왕(東川王) 때에 위(魏)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으나, 국력을 회복하여 4세기 초에는 대동강 유역의 낙랑과 그 남쪽의 대방의 땅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A.D 313년에 낙랑군이 폐지되자 고구려는 보다 남쪽으로 옛 조선의 중심지와 진번(辰番)지역을 차지하고자 백제와 대결했는데, 4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 39년(A.D 369) 9월에는 친히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치양(雉壤, 지금의 황해도 배천 지역)에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보다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했는데, 이에 대응하여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은 태자 근구수(近仇首)를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5천여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고구려는 2년 뒤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남침했는데 백제의 근초고왕은 이 소식을 듣고 패하(浿河, 지금의 예성강)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고구려 군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기습으로 물리쳤다. 그리고 10월에 백제의 근초고왕과 태자가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平壤城)까지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케 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고구려 고국원왕의 전사는 백제와 고구려를 숙적관계로 만들었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小獸林王, A.D 377~384)은 국가의 조직과 체제를 다시 정비하여 국력을 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명령체계로 정비하여 강력한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즉, 왕 2년(A.D 372)에는 불교(佛敎)를 받아들여 국가의 사상적 통일을 기했으며, 태학(太學)을 설립하여 유학을 보급함으로써 충성과 신의를 중히 여기는 관료를 양성하고, 문자생활을 통한 행정력의 강화를 도모했다. 이듬해에는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하나의 성문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같이 마련된 국가의 기틀 위에 광개토왕(廣開土王, A.D 392~412)과 장수왕(長壽王, A.D 413~491)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크게 넓혀 갔다. 이제 고구려의 왕은 대왕(大王) 혹은 태왕

(太王)으로서 천제(天帝)의 아들인 시조 추모(鄒牟)의 정당한 후계자이며,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존재로 인식됐다. 이제 지난날 고국원왕이 전사했던 수치를 씻기 위해 백제에 대한 보복적인 정복전쟁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그 이름이 뜻하 듯 영토를 크게 넓힌 대왕이다.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은 매우 유명하다. 이 비문에 의하면 광개토대왕 6년(A.D 396년)에 왕은 수군(水軍)을 이끌고 백제의 서해안에 상륙하여 관미성(關彌城)을 비롯 아단성(阿旦城)·고모루성(古牟婁城) 등의 58개의 성과 7백여 개의 마을을 빼앗았다. 이에 백제의 아신왕(阿莘王)은 남녀 1천명과 가는 베 1천 필(匹)과 왕의 동생을 비롯해 대신 10명을 배상으로 바치며 "이 이후로는 길이 고구려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는 전날 고국원왕의 전사에 대한 보복을 하되, 백제의 굴복으로 만족하고 많은 노동력과 재물을 빼앗음으로 만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고구려 세력은 충주 지역과 그 이남에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광개토대왕이 빼앗은 성과 촌락에서 고모루성(古牟婁城)이 지금의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1979년에 발견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에도 고모루성을 지키는 관리의 직책인 수사(守事)란 명칭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중원고구려비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長壽王) 15년(A.D 427)에 고구려는 오랫동안 백성을 옮기고 도시를 건설해 왔던 평양(平壤)으로 도읍을 옮겼다.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광개토대왕 이후 갑자기 넓어진 영토의 관리를 위해 보다 넓은 평야를 낀 교통의 중심지로 도성을 삼은 것이고, 평양 지역은 고조선(古朝鮮) 때부터 도읍지였다는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집중된 지역이고, 서해 바다를 통한 국제 교류에도 적합한 곳이었다. 또 한반도의 보다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중국 대륙과는 요하(遼河)·압록강·청천강 등의 천연적인 참호가 있어 방어에 적합한 곳이었다.

장수왕은 백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전략을 세운 끝에 A.D 475년 9월 백제의 도성을 격파하고 개로왕(蓋鹵王)을 사로잡아 목 베었다. 이 때 백제의 왕자이던 문주왕(文周王)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여 1만 명의 구원군을 얻어 돌아왔으나, 이미 왕은 죽고 도성은 파괴됐으므로 웅진(熊津)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러한 정세의 변동은 고구려가 지금의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의 금강 이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구려의 세력 아래에서 비로소 도서(道西)라는 이름이 생긴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증평지역의 이름은 도살성(道薩城)과 도서(道西)로 불린 듯하다. 증평 지역은 백제 영유 아래에서 이었거나, 마한의 어떤 국읍 이름에서 이러한 명칭이 유래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 고구려의 세력은 진천과 천안보다 남쪽으로 지금의 청원군 부용면 부용리 남성골까지 진출해 있었다는 증거가 최근에 알려지게 됐다.

증평 · 도안과 괴산 · 연풍 지역은 본래 백제의 영역에서 고구려로 소속됐음을 삼국사기의 지리지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 영향력이 남하했을 때부터 증평 · 도안 지역은 진천(黑壤郡)에 예속됐다가, 고려 초기에 와서는 증평 · 도안과 청천은 청주에, 괴산과 연풍은 충주에 각각 예속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증평군의 역사에서 고대사의 범위에서는 증평군이 진천과 청주 지역의 역사와 궤도를 같이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오늘날 증평군 지역이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 세력이 최대로 영토를 넓힌 시기 이후로 삼국의 경계를 이루는 중심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국은 각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끊임없이 서로 세력을 다투었다.

제5절

제5절 삼국의 증평지역 쟁탈전

백제는 고구려의 평양천도가 남진정책의 적극적인 표현임을 알고 매우 불안함을 느끼게 됐다. 백제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백제가 근초고왕 때에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케 한 일이 있었으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은 바 있어 서로 공방전을 펴고 있었으므로, 고구려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예속적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신라보다 백제의 고구려 남하세력에 대한 불안은 더 컷었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백제는 고구려가 중국의 북조(北朝)의 여러 왕조들과 교섭하는 것에 대비하여, 중국 남조(南朝)의 여러 나라들의 지원을 얻으려고 남조와의 통교(通交)를 적극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웃한 신라에 대하여 사신을 보내어 동맹관계를 맺게 됐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 지역으로 옮긴 A.D 427년 보다 6년 뒤인 A.D 433년(백제 毗有王 7, 신라 訥祗王 21)의 일이다. 사실상 신라로서도 눌지왕(A.D 417~457)때에 이르면 고구려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만큼, 백제의 동맹제의를 쉽게 받아드리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나제동맹(羅濟同盟)이라 일컫는다.

백제는 개로왕(蓋鹵王, A.D 455~475) 때 고구려의 압력이 급박해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A.D 472년에 남조의 송(宋)과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조의 후위(後魏)에 대하여 구원병을 청하는 국서(國書)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후위는 고구려와 본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백제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요구를 거절했다. 오히려 이 백제의 원병요청은 고구려의 비위를 거스르는 원인이 되어 침략의 도화선이 됐다.

고구려 장수왕은 그 63년(A.D 475년, 백제 蓋鹵王 21) 9월에 3만 명의 대군을 보내 백제의 도성인 한성(漢城)을 포위 공격하도록 했다. 개로왕은 일이 위급하여지자 아들 문주(文周)에게 신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게 했던 바, 문주가 신라로부터 군사 1만 명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으나, 이미 도성은 함락되고 왕은 고구려 군에게 사로잡혀 아차성(阿且城)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뒤였다.

백제는 이 고구려의 침략으로 큰 타격을 받아 나라가 망하다시피 됐으나, 왕자 문주는 즉시 왕위를 계승하고 도읍을 웅진(熊津, 지금의 公州)으로 옮기고 전란을 수습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가 문주왕(文周王, A.D 475~476)이다.

충주지역에는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듯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즉 충주 동쪽의 계명산(鷄鳴山)과 남동쪽의 남산(南山)을 사이에 한 서쪽 기슭 벌판에 안림동(安林洞)이 있는데, 이 마을을 일명 어림(御林)이라고 하여 개로왕이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궁궐을 지었던 곳이라 한다. 개로왕의 이궁터(離宮址)가 있다고는 하나 지표상의 유구로 보아 통일신라 이후의 절터(寺址)로 보여 진다. 그리고 한편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원 고구려비다. 이 비문에 개로(蓋鹵)라는 문자가 보이고 있다. 비문의 개로를 백제의 개로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설은 허황된 구전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도모하게 됐다. 결국 한강(漢江)의 전체 유역을 포함하여 그 이남으로 크게 영역을 확대했으니 서쪽으로는 지금의 아산만(牙山灣)에서 직산(稷山, 고구려 蛇山)·진천(고구려 今勿奴)·도안(고구려 道西)·괴산(고구려 仍斤內)·음성(고구려 仍忽)·연풍(고구려 上芼) 등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의 동북부인 순흥(順興)·영주(榮州)·봉화(奉化)·예안(禮安)·울진(蔚珍)·영덕(盈德)·평해(平海) 지역 모두가 고구려의 지경으로 됐다. 즉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던 계립령(鷄立嶺)·죽령(竹嶺)을 넘어선 것이다. 이들 지역은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인하여 확장된 것으로 옛 백제 영토뿐만 아니라 신라 영역의 상당 부분이 고구려의 영유가 됐다.

고구려는 이와 같이 영토를 확장하고는 고구려의 지방 통치 방식을 시행한 듯하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각종 지리지(地理志)에 나타나는 「본디 고구려 땅이다(本高句麗)」라 한 땅이름들이 그것이니, 이 무렵에 고구려에 편입된 충청

광개토대왕비(중국연변)

북도의 북부지역 지명은 다음과 같다.

단양은 적산현(赤山縣, 一云 赤城)·영춘은 을아단현(乙阿旦縣)·제천은 내토군(奈吐郡, 一云 大堤)·청풍은 사열이현(沙熱伊縣)·충주는 국원성(國原城, 一云 未乙城·託長城·薤長城)·진천은 금물노군(今勿奴郡, 一云 今勿內郡·萬弩)·음성은 잉홀현(仍忽縣)·음죽은 노음죽현(奴音竹縣, 안성시 죽산면, 이천시 일죽면) 등이며, 오늘의 증평지역인 도안이 도서현(道西縣, 一云 都蓋), 괴산이 잉근내군(仍斤內郡)·연풍은 상모현(上芼縣)이라 했다. 이들의 지역이름은 A.D 475년(長壽王 63)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 백제 영역일 때의 이름이 정리된 이름일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당초 이보다 먼저의 땅이름인 광개토대왕 비문을 비롯한 금석문에서는 순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듯한 이름이지만, 이 시기부터 한자로 미화(美化)되거나 아화(雅化)된 이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충청북도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영유지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백제지역으로는 청주는 상당현(上黨縣)·문의는 일모산군(一牟山郡)·회인은 미곡현(未谷縣)이라 이름 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신라지역으로 보은은 삼년산군(三年山郡)·청천은 살매현(薩買縣)·옥천은 고시산군(古尸山郡)·영동은 길동군(吉同郡)·양산은 조비천현(助比川縣, 영동군 양산면)·황간은 소라현(召羅縣)·청산은 굴산현(屈山縣)·안읍은 아동혜현(阿冬兮縣, 옥천군 안내면)·이산은 소리산현(所利山縣, 옥천군 이원면) 등으로 각각 불렸다.

이러한 이름을 보면 충청북도 지역은 완전히 3분되어 북쪽은 고구려, 서쪽은 백제, 남쪽은 신라의 영역이 되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진천·도안·증평·괴산·연풍을 잇는 선 이북은 고구려가, 그 서쪽은 백제가 청주지역을, 신라가 청천·보은지역을 담당하는 선에서 그 경계를 같이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오늘의 증평군 지역은 그 최전선에 해당하게 됐다. 3국은 각각 이 지역에서 솥발처럼 정립(鼎立)하여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나아가서는 반도의 통일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게 됐다.

고구려의 강력한 남진정책에 대하여 백제와 신라는 공동으로 맞서야 했다. 충북 지역에서 있었던 중요한 국경으로 고구려와의 공방전에는 백제와 신라 양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형세가 됐다.

A.D 484년(신라 炤知麻立干 6, 백제 東城王 6) 7월에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했다. 이때 신라군은 백제군과 협력하여 이를 모산성(母山城) 아래에서 크게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산성을 오늘날의 진

천군 진천읍 성석리의 대모산성이라고 비정하면, 고구려는 이 무렵에 진천지방을 공격하고 신라는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일단 저지했던 것이 된다. 이후 어떤 사정으로 고구려 세력은 대모산성을 중심으로 한 진천평야를 점령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모산성의 전투가 있은 다음 해인 A.D 485년에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우호관계를 다지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계속되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한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굳히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라로서도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이미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A.D 470년에 삼년산성을 축조하고, A.D 474년 왕이 명활성(明活城)으로 들어가 지키고, 계속하여 여러 방어시설을 건설했다.

A.D 486년 정월에 이찬(伊湌) 실죽(實竹)을 장군으로 삼고 일선주(一善州)의 지역에서 장정 3천명을 징발하여 삼년산성(三年山城, 보은)과 굴산성(屈山城, 옥천군 청성면)을 개축하고 있다.

이 기록은 이미 이 무렵에는 증평이남 방면까지 고구려의 압력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려준다. 만일 삼년산성과 굴산성이 고구려에 함락된다면 신라는 애써서 다졌던 이 지역 즉, 보은 · 옥천 · 영동지역을 포기하고 소백산맥 남쪽으로 철수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삼년산성이 갖는 지리적 위치는 신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A.D 489년에는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의 과현(戈峴)을 습격하고 호산성(狐山城)을 함락했다고 했다. 고구려는 계속하여 신라의 북방을 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로서도 북쪽 변경에 대하여 방어시설의 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동성왕 12년(A.D 490) 북부(北部)의 사람으로 나이 15살 이상의 장정을 징발하여 사현성(沙峴城)과 이산성(耳山城)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현성을 충주와 보은 방면, 또는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보려는 견해도 있으며,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이산성은 증평의 이성산성이 될 수도 있으나, 이성산성을 도살성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신라는 보은 방면을, 백제는 증평 방면에 대한 공고한 방어를 위하여 축성하거나 기존의 성을 고쳐 쌓는 등으로 변방의 방어를 다지면서, 이윽고 A.D 493년(신라 炤知麻立干 15, 백제 東城王 15)에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청혼(請婚)을 하고 있다. 이에 신라에서는 이찬(伊湌) 비지(比智)의 딸을 백제왕에게 시집보내니 이것이 신라와 백제 사이의 정략적인 결혼동맹(結婚同盟)이었다.

실질적인 우호가 실현되고 공동으로 고구려에 대항하여 방어 하는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이룩한 것이었다. 고구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나라가 왕실 사

이에 결혼까지 하는 유대관계의 발전은 이듬해에 실제로 공동으로 고구려 군대를 물리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A.D 494년 7월에 신라는 북쪽 국경인 살수(薩水)의 벌판에서 고구려 군과 싸웠는데, 신라의 장군 실죽(實竹) 등이 이끈 군사는 패배하여 후퇴하여 견아성(犬牙城)으로 물러나 지키었으나, 고구려군은 이곳까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다. 이에 백제의 동성왕은 군사 3천명을 보내어 신라군을 도와 고구려 군을 물리쳤다.

여기에 나오는 싸움터 살수(薩水)는 괴산군 청천(靑川)지방의 삼국시대 옛 이름이 살매(薩買)이고, 매(買)는 물(水)을 뜻하는 땅이름으로 사용되는 글자이므로 증평의 남쪽으로 청안을 넘어 청천 지역과 그 이남 지역에서 일어난 싸움이라 해석되고 있다.

A.D 495년 8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성(雉壤城)을 포위하므로, 백제 동성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했다. 이때 신라 소지왕은 장군 덕지(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여 백제를 도와 고구려 군을 물리쳤다.

A.D 496년 7월에 고구려는 신라의 우산성(牛山城)을 공격하여 왔는데, 신라에서는 장군 실죽(實竹)이 니하(泥河)에 출격하여 고구려 군을 깨뜨렸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듬해 8월에 다시 군사를 보내어 우산성을 공격하여 결국 탈취했다. 이 기록에 나타난 우산성도 증평 지역에서 먼 곳이 아닌 곳으로 비정하고 있다.

고구려가 벌인 3년 전 A.D 494년의 살수의 싸움과, A.D 497년 우산성 탈취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전투를 계기로 고구려는 소백산맥(小白山脈) 이북 지역인 증평 지역을 발판으로 더욱 남하하려 했고, 한편으로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 충주 방면으로 남하하여 양쪽에서 신라 영역으로 진군하여 한강의 달천 상류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는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다지면서도 신라에 대한 경계를 또한 늦추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동성왕 23년(A.D 501) 7월에 탄현(炭峴, 지금의 옥천 서북쪽)에 울짱(木柵)을 설치하고 신라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기록과, 8월에는 가림성(加林城, 부여군 임천면의 聖興山城)을 쌓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

A.D 512년에 고구려는 백제의 가불성(加弗城)을 공격하여 탈취하고 군사를 옮겨서 원산성(圓山城)을 깨뜨리고 살육과 약탈을 심하게 하며 남녀 1천 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에 백제의 무녕왕(武寧王)은 날랜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위천(葦川)의 북쪽에서 왕이 계교(計巧)를 써서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고구려 군을 크게 깨쳤다. 여기에 나오는 원산성은 처음 마한과 백제 사이에서도 나오는 곳이며, 신라의 서쪽 경계에 해당하므로 증평 남쪽의 보은 방면 어

디인 곳으로 볼 수 있다.

백제가 한강변에서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삼국사기』에는 계속하여 한성(漢城)을 비롯하여 한수(漢水) 이북의 옛 백제지역에서 고구려와의 공방전이 있는 등 사건이 보이고 있다. 그처럼 옛 백제 땅 안에서는 두 나라가 서로 밀고 밀리는 전투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서로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되는 곳을 차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백제는 성왕(聖王, A.D523~554) 때에 이르러 무녕왕 때에 다진 외교력과 회복된 국력으로 신라와 힘을 합쳐 잃었던 옛 땅을 회복하려 했다. A.D 525년과 A.D 541년에는 각각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요청했는데, 이는 백제가 도읍을 웅진으로부터 사비(泗沘, 所夫里)로 옮기는 커다란 변화를 이룩하면서, 더욱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우호정책을 실현한 것이라 하겠다.

A.D 528년에 백제 성왕은 웅진(熊津)에서 사비(泗沘)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南扶餘)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천도(遷都)와 국호의 개칭은 사실상 웅진 도성이 고구려와의 국경에서 매우 근거리에 있으므로 항상 불안했을 상황을 개선한 것이기도 했다. 웅진은 또 협착하고 바다에서 깊숙이 들어온 곳이므로 산업을 일으키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던 성왕에게는 광대한 벌판인 사비에 깊은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사비로 도성을 옮겨 건설한 뒤 성왕은 산업을 일으키고 불교를 진흥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남조(南朝) 양(梁)과 교통하며 문물을 수입하고, 남쪽으로 바다건너 왜(倭)와도 우호를 두터이 하여 불교 등 여러 문물을 전해 주는 등 외교관계를 원활히 지속하고, 내부적으로는 중앙 관서의 재정비와 도성 및 지방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하여 전반적인 국가 체제를 강화했던 왕이었다.

백제는 사비 천도 2년 뒤인 성왕 18년(A.D 540) 장군 연회(燕會)에게 명하여 고구려의 우산성(牛山城)을 포위 공격했으나, 고구려는 정예 기병 5천으로 이를 격퇴했다.

A.D 548년에 고구려의 양원왕(陽原王, A.D545~559)은 예(濊)와 모의하여 백제의 독산성(獨山城)을 공격했다. 이 때에 백제 성왕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니 신라 진흥왕(眞興王)은 장군 주령(朱玲, 또는 朱珍)에게 갑졸(甲卒) 3천명을 주어 돕게 하니 밤낮으로 달려가 독산성 아래에서 고구려 군과 한판 싸움으로 크게 깨치고 물리쳤다. 이 사건으로 보아 독산성도 삼국 국경의 접촉지점 부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백제와 신라는 이때까지도 공동 작전을 펴고 있으니 이는 3년 뒤에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백제와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더욱 영역을 차지하려던 신라가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고구려 세력을 몰아내려는 전초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절

제6절 신라의 증평지역 점령

A.D 550년 정월에 백제에서는 장군 달기(達己)를 시켜 1만 명의 병력으로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도살성(道薩城)을 빼앗았다.[15] 이해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金峴城)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고구려와 백제가 이처럼 두 성에서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신라는 두 나라 군사의 피로한 틈을 타서 이찬(伊湌) 이사부(異斯夫)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두 성을 빼앗게 한 다음, 두 성을 증축하여 무사 1천명을 머물러 지키도록 했다. 이러한 행동은 신라가 독자적으로 실력을 키워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때 고구려와 백제의 사정을 잘 알고 명령한 것은 신라의 진흥왕 이었다고 했으며, 공격의 선두에 선 인물은 이사부(異斯夫)였다.[16]

이 때 백제와 고구려, 신라는 도살성과 금현성을 두고 가까운 곳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듯하다. 도살성을 충주의 서남쪽 방면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며, 지금의 증평군 도안으로 보고, 금현성을 진천 또는 충남 연기군 전의면 지방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A.D 550년의 사건은 훗날 백제 성왕의 전사(戰死)와 신라와 백제 사이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怨讐)관계의 실마리가 된 전투였다.

이제까지 구축된 나제동맹이 변질된 시점이 된 이 전투는 삼국의 국경이 마주친 증평지역과 그 부근에서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신라는 보은 삼년산성을 거점으로 하여 북방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백제의 사정을 알아내고, 공동 작전을 위한 전초기지로도 활용했다. 이미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는 틈을 타서 신라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는다는 방침은 이 때에 마련된 전략이었다고 여겨진다.

신라와 백제는 A.D 551년 봄에 진흥왕은 국내를 순행하다가 낭성(娘城)에 이르러 하림궁(河臨宮)에 머물면서 거칠부(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에 침입케 했으며, 이긴 기세를 틈타 10개의 군을 빼앗았다.[17] 이 전쟁을 수행한 거칠부에 대한 기록에서는 더욱 자세히 당시의 전쟁을 기록했는데, 대각찬(大角湌) 구진(仇珍)·각찬(角湌) 비태(比台)·잡찬(迊湌) 탐지(眈知)·잡찬 비서(非西)·파진찬(波珍湌) 노부(奴夫)·파진찬 서력부(西力夫)·대아찬(大阿湌) 비차부(比次夫)·아찬 미진부(未珍夫) 등 모두 9명의 장군에게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게 했다. 이 때 백제 사람들이 먼저 평양(平壤)을 격파하고 진격하므로, 거칠부 등의 신라군은 승리의 기세를 타서 죽령(竹嶺)의 바깥에서 고현(高峴)의 남쪽까지 10개의 군을 얻었으며, 그가 고구려에 유학할 때에 은혜를 입은 혜량법사(惠亮法師)를 데리고 온 것이라 했다.[18]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는 A.D 550년에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히 싸우다 지친 틈에 도살성과 금현성을 모두 차지한 것처럼, A.D 551년에도 백제가

15) 달기는 달사(達巳)라고도 읽는다. 『한국인물대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에서는 당사로 했으나, 같은 기관의 『譯註三國史記』에서는 일단 달기로 하고, 주석을 달아 달사, 달이(達己) 등의 간행본 마다의 표기를 다루었다. 글자 모양에서 기(己), 이(已), 사(巳)가 비슷하므로 일어난 혼란이다.

16) 이사부는 『三國史記』권44 列傳 4 異斯夫에서 혹은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고 하고, 성(姓)은 김씨로 奈勿王의 4대손이라 했다. 지도로왕(智度路王, 지증왕) 때 거도(居道)의 꾀를 답습하여 가야국을 공취하고 지증왕 13년(A.D 512)에 아슬라주(阿瑟羅州)의 군주(軍主)로서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했다고 했다. 진흥왕 11년(A.D 550)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함락하고,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金峴城)을 함락했다. 왕이 두 나라 군사가 피로에 지친 틈을 타서 이사부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공격하게 하여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갑사(甲士)를 머물게 하여 지켰다. 이 때 고구려에서 군사를 보내 금현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니 이사부가 추격하여 크게 이겼다고 했다. 이 기록은 「新羅本紀」진흥왕 11년의 기록과 「高句麗本紀」 양원왕 6년의 기록과 비슷하나, 「百濟本紀」성왕 28년에서는 고구려가 금현성을 포위했다고만 하여 약간 다르다.

17)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 3월.

18) 『三國史記』권44 「列傳」4 居柒夫.

북진하여 고구려 군을 깨뜨리는 전쟁을 후원하는 것처럼 군사를 움직여, 백제가 승리하여 고구려 군이 내몰리는 형세에서 쉽게 10군의 땅을 얻게 된 것이었다. 이 때 백제는 6개의 군을 탈환했으나, A.D 553년 7월에 신라는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 김무력(金武力)을 군주(軍主)로 삼았다. 백제로서는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내어준 뒤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수십 년을 노력하고 가다듬어 고구려에게서 어렵게 다시 빼앗은 영토가 모두 신라에 넘어가자 일단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듯, 성왕의 딸이 신라 진흥왕의 소비(小妃)로 시집을 가기까지 했다.

A.D 554년 7월에 이르러 백제 성왕은 가야와 왜의 세력까지 동원하여 신라의 배신적인 영토 탈취에 대한 보복적 공격을 했다.

신라는 A.D 550년 도살성과 금현성의 탈취와 이후 한강유역 전체를 영토로 만드는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충청북도 지역을 확보했던 것이다. 처음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인 보은 방면에서 북쪽으로 오늘날의 증평 지역을 점령하고, 이어 A.D 551년에는 국원(國原, 충주)로 순행하여 가야에서 망명한 악성(樂聖) 우륵(于勒)을 만났다는 기록에서, 이미 그가 국원에 와서 살고 있었으며, 이 시기를 즈음하여 단양 신라 적성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라는 이미 금강 상류지역과 한강 중상류 지역을 확보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미 확보된 영토인 증평지역과 충주 · 단양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북상했던 신라는 한강 하류까지 점령하여 신주를 설치함으로써 서해바다에 접하게 됐다. 이 당시 신라의 도성 금성(金城, 경주)에서 서해바다의 요충인 당항성(黨項城, 남양)까지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상주 보은 증평 진천 안성 남양에 이르는 길이었다.

A.D 553년에 신라는 백제가 회복한 백제의 동북 변경을 탈취하여 신주를 설치했으므로, 백제 성왕은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야와 왜의 세력까지 동원했으며, 신라 중심부를 향하여 군대를 보내 신라의 관산성(管山城)을 공격했다.[19]

대규모의 국제적인 연맹군에 의하여 공격을 당한 신라는 군주(軍主)인 각간(角干) 우덕(于德)과 이찬 탐지(眈知) 등으로 막아 싸우도록 했으나, 전세는 신라가 불리했다.[20] 백제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신주 군주 김무력이 신주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게 됐다. 당시 신주의 군대가 움직였다면, 신주의 중심지가 지금의 하남시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일대로 비정되므로, 곧바로 남쪽으로 향하여 광주 이천 진천 증평 보은의 길을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후 백제 성왕을 사로잡은 사람을 삼년산군(三年山郡)의 고간(高干) 도도(都刀)라 하며, 그가 신주 군주의 비장(裨將)이라 했으므로, 일단 보은 방면으로 거쳐 관산성인 옥천 방면으로 이동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삼년산군도 당시 신주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당시

19) 『日本書紀』권19 欽明紀 15년의 기록에는 函山城을 공격하여 성을 불 지르고 빼앗은 것과 왕자인 餘昌이 신라 영토 깊숙이 들어가 久陀牟羅塞를 축조하자, 성왕이 왕자를 보러 감을 신라가 알아차리고 복병을 두었다가 사로잡아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 秋7월의 기록에는 백제 왕 명농(明穠, 성왕의 이름)이 가야가 아니고 加良과 함께 공격해 왔다고 했다. 이때 군주는 아마도 상주(上州) 군주라 여겨지며, 탐지는 A.D 551년 고구려 공격 때 잡찬이었는데 한 등급 승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살성인 증평지역도 신라가 새로 빼앗은 지역에 해당되므로 신주에 소속된 지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투는 계속 열세이던 신라군이 신주 소속의 군대가 보충되면서 역전됐다. 고구려 영토를 점령하고, 백제 영토까지 차지한 군대가 가세했을 때, 백제 성왕은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중에 구천(狗川)에 이르러 복병을 두고 기다리던 삼년산군 고간 도도에게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했다.[21] 이 때 신라군은 백제군을 쳐서 좌평(佐平) 4인과 사졸 29,600명을 목 베고,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으며,[22] 왕자인 창(昌)은 간신히 지름길로 탈출하여 돌아갔는데, 이가 위덕왕(威德王, A.D 554~598)이다.

이 전투 이후 금강 상류지역은 오늘날의 보은, 옥천과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 모두 신라의 영역으로 굳어지게 됐으며, 신라와 백제의 국경은 청주, 청원 지역에서 맞물려, 증평 지역은 신라 서북쪽의 중요한 요충이 됐고, 신라의 서해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주요 거점이 됐다.

신라는 진흥왕 16년(A.D 555)에 왕이 친히 북한산(北漢山)에 순수(巡狩)하여 영토를 확정했다. 당시 신라는 신주를 북한산주라 했다가 남천주(南川州)로 이름을 고치고(A.D 568) 있는데, 당시 소백산맥 이북의 새로 차지한 영토에는 국원소경(國原小京)을 설치하거나, 군현을 두었지만 정확한 명칭과 구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신라의 서울 금성을 출발하여 선산(善山), 상주(尙州), 함창(咸昌)을 거쳐서 문경(聞慶)을 지나 계립령(鷄立嶺)을 넘어서면 바로 국원소경에 이르게 되니, 이 교통로는 한강 유역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상주에서 보은을 거쳐 진천과 안성으로 통하는 길과, 금성에서 군위(軍威), 의성(義城), 안동(安東), 영주(榮州)에서 죽령을 넘어서 단양을 지나는 교통로는 좌우로 이미 일찍부터 사용되던 교통로였다. 계립령과 죽령을 통하는 길은 모두 한강의 뱃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었으나, 상주, 보은을 거쳐 증평, 진천, 안성으로 통하는 길은 육로였다.

21) 『三國史記』권26 「百濟本紀」4 聖王 32년「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至狗川 新羅伏兵發與戰 爲亂兵所害薨 諡曰聖」

22)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

제7절 삼국통일전쟁 시기의 증평

백제 또한 한강 유역의 옛 영토 전체와 금강 상류지역의 옛 영토를 신라에게 빼앗긴 뒤에는 끈질기게 신라에 대한 보복전을 전개했다. 성왕이 전사한 이후 위덕왕은 새로이 국력을 키우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다음 신라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A.D 577년(신라 眞智王 2, 백제 威德王 24)에 백제는 신라의 서쪽 주군(州郡)을 침략했으며, 신라는 일선(一善, 지금의 善山)북쪽에서 이찬 세종(世宗)이 백제군을 격파하여 3,700명의 목을 베거나 사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신라는 백제의 침입에 대비하여 내리서성(內利西城)을 축조했다.[23]

A.D 578년에는 신라가 백제에게 알야산성(閼也山城)을 주었다고 했다.[24] 이듬해에는 백제가 웅현성(熊峴城)과 송술성(松述城)을 축조하여 신라의 산산성(蒜山城)·마지현성(麻知峴城)·내리서성(內利西城)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렸다.[25]

이처럼 신라와 백제는 전투와 축성을 통하여 서로 영토를 넓히려고 경쟁했다. 이 싸움은 계속하여 치열하게 전개됐다.

A.D 602년(신라 眞平王 24, 백제 武王 3)8월에 이르러 20여년의 소강상태를 지나 백제는 다시 신라를 공격하여 아막산성(阿莫山城, 일명 母山城으로 전북 운봉)을 포위하자, 신라에서는 오히려 소타성(小陁城)·외석성(畏石城)·천산성(泉山城)·옹잠성(甕岑城)을 축조하여 백제 땅으로 침범했다. 백제는 4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싸웠으나, 결국 패했다. 이 아막산성 일대는 지금의 지리산 서쪽에서 일어난 영토확장의 충돌로 여겨진다. 이후 백제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침입도 받게 됐는데, A.D 607년 고구려가 송산성(松山城)을 공격하다 이기지 못하자 석두성(石頭城)을 습격하여 3,000여명을 노획하여 돌아갔다. 당시 백제는 중국 수(隋)에 자주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를 공격하기를 요청하면서도 실제로는 몰래 고구려와 내통하여 신라에 대한 견제를 하도록 했다.

A.D 611년 8월에 백제는 적암성(赤嵓城)을 쌓고, 10월에는 신라의 가잠성(椵岑城)을 에워싸고 100일간 공격하여 성주 찬덕(讚德)을 살해하고 함락시켰다. 이 싸움에는 신라의 상주(上州)·하주(下州)·신주(新州)의 3주 군대가 동원됐으나, 성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대적인 전쟁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가잠성을 『괴산군지』에서는 괴산 지역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 전투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삼국사기』의 해론(奚論) 열전을 인용하면서 괴산지방에 전해오는 전설이라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A.D 616년에 백제는 달솔(達率) 백기(苩奇)에게 8천의 병력으로 신라의 모산성(母山城)을 공격하도록 했다. 신라에서는 이전

대동여지도의 증평부근 교통로

23)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智王 2년 「冬十月 百濟侵西邊州郡 命伊湌世宗出師 擊破之於一善北 斬獲三千七百級 築內利西城」

24)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智王 3년 「秋七月 與百濟閼也山城」

25)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智王 4년 「春二月 百濟築熊峴城 松述城 以遮蒜山城 麻知峴城 內利西城之路」

에 함락된 가잠성을 회복하고자 A.D 618년에 장군 변품(邊品)이 출정하니 해론(奚論)이 종군하여 싸우다가 전사했다. 해론은 찬덕의 아들로 이 사실을 「부자 2대의 분사」란 제목으로 괴산군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잠성의 위치는 현재로서는 어디인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당시 신라와 백제 사이 최대의 분쟁이 일어난 지역으로 A.D 628년에도 백제가 포위공격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이 기록되는 등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게 한다.

A.D 624년(신라 진평왕 24, 백제 무왕 25)에 이르러 신라는 백제와의 국경지역에 노진성(奴珍城) 등 6성을 축조했는데, 10월에는 다시 백제가 속함성(速含城)·앵잠성(櫻岑城)·기잠성(岐岑城)·봉잠성(烽岑城)·기현성(旗懸城)·혈책성(穴柵城, 혹은 冗柵城) 등의 6성을 공격하니 신라에서는 상주(上州)·하주(下州)의 군대와 귀당(貴幢)·법당(法幢)·서당(誓幢) 등 중앙군까지 동원하여 막도록 했다. 그러나 백제 군사의 진영을 갖춘 모습이 매우 당당하자 신라군은 진격을 하지 못했다. 속함, 기잠, 혈책의 세 성은 이미 항복하거나 함락됐는데, 눌최(訥催)가 나머지 3성의 군사를 합하여 굳게 지키다가 구원군이 되돌아가자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 이때 신라는 백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 6성을 빼앗겼다. 이 시기에 이르러 백제도 국력이 회복되어 신라와 벌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다.

A.D 629년(신라 眞平王 51) 8월에는 대장군 용춘(龍春), 서현(舒玄)과 부장군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침공하여 항복받은 사실이 있다. 이 낭비성을 청주지방, 혹은 청원군 북이면 부연리의 냄비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곳은 이미 신라의 소유가 된 곳이며, 고구려의 세력은 한강 이북으로 밀린지 오래이기 때문에 중평 부근에서 있었던 전투라 보기 어려우나, 낭비성이 백제의 것을 신라가 공격하여 얻은 것의 잘못된 기록이라 볼 경우에는 중평 근처에서 있었던 전투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백제의 치열한 신라공격에 대하여 신라에서는 이를 고구려와의 협력관계로 물리치려고 선덕여왕 11년(A.D 642)에 김춘추(金春秋)를 고구려에 보내어 원병을 요청하게 됐다. 그러나 김춘추의 외교 교섭에 대하여 고구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보장왕(寶藏王)은 오히려 일찍이 신라가 점령한 소백산맥 이북의 땅을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마목현(麻木峴)과 죽령(竹嶺)은 본시 우리 땅이니 너희들이 만약 그 서북지방을 돌려준다면 같이 군사를 내어 돕겠다"라고 위협했다.

마목현(麻木峴)은 곧 계립령을 말하는 것이니 고구려가 요구하고 나선 마목현과 죽령의 서북지방이란 곧 신라가 A.D 550년 이후 빼앗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동맹을 통해서 백제를 견제해 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

아가자 당(唐)과의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선덕여왕 12년(A.D 643)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 백제의 공격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는 김춘추에게 대당외교의 주역을 담당하게 하여 다시 진덕여왕 2년(A.D 648)에 입당케 했다. 김춘추는 당 태종에게 백제와 고구려를 공동으로 공격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이 무렵인 A.D 647년 10월에 백제는 장군 의직(義直)으로 하여금 3천명의 군사로 신라의 무산성(茂山城, 지금의 무주) · 감물성(甘勿城) · 동잠성(桐岑城)을 포위 공격했다. 신라는 김유신(金庾信)을 보내 이를 막아 크게 물리쳤다.

A.D 648년 3월에 백제는 의직 장군을 시켜 신라의 서쪽 변방의 요거성(腰車城) 등 10여성을 공함했다. 그러나 신라는 다시 김유신에게 막도록 하여 크게 패퇴시켰다. 신라의 김춘추는 이 해에 당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백제는 이듬해인 649년에 장군 은상(殷相)이 정병 7천으로 신라의 석토성(石吐城)등 7개의 성을 공취했다. 신라에서는 김유신과 진춘(陳春), 천존(天存), 죽지(竹旨) 등 장군을 동원하여 백제군을 막게 했다. 신라군은 불리하여 흩어진 군사를 도살성 아래에서 수습하여 다시 싸워 백제군을 물리치고 장사(將士) 100인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0명의 목을 베었으며, 전마(戰馬) 1만 필을 노획하고 기타 군수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획득했다.

이 큰 싸움이 있었던 도살성은 A.D 550년 신라가 얻은 그곳으로 지금의 증평지역에 비정되고 있으며, 증평 지역 외곽으로 삼국시대의 옛 산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A.D 660년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에 총 공격을 했다. 신라의 태종무열왕은 5월 26일 상대등 김유신을 비롯하여 진주(眞珠), 천존(天存)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금성을 출발하여 6월 18일에 남천정(南川停)에 도달했다. 이 때 당의 군대는 서해를 건너와 덕물도(德物島)에 이르니, 6월 21일 태자 법민(法敏)에게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맞이하게 하여 7월 10일 백제 도성의 남쪽에서 만나 백제 도성을 같이 공격하기로 군기(軍期)를 정하게 했다. 태자와 대장군 김유신, 장군 품일(品日)과 흠춘(欽春) 등에게 5만 명의 정예군사로 출정시키고, 왕은 금돌성(今突城)으로 행차했다. 이 때 김유신 등의 군대가 어떤 길로 황산 벌판에 이르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백제의 동쪽 국경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옥천, 금산 방면에서 황산(黃山, 지금의 논산시 연산면)으로 향했으므로, 이천-진천과 음성-증평-보은-옥천과 영동 및 금산의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훗날 황산에서 싸우다가 군기가 늦은 이유로 다툼이 있었음을 보면 군사뿐만 아니라 많은 군량과 각종 무기와 장비를 운반하면서 행군하는 여정은 실로 대단한 위용이었을 것이다. 5만의 대군이 행군한 것은 광개토왕의 군대가 신라를 도와 가야까지 보기(步騎) 5만을 보낸 기록 이후 처음이었다.

태종무열왕은 금돌성에서 백제 의자왕이 7월 18일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7월 29일에야 금돌성에서 소부리성에 이르렀으며, 8월 2일에는 잔치를 크게 베풀어 장병들을 위로한 후, 삼년산성에 돌아와 있었다. 태종무열왕은 9월 28일에 웅진도독으로 임명된 당의 칙사 왕문도(王文度)를 접견했으며, 11월 22일 금성에 도착했다. 따라서 이때 왕이 삼년산성에 머무는 시기 증평지역도 매우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의 징발과 물자의 징발, 조달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신라와 당이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하나, 백제 부흥군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혼란이 계속됐다. 특히 증평에서 멀지 않은 금강 남쪽의 우술성(雨述城, 지금의 대전), 내사지성(內斯只城, 유성 근처), 진현성(眞峴城, 대전 진잠) 등지에서 부흥군이 활동하자, 문무왕 원년(A.D 661) 9월 19일부터 왕과 여러 장군들이 웅현정(熊峴停)에서 서약을 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옹산성(甕山城)을 공격 함락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동시에 상주 총관 품일은 일모산군(一牟山郡) 태수 대당(大幢)과 사시산군(沙尸山郡) 태수 철천(哲川)과 함께 우술성을 공격하여 1천 명의 목을 베고 항복을 받았다. 이 싸움에 참가한 일모산군은 지금의 청원군 문의 지역의 옛 이름이니, 증평과는 가까운 곳이었다. 계속하여 부흥운동군이 지금의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자 신라는 여러 차례 군사 행동을 했는데, 증평 지역이 교통로의 요충지였으므로, 이 시기와 고구려 공격을 위한 군사 이동의 요충으로 계속 중요시됐다.

신라는 문무왕 11년(A.D 671년)에 백제의 옛 중심부에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함으로서 백제 구토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당시 소부리주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는 모르나, 이후 신문왕 때 지금의 청주 지역에 서원소경이 설치됐으므로 청주와 증평은 행정 구역이 구분됐다고 여겨진다.

제3장 통일신라시대의 증평

차용걸 집필

제1절

제1절 지방제도의 개편과 증평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갑자기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통치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정비된 정치제도를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기구가 확대 개편되고, 지방의 행정조직도 재편성되는 조치가 취하여 지게 됐다.

지방제도는 통일로 인한 확대된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조직의 정비가 필요했다. 신문왕(神文王) 5년(A.D 685)봄에 9주(州)가 비로소 갖추어지고, 3월에는 서원소경과 남원소경이 설치되어 여러 주와 군의 백성들을 옮겨 그곳에 나누어 살게 했다고 했으므로, 증평 지역과 이웃한 지금의 청주가 큰 도시로 탈바꿈 됐다.[26] 여기에는 처음 아찬(阿飡) 원태(元泰)를 사신(仕臣)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 후 김유신의 셋째 아들 원정(元貞)이 부임하여 성을 쌓았다.

신문왕 6년(686)2월에 이르러 처음의 9주가 고쳐져서 사비주를 군으로 하고 웅천군을 주로 삼는 조처가 있었으므로, 증평군은 한산주의 남단에 자리하여 웅천주와 경계를 마주하는 곳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지방 제도는 주-군-현으로 누층을 이루고, 소경은 주의 아래이나 특수한 행정 구역을 이루었으나, 모든 행정 구역 내부는 여러 촌(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증평 지역은 한산주에 소속된 금물노군 아래의 도서현으로 존재했다.

주에는 통일 이전에 군주(軍主)가 파견되고, 군과 현에는 태수나 성주, 도사(道使) 등이 있었는데, 주의 책임자는 문무왕 원년(A.D 661)에 군주(軍主)에서 총관(摠管)으로 고치고, 다시 원성왕(元聖王) 원년(A.D 785)에 도독(都督)으

26) 『三國史記』권8 「新羅本紀」8 神文王 5년. 서원소경 이전에는 「지리지」에 의하면 西原을 娘臂城, 혹은 娘子谷이라 했다고 하며, 후대의 지리지에서 백제의 上黨縣이었다고 했다.

로 개칭했다.

주 밑에는 군(郡)을 두고 그에 따른 몇 개의 현(縣)을 설치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전국에 9주와 5소경 120군 305현이 있었는데, 현이나 군은 북쪽으로 영토를 개척하면서 더 많이 설치됐고, 특수한 군사적 요지는 진(鎭)을 두기도 했다. 군에는 책임자로 태수(太守)가 있고, 현에는 현령(縣令), 혹은 보다 작은 현에는 소수(少守, 혹은 制守)가 있었는데, 이들 외관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서 통일신라의 지방제도가 중앙집권적이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주와 군에는 감찰의 임무를 가진 외사정(外司正)이 설치되어, 관리의 부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중앙집권적 제도가 운영됐다.

통일신라 9주 · 5소경과 관할 군현은 경덕왕 16년(A.D 757)년에 이름을 고쳤거나 소경을 경으로 승격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았다.

9 州			5小京	領 屬 數	
州 名	改定名稱 (景德王 16년)	州 治 (現지명)	(現지명)	郡	縣
沙伐州	尙州	尙州		10	31
歃良州	良州	梁州	金官京(金海)	12	40
菁州	康州	晋州		11	30
漢山州	漢州	廣州	中原京(忠州)	28	49
首若州	朔州	春川	北原京(原州)	12	26
河西州	溟州	江陵		9	26
熊川州	熊州	公州	西原京(淸州)	13	29
完山州	全州	全州	南原京(南原)	10	31
武珍州	武州	光州		15	43
計	9		5	120	305

영속된 군과 현의 숫자는 『三國史記』「地理志」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新羅本紀」경덕왕(景德王)16년(A.D 757)에는 117군 · 293현으로 그 수효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이르러 명칭과 일부 변화가 있었던 지방 행정 구역은 삼국시대의 영토 관련 연혁과 관련하여 일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됐으나, 대략 옛 고구려의 땅에서 편입된 지역, 백제 땅이었다가 편입된 지역이 구분됐다.

경덕왕 16년에 개편된 지방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충북 지역의 군현 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州	屬郡	領縣	本 名	高麗時代 改名
尙州	永同郡		(羅) 吉同郡	永同郡(屬尙州)
		陽山縣	(羅) 助比川縣	陽山縣(屬京山府)
		黃澗縣	(羅) 召羅縣	黃澗縣(屬京山府)
	菅城郡		(羅) 古尸山郡	管城郡(屬京山府)

州	屬郡	領縣	本 名	高麗時代 改名
尙州	菅城郡	利山縣	(羅) 所利山縣	利山縣(屬京山府)
		縣眞縣	(羅) 阿冬萬縣	安邑縣(屬京山府)
	三年郡		(羅) 三年山郡	報(保)齡郡(屬尙州)
		耆山縣	(羅) 屈縣	靑山縣(屬尙州)
		靑川縣	(羅) 薩買縣	靑川縣(屬淸州)
漢州	中原京		(麗) 國原城	忠州
	槐壤郡		(麗) 仍斤內郡	槐州(屬忠州)
	黑壤郡		(麗) 今勿奴郡	鎭川(屬淸州)
		道西縣	(麗) 道西縣	道安縣(屬淸州)
		陰城縣	(麗) 仍忽縣	陰城縣(屬忠州)
	介山郡		(麗) 皆次山郡	竹州(屬忠州)
		陰竹縣	(麗) 奴音竹縣	陰竹縣(屬忠州) - 一部 陰城
朔州	奈堤郡		(麗) 奈吐郡	堤(提)州(屬原州)
		靑風縣	(麗) 沙熱伊郡	淸風縣(屬忠州)
		赤山縣	(麗) 赤山縣	丹山縣(屬原州)
熊州	西原京		(濟) 西原	淸州
	燕山郡		(濟) 一牟山郡	文義縣(屬淸州)
		*燕岐縣	(濟) 豆仍只縣	燕岐縣(屬淸州)
		味谷縣	(濟) 未谷縣	懷仁縣(屬淸州)
溟州	奈城郡		(麗) 奈生郡	寧越郡(屬原州)
		子春縣	(麗) 乙阿旦縣	永春縣(屬原州)
		*白烏縣	(麗) 郁烏縣	平昌縣(屬原州)
		*酒泉縣	(麗) 酒淵縣	酒泉縣(屬原州)

표가 있는 고을은 현재 충청북도 구역이 아님.

주 · 군 · 현과 소경 아래로는 고을이 너무 작아 고을을 둘 수 없는 곳에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등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촌(村)이라 불리는 작은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 촌은 자연촌(自然村)인 작은 마을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촌이 합쳐서 이루어진 행정적인 구역으로 짐작된다. 이 행정촌에는 그 지방에 토착하는 유력자를 촌주(村主)로 삼아 자치케 했는데, 이들 촌주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통제를 받았다. 촌과 큰 차이가 없는 행정구역으로 부곡(部曲) 등이 존재했는데, 이런 곳에도 토착적인 세력자가 있었다.

또한 주 · 군 · 현에도 토착적인 이(吏)를 임명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인 외관(外官)을 보좌케 했는데, 이들 토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들을 도성에 불러들여 도성에 있으면서 관부의 일을 맡아보게 하는 상수리(上守吏)제도를 마련했다.

신라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도 공통적으로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다. 신라의 신분제도는 골품제도(骨品制度)라 부르며,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의 두 골(骨) 신분은 왕족이었으며, 혹은 왕족의 대우를 받는 신분이었다. 그 아래로는 6두품(6豆品), 5두품, 4두품 등의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관직에 오르려면 우선 신분적으로 그 관등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했다.

통일 이전에는 1두품에서 성골에 이르기까지 8등급으로 구성된 골품제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후일 3두품 이하는 일반 백성으로 불렸다. 왕족도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 왕통이 끝나고 태종무열왕 이후는 진골 신분에서 왕이 나왔다. 진골 신분은 가장 높은 관등에서 아래까지 모든 관등에 오를 수 있었으나, 보다 아래 신분으로는 관직을 오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제한되어 있었다. 9주와 5소경의 최고 책임자는 진골 신분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 6두품은 17등 관등에서 6등급인 아찬(阿飡)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5두품, 4두품은 차례로 낮은 관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골품제는 왕경(王京)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었고 경위(京位) 17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지방민들은 별도로 외위(外位) 10등급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외위 역시 왕경 6부인이 외지로 이주한 사람에게 별도로 정한 관등이었다가 후일 경위로 일원화됐다.

당시 현령, 혹은 소수가 도서현의 책임자로 임명됐다면, 소수(少守)가 파견됐을 경우 당(幢)에서 대나마(大奈麻, 10등급)까지의 관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었고, 현령(縣令)일 경우 선저지(先沮知 , 造位라고도 함)에서 사찬(沙飡, 8등급)의 관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었다.

경덕왕 때 개편된 지역으로 오늘의 충청북도 지역을 살펴보면 앞의 표로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5개 주의 일부와 중원경 · 서원경의 2소경과 9개군에 13개현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증평 지역은 한주, 흑앙군에 소속된 도서현으로 존재했다.

제2절 통일신라시대 증평지역의 사회생활

신라의 삼국통일은 신라인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한 것에서 이룩된다. 지배계층은 전쟁노비와 식읍(食邑), 녹읍(祿邑) 등을 받아 경제적인 부(富)를 가져다주었다.

신라 귀족들의 생활상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주지방의 안압지의 임해전(臨海殿), 포석정(鮑石亭) 등 유적은 그들의 사치와 환락의 옛 모습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서울(慶州)안에는 178, 936戶, 1,360坊, 58里 35 금입댁(金入宅), 4절유택(4節遊宅)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성안에는 초가집이 없으며 기와집으로 지붕과 담이 연했으며, 노래 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으며, 장작을 사용하지 않고 집이 그을은다고 숯으로 밥을 지었다고 하니 당시의 귀족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新唐書》에 보면「재상가(宰相家)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고 노동(奴童)이 3천명이며, 갑병(甲兵, 私兵)과 소·말·돼지가 이와 같고 바다 섬 안에 길러서 필요하면 잡아먹고, 또 쌀(米穀)을 대부취식(貸付取食)하여 원금과 이자(元利)를 갚지 못하면 노비(奴婢)로 삼았다」고 했다. 이는 신라 귀족들의 살림을 단적으로 표현한 글이라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신라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1933년 10월에 日本의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촌락(村落)에 대한 장적(帳籍)에서 그 일부나마 짐작케 한다. 장적의 작성연대에 대해서는 755년(景淸王 14)으로 짐작이 된다. 이 장적은 4개 촌에 관한 것인데 그중의 하나는 서원경(西原京, 淸州) 관하의 어느 촌의 것이며 다른 셋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원경 부근의 현(縣)관하의 촌으로 집작된다. 물론 이들 4개 촌이 통일신라시대의 촌락 일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것이 서원경(西原京) 주변의 것이라고 한다면 괴산지역에도 이와 같은 장적에 의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촌의 이름이 두 곳에는 밝혀지고 있는데「(當縣)沙害漸村」과「(當縣)薩下知村」이다. 살하지촌과 연결되는 듯한 지명으로 살매현(薩買縣, 지금의 靑川) 이 있음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보는 견해도 있어 관심이 간다.

장적에 나타난 촌락은 자연촌으로 보이는데 국가에서는 이 촌락을 단위로 하여 촌의 범위(村域), 마을 가구수(烟數), 사람수(人口數), 소와 말의수(牛馬數), 토지의 면적, 뽕나무(桑), 잣나무(栢子木), 가래나무(楸子木)의 수와 호구와, 우·마·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감소 등을 파악하여 3년마다 촌락단위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관청(官府)에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마을의 형세를 살피기 위한 촌세조사서(村勢調査書)라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도 호를 단위로 하는 호적(戶籍)이 만들어졌음직도 하지만 이 장적은 촌락을 단위로 한 것이다. 이것은 촌락을 단위로 하여 농민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의하여 촌락에 거주하는 농민의 상황을 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신라에서는 일반 농민들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고 대신 국가에 조(租)를 바치게 했다. 722년(聖德王 21)에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주었다는 기록

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신라장적에 나오는 「烟受有畓, 田」은 농민들이 호별로 경작하는 토지로 바로 이 정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정전이나 연수유답은 국가에서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농민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경작하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대신 국가에 대해서 조(租)를 납부하는 방식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농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정전의 이름으로 경각하고 대신 조를 납부하는 자연농민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 新羅帳籍에 나타난 戶口 · 土地

州	戶口數		土 地				
	戶	人口	種目	官謨田畓	內視令畓	烟受有田畓	麻田
當縣 沙割漸村	10	男 64 女 78	畓	4結	4結	94結2負4束*	
			田			62結10負 束	1結9負
當縣 薩下知村	15	男 47 女 78	畓	3結6負7束		59結98負2束	
			田			119結5負8束	△
□□□村	8	男 37 女 32	畓	3結		68結67負	
			田			58結7負1束	1結△負
西原京 □□□村	10	男 47 女 60	畓	3結20負		25結99負	
			田	1結		76結19負	1結8負

* 이 가운데에는 村主位畓 19結 70負가 포함되어 있음

신라장적에는 연수유답 이외에 관모답(官謨畓), 내시령답(內視令畓), 촌주위답(村主位畓)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관모답은 그 소출이 국가에 들어가는 관유지이고 내시령답은 내시령(內視令)이라는 관리에게 할당된 관료전이며, 촌주위답은 촌주(村主)에게 할당된 토지였는데, 이들 토지는 모두 촌민에 의하여 경작됐다. 따라서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유답을 경작하여 수확을 걷어들이는 대가로 이들 토지를 공동 경작했으니 일종의 노동력 수취(力役)인 셈이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의 농민들은 자영농민으로 독립적으로 연수유답을 소유 경작하는 한편, 촌에 할당된 공유지를 공동체적인 노동으로 경작하는 유제에 의한 역역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역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은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인구를 성별 · 연령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장적에 나타나는 6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파악하려고 한 것은 아마 국가에서 역(役)에 동원할 수 있는 정(丁)의 수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우 · 마를 비롯하여 뽕나무 · 잣나무 · 호두나무 등의 감소를 조사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우 · 마는 역역의 일부로서, 그대상이 됐을 것이며, 유실수의 조사는 경제성이 있는 수목으로 이에 대해서도 조세가 부과됐던 것으로 생

각되니 세금자원(稅源)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철저한 수취체제를 갖추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은 비록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통일 신라에 있어서 촌락이 점차 몰락(零落) 해 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여하간 이 신라장적의 출현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당시 신라의 농촌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같은 자료가 우리 고장에서도 새로이 발견될 것을 기대한다.

제3절 신라 하대의 동요와 증평지역의 동향

이상과 같이 통일 신라는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충북지역에는 중원경과 서원경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 ·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하여 신라 중대(中代)의 꽃을 피우게 됐다. 그러다가 신라 下代에 접어들면서 점차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됐으니 이 또한 지리적인 여건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헌덕왕(憲德王) 14년(822) 3월에 웅천주도독(熊川州都督)으로 있던 김헌창(金憲昌)이 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金周元)이 태종무열왕(武烈王)의 직계손으로 선덕왕(宣德王)에 이어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원성왕(元聖王, 金敬信)이 비상한 수단으로 즉위한데 대한 불만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김헌창은 웅천주(熊州, 지금의 公州)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 하고 한 때 기세를 떨쳤다.

이때에 김헌창은 무진(武珍, 지금의 光州) · 완산(完山, 지금의 全州) · 청주(菁州, 지금의 晋州) · 사벌(沙伐, 지금의 尙州)의 4주 도독과, 중원경(中原京, 지금의 忠州)과 서원경(西原京, 지금의 淸州) · 금관경(金官京, 지금의 金海)의 임신(任臣, 小京 長官)과의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하여 자기소속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에 청주(진주)도독만이 몸을 빼어 달아났을 뿐 모두가 김헌창의 예하에 들게 됐다. 또한 한산주 · 우두주(牛頭州, 지금의 春川), 양주(良州, 지금의 梁山)와 패강진(浿江鎭, 지금의 황해도 지역), 북원경(北原京, 지금의 原州) 등의 여러성은 먼저 김헌창의 역모를 알고 군사를 일으켜 자수했으니 그 세가 대단했다. 김헌창은 신라의 9주 5소경 중에서 5주 3소경을 장악하게 됐으니 지금의 충청도를 비롯하여 전라도 경상도의 광범한 지역이 가담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내란으로 확대됐다.

이에 완산주의 장사(長吏)인 최웅(崔雄) 등이 서울로 도망하여 반란사실을 고하니 조정에서는 급히 이에 대처하는 계략을 세워 대응케 했다. 왕은 장웅

을 선발대장으로 삼아 공격케 하여 도동현(道冬峴, 지금의 永川)에서 반군을 격파하고 후원군과 함께 보은의 삼년산성(三年山城)을 공격하여 반군을 격파하고 여세를 몰아 속리산(俗離山) 방면으로 나아가 섬멸했다. 곳곳에서 반군을 위협하여 드디어는 모든 군사들이 웅진(熊津)에 이르러 총공세를 가하자, 김헌창은 10여 일 만에 자살하게 됐다. 이에 그의 종족과 당여 239명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놓아주어 난을 일단 수습하게 됐다.

그러나 헌덕왕 17년(825)정월에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金梵文)이 여주의 고달산 지역 호족인 수신(壽神) 등 백여명과 함께 다시 반란을 일으켜 도읍을 평양(지금의 楊州)에 정하려고 북한산주를 공격했으나 도독 총명(聰明)에게 패하여 진압됐다. 이 김헌창 부자의 반란은 무열왕계에 의한 마지막 내물왕계에 대한 항거로 볼 것이지만 이후 신라 하대에는 끊임없는 왕위계승을 위한 귀족 내부간의 싸움으로 끝내는 왕조의 멸망을 자초하게 됐다. 이 난은 그 시원이라고 하는데에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제4절

제4절 호족 시대의 증평

신라하대의 혼란은 진성여왕(887~897)이 즉위하면서 극도에 달하게 됐다. 중앙 귀족들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오직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은 궁핍해지고 지방에 대한 명령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책(時務策) 10여조의 건의를 한 것도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에는 새로운 실력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호족(豪族)이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토지와 인민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게 됐다. 이들은 스스로 성주(城主) 또는 장군(將軍)이라 칭하며 군사력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력을 장악하고 조세와 역역까지 징수했다. 이리하여 이들 호족은 지방의 막대한 농장(農莊)과 사병(私兵)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만반제(官班制)를 이룩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의 농민들은 지방의 성주과 국가에 대해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안아야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무질서의 혼란은 마침내 889년(眞聖女王 3)에 전국적인 민란으로 번지게 됐다. 중앙정부의 지방통제가 약화되자 주 · 군 · 현의 조세가 수송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여왕은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를 독촉하니 곳곳에서 수송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여왕

은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를 독촉하니 곳곳에서 농민이 봉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반란 농민은 초적(草賊)이라 하여 조세를 거부하고 정부에 반항했을 뿐 아니라 떼를 지어 지방관아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에 각지에 자립하고 있었던 호족들은 이들 초적들을 이용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려는 자가 생겼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주에 근거하여 일어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였으며, 그 후 북원(北原)의 양길(梁吉), 죽주(竹州, 지금의 竹山)의 기훤(箕萱), 完山州(지금의 全州)의 견훤(甄萱), 그리고 양길의 부하인 궁예(弓裔) 등이다. 이들은 각기 농민의 봉기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군웅할거의 현상을 이루었다.

이들 반란군 중에서 정권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견훤과 궁예였다. 견훤은 본래 상주지방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신라군에 들어가 서남해 방면의 비장(裨將)이 됐는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자기 예하의 군대를 이끌고 자립하여 무진주(武珍州, 지금의 光州)를 취하고 다시 완산주에 이르러서 892년(眞聖王6)에 후백제를 건국했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 태어나 궁실에 버림받는 몸이 되자 일찍이 중이 됐다. 그 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죽주에서 견훤의 휘하가 됐다가 북원지방의 양길(梁吉)의 부하로 들어가 크게 활약하다가 894년(眞聖8) 10월에 하슬라(何瑟羅, 지금의 江陵)로 들어가 크게 위세를 떨치니 군중이 그를 장군이라고 추대하는 정도였다. 이때 궁예는 개국할 뜻을 갖고 왕을 자칭하고 내외 관직을 설치하니 나라 이름을 고려(高麗)라 했다. 이듬해인 895년에 왕건(王建)이 송악(松嶽, 지금의 開城)에서 궁예에게 투항하니 궁예는 그를 철원태수(鐵原太守)에 임명하는 등 영역을 확장하면서 898년(孝恭王 2)에 송악에 도읍을 정했다.

한편 양길은 899년(孝恭王 3)에 북원에 있으면서 국원(國原, 지금의 忠州)등 30여성을 공취하고 이 군세를 몰아 궁예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패하고 말았다. 궁예는 이듬해(900)에 왕건에게 명하여 광주·충주·당성(지금의 華城郡 南陽)·청주(菁州, 지금의 靑川)·괴양(槐壤, 지금의 槐山) 등을 쳤으니 이 때 충주·청천·괴산 방면의 청길(淸吉)·신훤(莘萱) 등이 성을 들어서 항복했다. 이 전투로 인하여 충북의 북부지방인 충주·청주·괴산 등지가 모두 궁예의 수중에 들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신라는 분열하여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로 접어들게 됐다. 궁예는 904년(孝恭王 8)에 다시 초기의 세력기반이었던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청주의 민가(人戶) 1천을 옮겨 살게 했다. 이 사민정책에 대하여는 청주지방의 호족세력이 후백제에 붙을 가능성 때문에 강제 이주시켰다는 등의 견해가 있음을 지적한다. 궁예는 이 해에 나라 이름을 마진(摩震)이라 하고 연호를 무태(武泰)라 허더니 911년(孝恭王 15)에는 국호를 태봉(泰封),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 고치는 등하면서 체제도 정비하고 면모도 갖추더니 지나친 전

제적 권위를 과시하다가 918(景明王 2)에 신하들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궁예의 뒤를 이어 왕건이 추대되는 왕건은 고려라 나라이름을 정하고 천수(天授)라 연호를 세우니 고려왕조의 태조이다. 왕건 태조는 이듬해(919)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했다.

제4장 고려시대의 증평

정제규 집필

제1절 기록에 보이는 증평

증평과 관련된 고려시대의 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려시대 증평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고려사(高麗史)』도 사실은 조선 문종 1년(1451)에 완성된 사서이기 때문이다.[1] 더욱 이 책은 태조의 명에 따라 정도전(鄭道傳) 등이 편찬을 시작했으나, 여러 차례 개수(改修)를 거치며 비로서 완성됐다. 이것은 조선 건국의 합리화와 정치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시대사의 사실에 대한 곡필(曲筆)과 편찬에 참여한 사관들의 지나친 주관 개입 등으로 인하여 비롯된 결과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사의 실상을 완전하게 수록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증평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역시 『고려사』의 기록일 것이다. 특히 지리지의 기록은 증평지역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 *청당현(靑塘縣)은 일명 청연현(靑淵縣)인바 고려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본 목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를 두어 도안(道安)을 겸임케 했다.(『고려사』 권56, 지리지 1)*

이곳에는 청당(靑塘)과 청연(靑淵) 그리고 도안(道安) 등 증평의 옛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 초기부터 청주목(淸州牧)에 속하여 그 관할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증평과 관련된 또 하나의 기록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찾아진다.

1) 문종 1년(1451)에 『고려사』가 간행되기까지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태조 4년(1395)에 완성한 정도전의 『고려국사(高麗國史)』는 37권의 분량이었으나 단시일에 편찬됐고, 찬자(撰者)인 개국공신들의 주관이 개입됐으며, 태종 즉위 이후의 조선 건국과정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다는 문제성이 제기되어 사서(史書)로는 무가치한 것이 됐다. 이후 세종 1년(1419) 9월에 유관(柳觀)·변계량(卞季良) 등에게 개수를 명했으나, 변계량은 고려 원종 이전의 여러 왕의 묘호(廟號)를 참칭(僭稱)이라 하여 삭제했고, 또 『고려실록(高麗實錄)』에 나타난 고려의 왕실용어 등을 개서(改書)했다. 이에 세종 5년(1423)에 유관과 윤회(尹淮)에게 직서(直敍)하도록 명하여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를 완성했으나 내용이 소홀함이 많아 다시 권제 등에게 명하여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의 간행을 보았다. 그러나 이 책도 권제가

자기 조상에 대한 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고, 또 남의 청탁을 받고 고쳐 쓰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어 반포가 중지됐다. 이후 세종 31년(1449)에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에 명하여 다시 수정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때에는 전부터 논의됐던 사체(史體)의 문제가 제기되어 종래의 편년체(編年體)에서 기전체로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문종 1년(1451) 8월에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총139권의 『고려사』가 편찬됐다.

*青塘과 靑淵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각각 靑塘과 靑淵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정리한 사서로서 조선 세종 6년(1424)에 윤회(尹淮)에 의해 편찬됐던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를 개수(改修)하여 문종 1년(1452)에 완성한 책이다. 특히 『고려사』에는 밝혀져 있지 않은 사실(史實)들이 많이 실려 있어 고려시대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려 초기 중평지역의 위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청주(靑州)의 영군장군(領軍將軍) 견금(堅金)과 부장(副將) 연욱(連翌) 흥헌(興鉉)이 와서 뵈오니, 각기 말 한 필을 내려 주고 능백(綾帛)을 차등 있게 주었다. 처음에 왕이 청주(靑州) 사람이 변사(變詐)가 많음으로써 일찍 대비(對備)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라 하여, 그 고을 사람 능달(能達) 문식(文植) 명길(明吉)등을 보내어 가서 탐지하게 했다. 능달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했다. (중략) 견금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외람되게 이해(利害)를 진술한 것이 도리어 무고와 참소 같았는데도 죄를 주지 않으시니 은혜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후에는 성심으로 나라를 도웁기로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고을의 사람도 사람마다 각기 제 마음이 있으니, 만약 난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제어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관군(官軍)을 보내어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 왕이 그렇게 여겨 마군장군(馬軍將軍) 홍유(洪儒) 유금필(庾黔弼) 등을 보내어 군사 1천5백 명을 거느리고 진주(鎭州)에 주둔하여 대비하게 했다. 이 후에 도안군(道安郡)에서 아뢰기를, "청주(靑州)에서 비밀히 후백제와 서로 화호(和好)를 통하며 장차 반역하려 합니다" 하므로, 왕이 마군장군 능식(能植)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진무(鎭撫)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반역하지 못했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이곳에는 고려 초기의 정치적 상황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특히 도안지역은 청주와는 달리 고려 태조 왕건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중평을 포함한 충북지역이 고려 초기 상당히 중요했던 전략적 거점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지역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제2절 충북지역과 고려시대사의 전개

1.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시대 고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34대에 걸쳐 유지됐던 왕조(王朝)였다. 태조 왕건(王建)은 송악(松嶽, 지금의 개성)의 호족으로서 궁예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918년 민심을 잃은 궁예(弓裔)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 이후 935년 신라의 귀부(歸附)를 받고, 이듬해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멸망시켜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했다. 고려(高麗)라는 국호는 고구려(高句麗)의 후계자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왕조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첫째는 고려사회는 지방 호족세력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왕건은 지방세력 출신으로서 호족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통일된 왕조를 건국했다. 따라서 호족세력은 건국의 주역으로서 중앙 정권에 상당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들은 중앙 관리로 편입되어 나갔다. 이들이 곧 고려의 귀족세력이었다. 둘째는 과거제(科擧制)로 인재를 뽑아 중앙의 관리로 임명하는 과정이 국가 제도로써 확립됐다는 점이다. 물론 귀족의 특권으로써 5품 이상 관리의 자제에게 과거를 보지 않고도 음직(蔭職)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통일신라시대 성행됐던 골품제도(骨品制度)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가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일어났던 시대였다는 점이다. 고려사회의 지배세력들은 새로운 유교정치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를 행했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국가와 진골 귀족의 옹호를 받아 발달했던 교종(敎宗)과 달리 문자에 의하지 않고 깨달음을 중시했던 선종(禪宗)이 널리 성행했다. 이 유교적 정치이념과 불교신앙은 고려사회를 유지하여 주는 기본적인 원리로써 작용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성립됐다. 넷째는 고려사회는 고대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 곧 중세의 시작이었다는 점이다. 고대사회는 골품제가 사회의 운영원리로써 성행됐다. 신라사회에서는 출생한 혈족에 따라 지위와 신분이 규정됐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신라말 고려초의 시기에 지방 호족 세력과 지식층인 육두품 출신들이 골품제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했다. 고대의 폐쇄적인 체제에서 보다 개방되고 진전된 사회로 나간 것이다.

2. 신라말 고려초의 친왕건세력과 증평

증평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주목되는 사실은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전환되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증평을 포함한 충북지역은 후백제와의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보은 · 문의 · 회인 · 괴산 · 청주 · 충주 일대의 충북지역과 상주 · 성주 · 대구 · 합천 일대의 경북지역은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대로써 이곳에는 성주(城主) 또는 장군(將軍)으로 불리우는 호족(豪族) 세력이 존재하면서 독자적인 군사력과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곧 이들 호족의 세력이 어느 쪽으로 합쳐지느냐에 따라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목에 속했던 증평지역은 고려 초기에 발생했던 반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그에 반대하는 모반이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도안지역은 친고려적(親高麗的)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역은 본래 호족세력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이었다. 특히 이곳은 일찍부터 궁예의 지지기반으로써 궁예가 철원에 수도를 정할 때 청주인호 1천을 옮겨 도읍을 정비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왕건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심했고, 마침내 태조 원년 9월에 순군사(徇軍吏)[2] 임춘길(林春吉)의 반란사건과 10월에 청주수(淸州帥) 진훤(陳萱) · 선장(宣長) 형제의 반란 등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속에서 증평지역의 호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靑州, 현 청천)의 장군 견금(堅金)은 왕건이 즉위한 다음 달인 원년 7월에 그의 부장(副將)이었던 연욱(連翌), 홍현(興鉉)과 함께 왕건을 찾아가 "청주인들은 변조(變詐)가 심하니 일찍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하여 관군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귀부했다. 견금은 청주(靑州)의 세력가였다. 이에 왕건은 이들에게 마능백(馬綾帛)을 차등있게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고려와 현재 청천의 호족세력들이 군신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청주지역의 반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홍유(洪儒)와 유금필(庾黔弼)을 병사 1500과 함께 진주(鎭州, 현 진천)에 머물게 했다. 또한 도안군(道安郡, 지금의 도안)으로부터 반란과 관련된 보고가 올라오자 능식(能植)을 파견하여 진압에 나서게 했다. 곧 증평지역은 고려 초기 친왕건세력이 있었던 곳으로 고려의 건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후의 도안지역의 세력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당시 반란세력을 진압했던 진천 지역에서의 호족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증평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당시 진천의 호족들은 왕건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되어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를 건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임명필(林明弼)이라든가 임휘 등이

2) 순군부(巡軍府)는 고려 초기의 군사기구이다. 당시 정치세력의 중심이었던 호족들의 군사력과 연결된 협의체적인 군사지휘권의 통수부로 기능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건국 직후 각각 순군부령(巡軍府令)과 병부령(兵府令)에 임명되어 군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진천 지역은 청주 이남의 호족들을 진압하기 위한 고려의 남단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진천의 대표적인 호족세력이었던 임씨들은 이러한 역할로 인해 고려 건국 초에 이곳의 '토성(土姓)'으로 분정(分定)받게 됐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誌)의 진천현(鎭川縣) 토성조(土姓條)에는 "진주에는 임씨(林氏)를 비롯한 10개의 토성이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일반 군현의 2배나 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동시에 고려 초기에 이곳에 강력한 재지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진천의 양상은 고려 초기의 증평지역에도 비슷하게 전개됐을 것이다.

3. 외민족의 침입과 증평지역

증평을 포함한 충북지역에서의 중요한 사실가운데 하나는 외민족의 침입과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북방에서 거란과 몽고의 침입, 동해안에서 왜구의 침입 등 상당히 많은 전란이 발생했다.

충북지역에서 외민족의 침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첫 번째의 사실은 고려 현종 2년(1011) 거란의 침입으로 왕이 나주(羅州)에까지 피난했다가 개경으로 돌아갈 때 청주에 들러 행궁에서 연등회(燃燈會)[3]를 베풀었다는 것이다.[4] 거란은 성종 12년(993) 10월 숙손녕(蕭遜寧)이 대군을 이끌고 1차로 침입을 해왔으나, 서희(徐熙)와 화친 회담을 하고 물러갔다. 당시 고려는 송(宋)의 연호 대신 요(遼)의 연호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흥화진(興化鎭)·통주(通州)·구주(龜州)·곽주(郭州)·용주(龍州)·철주(鐵州) 등의 압록강 유역을 획득했다. 거란의 2차 침략은 현종 1년(1010)에 발생했다. 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千秋太后)와 김치양(金致陽)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강조(康兆)가 반란을 일으키고 목종을 폐위하자 그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침략한 것이다. 당시 통주·곽산·안주 등의 성을 빼앗기고 개경까지 함락하자 현종은 나주(羅州)로 피난했다.

비록 거란의 침입이 충북지역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현종이 청주에서 연등회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연등회는 불교식 민중제전(民衆祭典)으로 성종에 의하여 금지됐으나, 거란의 침입을 당하여 부활됐던 사실은 불교에 기반을 두었던 고려사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증평 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재들은 이같은 배경을 가지고 조성된 것이다. 현종은 정사일(丁巳日)에 청주에 머물

3) 연등회는 국가적으로 치러졌던 불교행사의 하나이다. 불을 찬란하게 밝히고 큰 잔치를 베풀어 여러 부처와 천지신명을 즐겁게 하고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다.

4) 『고려사』 권 제4, 세가 제4, 현종1, 신해2년, 기미조.

러 3일째 되는 날 연등회를 베풀었고, 다음날 청주를 떠났다. 당시 청주에는 절도사가 파견되어 있었다. 절도사체제가 군사 중심의 행정적인 체제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시 고려 왕실에서는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과 불교에 기반을 둔 사상과 신앙에 기반을 둔 민중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고려시대에 외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충북지역에 잠시 들렀던 경우는 공민왕대에도 있었다. 곧 공민왕 10년(1361)에 홍건적이 침입으로 왕이 복주(福州, 지금의 安東)로 피난했다가 다음해 청주에 들어와 7개월간 머물렀던 적이 있다. 이곳이 삼도의 요충지로써 곡식을 운반하기 쉽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충북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전쟁은 몽고의 침략이었다. 몽고는 고종 18년(1231)에 장군 살리타를 중심으로 대군이 침입했다. 이에 고려는 귀주에서 박서(朴犀)가 항전했으나 결국 수도가 포위되어 화친을 요청했다. 이후 몽고는 서북면에 다루가치[達魯花赤][5]를 설치한 후 철수했다. 그러나 무리한 조공의 요구와 파견된 몽고 관리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고종 19년(1232)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다시금 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1258년까지 7차에 이르는 침입을 해왔다.

충북지역에서의 몽고와의 전투는 고종 18년(1231)에 있었다. 충주지역이 몽고군에게 처음으로 공격을 받은 것은 1231년 12월이었다. 이때 살리타는 개경을 포위하고 휘하의 별동부대로 하여금 양주, 광주, 충주, 청주 등의 여러 성을 공격했다. 당시 충주에는 부사 우종주(于宗柱)가 양반별초(兩班別抄)를 거느리고, 판관 유홍익(庾洪翼)이 노군(奴軍)과 잡류별초(雜類別抄)를 통솔하여 맞섰으나 노군과 잡류별초만이 끝까지 남아 항전했다. 뒤에 도망갔던 지휘관과 양반별초들이 노군에게 약탈의 책임을 묻게 되자 난이 발생했고, 국가에서는 안무별감(按撫別監) 김공정(金公鼎)을 보내어 노군들을 진무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또다른 전투는 고종 41년(1254)에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에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몽고군의 척후 기병이 서해도에 들어왔다. 무진일에 몽고 기병 30명이 협계(峽溪) 관산역(冠山驛)에 와서 진을 쳤다. 8월 초하루 신미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왕이 친히 소재(消災) 도량을 베풀었다. 계유일에 경상 전라 두 도에서 각각 야별초 80명을 보내 서울을 수위했다. 갑술일에 지진이 있었다. 몽고군사가 서북 변경에 침입했다. 병자일에 몽고 척후병이 광주(廣州)에 들어왔다.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 10명을 감형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기축일에 안정공(安慶公) 왕창이 몽고로부터 돌아오는데 몽고 사신 10명이 함께

5) 몽고의 관직가운데 하나로 정복지에 설치됐다. 『원사(元史)』 고려전에는 모두 72명의 다루가치가 40여 개의 성에 배치됐다는 기록이 있다.

왔다. 왕이 제포궁(梯浦宮)에 가서 연회를 베풀어 몽고 사신을 위로했다. 몽고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저희들에게 안경공을 모시고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만리 험로에 무사히 득달하지 못할까 염려했더니 오늘 다행히 사고 없이 돌아가게 되오니 우리들은 매우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술잔을 드리겠다고 하므로 왕이 이를 허락했다. 경인일에 몽고군의 척후 기병이 괴주(槐州)성 밑에 진을 치므로 산원(散員) 장자방(張子邦)이 별초(別抄)를 거느리고 그를 쳐부수었다. 임진일에 대장군 이장(李長)에게 명령하여 몽고군의 병영인 보현원(普賢院)에 가서 차라대(車羅大), 여속(余速), 독보파대(禿甫波大) 등 원수 및 영령공(永寧公) 왕순, 홍복원(洪福源) 등에게 금, 은, 주기(酒器), 피혁, 포백 등 물품을 차등 있게 주도록 했다. (중략) 계축일에 차라대(車羅大)가 충주 산성을 침공했다. 이때에 폭풍이 일어나고 비가 퍼부었는데 성 안 사람들이 정예한 군사를 뽑아서 맹렬하게 치니 적이 에워쌌던 것을 풀고 드디어 남쪽으로 내려갔다. 을묘일에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갔다. 정사일에 왕이 왕륜사(王輪寺)에 갔다.(『고려사』 권24, 고종3 갑인)

이같은 내용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똑같은 기록이 보이고 있다. 곧 몽고병의 척후기병은 광주를 거쳐서 괴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산원 장자방이 이끄는 별초에 의하여 패했다. 이후 충주산성에까지 이르렀으나 거센 항전과 급변하는 기후로 인하여 패퇴했다. 이 충주성에서의 전투는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스스로가 이 전투를 통하여 비로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은 충북지역에서 몽고의 침략에 맞서 굳세게 항전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려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고종이 같은 해 12월에 신묘(神廟)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올렸던 글에는 그같은 참상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12월 갑신일에 신묘(神廟)에서 산천 신령들에게 합제(合祀)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이 고했다. (중략) 그러나 태조께서 불과 한 자 되는 칼로 삼한의 영역을 깨끗이 정리하여 통일을 달성한 뒤에 슬기로운 임금들이 서로 잇닿아 오늘까지 왕업을 계승하여 왔다. 이 3백여 년 동안에는 운수 소관으로 재변이 자주 일어났으나 그 즉시로 평정할 수 있은 것은 완전히 우리의 산천 신령들의 한결같은 음덕으로 사직(社稷)을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신묘년 이후로 불행히 몽고의 침략을 받아 여기서 발생된 나라의 재난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됐다. 아아! 우리에게 있는 재부를 다 모아서 해마다 두 번씩 공납을 깍듯이 했건만 그들의 트집과 요구가 더욱 심하더니 또 작년에는 대군을 일으켜 가지고 동쪽으로 침입하여 변경의 여러 성을 순식간에 몽땅 도륙을 내었으며 이긴 기세에 곧 정예

부대로써 나라의 중심부로 발길을 돌려 여러 달을 두고 화살을 빗발치듯이 퍼부으매 고립무원한 성이 거의 위태롭게 됐었다. 이때를 당하여 만일 이 성이 함락됐더라면 다른 성들은 반드시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졌을 것이다. 다행히 월악산(月岳山) 신령이 큰 위력을 나타내고 가만히 도와 주었음으로 하여 이 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마침내 만세의 공적을 이루어 놓았다. (중략) 이해에 몽고군에게 잡혀간 남녀가 무려 26만 6천 8백여 명이요, 살육을 당한 사람은 이루 셀 수가 없었으며 그들이 지나간 주, 군(州郡)들은 다 잿더미로 됐다. 몽고 병란이 있은 뒤로 이보다 심한 때는 없었다.(하략)(『고려사』 권24, 고종3 갑인)

26만명에 이르는 포로와 잿더미로 변한 각 지역의 참상은 중평을 포함한 충북지역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충북지역에서 확인되는 외민족의 침략과 관련한 또다른 사실은 왜구의 침입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우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왜적이 양광도를 침범하여 음죽(陰竹), 음성(陰城), 안성(安城), 죽주(竹州), 괴주(槐州)에 이르렀다. 지밀직사사 윤사덕(尹師德), 자혜윤(慈惠尹) 이(공정왕), 밀직부사 유룡생(柳龍生), 김용초(金用超), 의덕부윤(懿德府尹) 곽충보(郭忠輔)를 파견하여 잡게 했더니 영주도(寧州道) 고산(高山) 밑에서 적을 만나 1백여 명을 죽이고 포로됐던 사람들과 노획당했던 가축을 탈환하여 돌아왔다.(『고려사』 권45, 공양왕 1 경오 2)

2) 6월. 왜적이 청주를 침공했는데 그 기세가 강성하여 아군이 소문만 듣고도 도망쳤다. 이때 아군은 방심하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노략질하는 적의 틈을 타서 적을 습격하여 10여 명을 베었다.(『고려사』 권133, 신우 1, 무오 4)

3-1) 왜적이 경상도 길안(吉安), 안강(安康), 기계(杞溪), 영주(榮州), 신녕(新寧), 장수(長守), 의흥(義興), 의성(義城), 선주(善州) 등지를 침략하고, 또 단양(丹陽). 제주(堤州)를 침략했다. 전의령(典儀令) 우하(禹夏)를 경상도에 보내어, 원수(元帥)들의 왜적 막는 일을 독려하고 살피게 했다. 7월에 우하가 여러 병마사를 독려하여 의성에서 왜적을 쳐서 3급(級)을 베고, 또 예안(禮安), 순흥(順興)에서 싸워서 14급을 베었다. (중략) 왜적이 대구(大邱), 경산(京山)부, 선주(善州), 인동(仁同), 지례(知禮), 김산(金山)등지를 침범했다. 양광도 원수 왕안덕(王安德)이 괴주(槐州)에서 왜적을 쳐서 3급을 베었다.(『고려사절요』 권32 , 신우 9년 7월)

3-2) 왜적이 단양(丹陽), 제천(提川), 주천(酒泉), 평창(平昌), 횡천(橫川), 영주(榮州), 순흥(順興) 등지에 침입했다. 왕안덕(王安德)을 양광도 조전 원수(助戰元

帥)로 임명하고 전의령 우하(禹夏)를 경상도로 파견하여 여러 원수들의 왜적 방어 정형을 검찰하게 했다.(『고려사』권135, 신우3, 계해 9)

4) 왜적 2백여 기가 괴주(槐州) 장연현(長延縣)을 침략하니, 원수 왕안덕, 김사혁(金思革), 도흥(都興)이 적과 싸워 3급을 베었다. 왜적 1천여 명이 춘양(春陽), 영월(寧越), 정선(旌善) 등 군·현을 침략했다.(『고려사절요』권32 , 신우 9년 8월)

5) 왜적 1천여 명이 옥주(沃州), 보령(報令) 등 고을을 함락하고, 개태사(開泰寺)로 들어가서 계룡산(鷄龍山)에 웅거했다. 문달한(文達漢), 왕안덕(王安德), 도흥(都興)이 나가서 공격하니, 적이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공주목사 최유경(崔有慶)과 판관 송자호(宋子浩)가 구점(仇岾)에서 싸워서 자호는 패하여 죽고, 달한, 김사혁(金斯革), 안덕, 도흥, 안경(安慶), 박수년(朴壽年) 등은 공주 반룡사(盤龍寺)에서 싸워 8급을 베고, 사혁은 목천(木川), 흑점(黑岾)에까지 추격하여 20급을 베었다.(『고려사절요』권32, 신우 9년 8월)

고려시대에 왜구는 빈번하게 우리의 해안지역은 물론 내륙으로까지 침략하여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인용된 기록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이다. 이를 보면 왜구는 이미 공양왕대에 음죽(陰竹), 음성(陰城), 안성(安城), 죽주(竹州), 괴주(槐州)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 충북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왕 4년(1378)에는 청주에까지 침략을 해온 것이 확인된다. 더욱 우왕 9년에는 200여 명이 괴주(槐州)의 장연현(長延縣)을 침략했고, 옥주(沃州, 지금의 옥천)와 보령(報令, 지금의 보은) 등에는 1천여 명 이상이 침략을 해왔다.

이같은 왜구의 침략은 모든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고려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큰 피해를 주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려 말기에 왜구에 대한 무력 토벌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무장세력이 출현하여 새로운 왕조의 건국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3절 고려의 지방제도와 증평의 변천

1. 고려 지방제도의 변화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郡縣制)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중앙에서 외관

(外官)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고려의 지방제도는 주(州) · 군(郡) · 현(縣)이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경(京)-도호(都護)-목(牧)-주(州)-부(府)-군(郡)-현(縣) 등으로 구별됐고, 여기에 다시 수령이 파견된 주현(主縣)과 수령이 없었던 속현(屬縣)으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수관(界首官)[6]이 파견되어 있는 경(京) · 도호부(都護府) · 목(牧)과 수령이 파견된 주현에 직접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수령이 있었던 주현이 이웃의 속현을 관할하게 했다. 곧 고려의 지방제도는 중앙정부-계수관-주현-속현으로 이어지는 누층적(累層的)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 지리지의 서문은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변천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 *태조 23년(940)에야 비로소 전국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이 명칭을 고쳤고 성종(成宗)이 다시 주, 부, 군, 현과 관방(關防), 역참(驛站), 강하(江河), 포구(浦口)의 명칭을 고치면서 마침내 전국을 나누어 10개 도(道)로 만들고 12개 주에 각각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당시 설치된 10개의 도는 첫째로 관내(關內), 둘째로 중원(中原), 셋째로 하남(河南), 넷째로 강남(江南), 다섯째로 영남(嶺南), 여섯째로 영동(嶺東), 일곱째로 산남(山南), 여덟째로 해양(海陽), 아홉째로 삭방(朔方), 열째로 패서(浿西)도이며 그 관하의 주, 군, 총 수는 5백8십여 개였다. 우리 나라 지리가 이 시기에 가장 발전됐던 것이다. 현종(顯宗)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전국에 5개 도호(都護)와 75개 도에 안무사(安撫使)를 두었다가 얼마 후 안무사를 없애고 4개 도호와 8개 목(牧)을 두었다. 그 후로부터 전국을 5개 도(道)와 두 개의 계(兩界)로 정했으니 즉 양광(楊廣)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交州)도, 서해(西海)도와 동계(東界), 북계(北界)였다. 전국에 총계 경(京) 4개, 목(牧) 8개, 부(府) 15개, 군 129개, 현 335개, 진(鎭) 29개를 두었으며 그 경계선의 서북쪽은 당 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경계로 했고 동북쪽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했다. 대개 서북쪽은 고구려 경계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쪽은 고구려 때보다 확장됐다.(『고려사』 권56 지리지1)*

이를 보면 고려의 지방제도는 태조대에 시작되어 성종대에 일부 보완됐고, 현종대에 이르러서야 정비가 완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고려시대의 왕권이 성종대를 지나 현종대에까지 지방을 완전하게 통치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지방제도의 정비과정 속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성종 2년(983)에 설치된 12목(牧)이다. 12목은 양주(楊州)를 비롯하여 광주(廣州) · 충주(忠州) · 청주(淸州) · 공주(公州) · 해주(海州) · 진주(晉州) · 상주(尙州) · 전주(全州) · 나주

6) 『고려사』「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문종 때에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또는 안북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에는 사(使, 3품이상) · 부사(副使, 4품이상) · 판관(判官, 6품이상) · 사록 겸 장서기(司錄兼掌書記, 7품이상) · 법조(法曹, 8품이상) · 의사(醫師, 9품) · 문사(文師, 9품) 각 1명씩을 두었다고 했다.

(羅州)·승주(昇州)·황주(黃州) 등을 말한다. 『고려사(高麗史)』백관지(百官志) 외직조(外職條)에 의하면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는 한편 금유(今有)·조장(租藏)의 직제를 폐지했다고 했다. 『고려사』권77「백관지(百官志)」외직조(外職條)를 보면, "금유(今有) 조장(租藏)은 모두 외읍(外邑) 사자(使者)의 이름이다. 국초에 있었는데, 성종 2년(982)에 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곧 이들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했던 관리[7]였는데, 전국에 12목이 설치되면서 비로소 그 역할이 없어졌던 것이다. 이같은 12목의 설치는 최승로의 시무(時務) 28조의 봉사(封事)[8]에 의거한 것이었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올린 글에서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책의 일환으로써 지방관을 설치하되 한꺼번에 모두 파견할 형편이 못된다면 우선 10 여 곳의 주현(州縣)만이라도 보냄으로써 지방의 통제를 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 지방관의 직접 파견은 그 지역에 대한 직접 통제라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속현은 예종대에 감무가 파견되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유력한 세력에 의하여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종 1년(1106)부터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77개 군현에 감무를 파견하면서 중앙집권에 의한 통치의 범위가 확대됐다. 감무(監務)가 설치되면서 속군현과 향·소·부곡·장(莊)·처(處) 등 말단행정단위에서의 유망민이 안정됐고, 조세와 역을 효과적으로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점차 확대되어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2백여 지역에 설치됐다.

2. 증평지역의 변천

증평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금물노군(今勿奴郡) 도서현(道西縣)에 속하기도 했고, 신라 통일 이후에는 흑양군(黑壤郡) 도서현(都西縣)에 속하기도 했다. 고려왕조의 성립 이후에는 현종 9년(1018)에 흑양군(黑壤郡)에서 청주목(淸州牧)에 속한 현으로 편입됐다. 성종 때에는 증평을 포함한 충북지역이 중원도(中原道)에 속했으며, 현종 때에는 양광도(陽廣道)와 경상도(慶尙道)에 속해 있었다. 중원도에는 충주(忠州)·청주(淸州) 소속의 주·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주(楊州)와 광주(廣州) 소속의 주·현이 관내도(關內道)에 속했고, 공주(公州)와 운주(運州) 소속의 주·현은 하남도(河南道)에 각각 소속됐던 것을 보면 12개주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 구역이 분류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후 예종 원년에 이를 통합하여 양광 충청 주도(楊廣忠淸州道)가 됐다가, 명종(明宗) 원년(1171)에 다시 2개 도로 분할했다. 다시 충숙왕 원년(1314)에는 양광도로 정했으며, 공민왕 5년에 충청도(忠淸道)를 설치하여 경(京) 1개, 목(牧) 3개, 부(府) 2개, 군(郡) 27개, 현(縣) 78개를 관할했다.

7) 금유·조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지방에 상주하여 행정을 맡아보던 외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파견되어 조부(租賦)와 관련된 임무를 다하는 임시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을 지배하는 호족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라는 입장이다.

8) 고려 초기 최승로(崔承老)가 성종에게 올린 정책건의문을 말한다. 시무 28조 가운데 내용이 알려진 것은 22개조뿐이다. 내용으로는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 민생문제의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군주의 도리를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전하는 내용은 북계(北界)의 확정과 방어책, 공덕재(功德齋)의 폐지, 시여행족(施與行族)의 폐지, 불보전곡(佛寶錢穀)의 폐단 시정, 승려의 궁중 출입 금지, 승려의 역관 유숙 금지, 사찰 남조(濫造)의 금지, 불상에 금·은 사용 금지, 불법숭신 억제, 지방관의 파견, 복식제도의 정비, 섬주민의 공역(貢役) 경감, 왕실 내속노비의 삭감, 가사제도(家舍制度)의 작정(酌定), 삼한공신 자손의 복권, 노비의 신분 규제, 왕실 시위(侍衛)군졸의 축소, 제왕의 바른 태도, 중국과의 사무역(私貿易) 금지, 중국문물의 주체적인 수용태도, 연등·팔관회 축소와 우인(偶人) 사용의 금지, 음사(淫祀)의 제한 등이다. 이 건의문은 성종 때 국가체제정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표 1. 『고려사』 지리지를 통해 본 충청북도의 행정구역

도	목	주 · 군	현	비고
양 광 도 (陽 廣 道)	청 주 목 (淸 州 牧)			청주
		연산군(燕山郡)		청원
		진주(鎭州)		진천
			회인현(懷仁縣)	보은
			청당현(靑塘縣) 도안현(道安縣)	증평
			청천현(淸川縣)	괴산
	충 주 목 (忠 州 牧)			충주
		괴주(槐州)	장연현(長延縣) 장풍현(長豊縣)	괴산
		제주(堤州) *의천(義川) 또는 의원(義原)	청풍현(淸風縣)	제천
			음성현(陰城縣)	음성
			단산현(丹山縣) 영춘현(永春縣)	단양
경 상 도 (慶 尙 道)	상 주 목 (尙 州 牧)	영동군(永同郡)	황간현(黃澗縣)	영동
		보령군(報令郡)		보은
		경산부(京山府)	관성현(管城縣) 양산현(陽山縣) 이산현(利山縣) 안읍현(安邑縣)	옥천

증평이 속했던 청주목(淸州牧)은 원래 백제의 상당현(上黨縣)이었다. 신라 신문왕 5년(685)에 처음으로 서원소경(西原小京)이 설치됐고, 경덕왕대에 서원경이 됐다. 태조 23년에 청주로 고쳤고, 성종 2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12개의 목을 설치했는데 그때 12개 목 중의 하나가 됐다. 성종 14년에 전국의 12개 주에 절도사를 두면서 전절군(全節軍)이라고 불러 중원도(中原道)에 소속됐다. 이후 현종 3년에 절도사가 폐지되어 안무사로 됐고 현종 9년에 8개 목만이 남을 때에도 그 하나가 됐다. 청주목에는 군이 2개, 현이 7개 있었고 관할 하에 지사부(知事府)가 1개, 지사군(知事郡)이 2개, 현령관(縣令官)이 2개 있었다.

이 군현 가운데 현재의 증평에 해당되는 지역은 도안현(道安縣)과 청당현(靑塘縣)이었다. 도안현은 원래 고구려의 도서현(道西縣)인데 신라 경덕왕은 도서(都西)라고 고쳐서 흑양군의 관할 하에 현이 됐다. 그리고 고려 초에 도안

현이 되어 현종 9년에는 청주목에 속했다. 한편 청당현은 일명 청연현(靑淵縣)으로도 불리웠는데 고려초에 청당현이 되어서 청주목에 속했다. 그런데 비록 예종대에 이루어졌으나 이곳에는 감무(監務)[9]가 파견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편 증평지역에는 특수행정구역이었던 부곡(部曲)과 소(所)가 있었다. 곧 도안현에는 정안부곡(靜安部曲)과 난곡소(亂谷所)가 있었고, 청안현에는 곡은곡소(谷銀谷所)·염곡소(念谷所)·유통소(游筒所)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향과 부곡은 전정(田丁)이나 호구(戶口)가 적어 현이 될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소규모의 읍이었다. 그러나 그 크기에만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전쟁포로의 집단적 수용지나, 반역 및 적에의 투항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군현의 위상을 빼앗긴 지역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소(所)는 향·부곡이 이미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고려 초에 발생한 것으로 주로 공납품을 제조하는 곳이었다. 향·부곡은 주로 농경에 종사한 반면, 소는 금·은·구리·철 및 종이·도자기·묵 등 특정 공납품을 생산했다. 한편 또 다른 특수지역이었던 장(莊)·처(處)는 왕실을 비롯하여 궁원과 사원 등이 지배한 일종의 장원이었다. 장·처는 신라말 고려초의 혼란 속에 고려 왕실이 지방호족이 지배하고 있는 촌락의 일부를 취해 왕실의 직속영으로 삼는 것에서 비롯되어 설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왕실의 사유지와는 달리 국가적인 수취체계 하에서 지배됐던 것으로 보인다.

●● 표2. 증평에 위치한 부곡과 소

군 현	향	부 곡	소
청 안 현			곡은곡소(谷銀谷所) 염곡소(念谷所) 유통소(游筒所)
도 안 현	도 안 현	정난부곡	난곡소(亂谷所)

◘ 도안면지(2001년)

그렇다면 감무가 파견되기 이전의 증평은 어땠을까. 이 지역은 전통적인 향촌지배방식에 의해 운영됐던 것으로 보인다. 곧 신라말에 성장했던 촌주층(村主層)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주변 촌락이 포함된 하나의 운영체제를 갖추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촌(村)은 행정조직의 하부단위로써 자연촌(自然村)과 몇 개의 자연촌이 합쳐진 행정촌(行政村)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같은 사례는 신라시대의 기록인「서원경촌락문서(西原京村落文書)」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곧 신라 말기의 촌주세력은 중앙권력이 약한 틈을 타 지방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했고 지역의 정치를 이끌어나갔다. 그들은 대감(大監)·

9)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됐던 지방관을 말한다. 1106년(예종 1)부터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속군현과 향·소·부곡·장(莊)·처(處) 등 말단행정단위에 감무를 파견했다. 설치 목적은 유망민을 안정시켜 조세와 역을 효과적으로 수취하면서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통치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있었다. 예종 때 77개 군현에 감무를 파견하여 효과를 거둔 뒤 꾸준히 확대하여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2백여 지역에 설치됐다. 감무는 과거급제자를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품계는 7품 이상인 현령보다 한 품계 낮게 책정됐고 녹과전(祿科田)이 지급됐다. 1353년(공민왕 2)에 7품 이하로 낮추었다가 59년 다시 6품으로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리(胥吏)가 임명되기도 하고 7·8품으로 품계가 낮아 지방토호 세력이 이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했다.

신라촌락문서
(일본 정창원 소장)

제감(弟監)을 칭하면서 성주(城主)·장군(將軍)과 연결됐다. 이들이 통제됐던 것은 성종대에 향리직제를 개정하면서부터다. 성종 6년(987)에 촌주층이 칭하고 있던 대감·제감이라는 칭호를 촌장(村長)·촌정(村正)으로 개편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박탈하고 이들로 하여금 행정적인 기능만을 전담케 했던 것이다. 이는 고려의 중앙권력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4절

제4절 증평의 행정중심지(治所) 이성산성(二城山城)

고려시대 증평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청안현 고적조에서 고도안(古道安)의 위치를 고을 서쪽 15리에 있다고 적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고을 서쪽의 15리가 어디쯤이었는지는 같은 책의 다른 항목을 비교하여 알 수가 있다.

●● 표 3. 고려시대 청안현 소재 산천·역원·사묘·고적 위치 비교

산천·역원·사묘·고적	위 치	추정 현 위치
두타산(頭陀山)	서 20리	두타산
추성산(杻城山)	서 20리	이성산
반탄천(磻灘川)	서 27리	
시화역(時和驛)	서 17리	미암리 시화마을 또는 대지랭이로 추정
장후원(長候院)	서 15리	
고도안(古道安)	서 15리	
성황사(城隍祠)	서 5리	

표를 통하여 비교할 때, 고려시대 행정의 중심지였던 고도안은 두타산과 시화역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했던 것이 분명하다. 시화역은 현재의 미암리 시화마을 또는 두타산의 동쪽 산록인 대지랭이로 추정되고 있다.[10] 그렇다면 시화마을은 현재 이성산성의 북성 서쪽 아래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고도안은 현재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충청대학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 조사됐던 결과는 이같은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다. 곧 고려시대의 기와편과 자기편이 북성의 서쪽에 있는 현 시화마을 뒤편의 속칭 관터에서 상당수 발견됐던 것이다.[11] 이같은 사실은 고려시대 이후에는 산성의 주기능이 남성에서 북성으로 옮겨갔으며, 북성 주변의 지역을 중심으로 도안의 행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성산성은 증평읍 미암리와 도안면 노암리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성으로, 미호평야 주변에 위치해 있는 삼국시대 산성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늦어도 3세기 후반 백제에 의해 축조되어 고려시대까지 계속 사용됐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산성의 북쪽과 서쪽은 백마산에서 분기한 노령산맥이 지나가면서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쪽은 역시 백마산에서 분기한 좌구산맥이 남쪽으로 뻗어가면서 괴산군 문광면, 청천면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남쪽으로는 미호천에 의하여 형성된 넓은 평야지대가 뻗어 있다.

성은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두 개의 각각 독립된 형태의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곧 이성산(뉴성산 · 柱城山)의 정상부(해발 259m)와 남쪽으로

10) 충청전문대 박물관, 『증평 이성산성』, 1997. 및 차용걸, 「율봉역에 소속된 제역과 교통로」, 『충북향토문화』 2집, 1990.

11) 충청전문대 박물관, 『증평 이성산성』, 1997.

이성산성 토성(위)
이성산성 전경(아래)

400m 떨어진곳(해발242m)에 축조되어 있다. 남성은 내성과 외성을 갖춘 2중 구조로써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8부에서 9부 능선상에 축조된 2중의 테뫼식(머리띠식)과 포곡식(包谷式 · 삼태기식)이 복합된 산성이다. 전체둘레는 1,411m이다. 한편 북성은 내성과 외성, 그리고 외성에 덧붙여 두 개의 자성(子城)이 있는 4중 구조로서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8부에서 9부 능선상에 축조된 2중의 퇴메식 산성이다. 전체둘레는 429m이다.

이성산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처음 나오고 있다. 『대동지지』는 조선 후기에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지리서로써 철종 14년(1863)에는 이미 간행됐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곳에서 김정호는 이성산성을 도안고성(道安古城)으로 고려시대 도안현의 치소(治所)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제영조(題詠條)에서 도안의 팔경(八景)을 시로 옮긴 내용가운데 뉴성산에 있었던 성에 대하여 그 감상을 적은 글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됐던 시기에는 이미 이성산성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성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까닭은 이성산성의 서쪽에 있었던 두타산성(頭陀山城)의 전략적 기능이 더욱 뛰어났고, 또한 태종5년(1405) 도안현과 청안현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현성(縣城)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제5절

제5절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와 증평 지역

고려시대 증평지역에서 전개됐던 문화적 양상은 현존하는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로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이는 증평지역의 문화가 불교에 기반을 두고 전개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사찰로 현재까지 그 역사를 간직한 곳은 전혀 없다. 그러나 기록과 유적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는 곳들이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사찰은 좌구산(座龜山) 장갑사(長岬寺)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좌구산은 고을 남쪽의 10리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장갑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 석탑에 기록됐던 글이 남아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봉불제자 고려국 청주목내청당지 장갑사 주지 중대사 영춘 자자이성조무강 저령유영 문호백관 충청보국 간과식정 풍우조화 선망엄부 초생정토 현존자모 연명

장생 보급함령 제등피안지원 경조청석탑일좌구층 겸향대안치석가문불 이입금강종자운 시정풍칠계삼월 일지

(奉佛弟子 高麗國 淸州牧內淸塘地 長岬寺住持重大師靈椿 玆自以聖祚無疆 儲齡有永 文虎百官 忠淸輔國 干戈息靜 風雨調和 先亡嚴父 超生淨土 現存慈母 延命長生 普及含靈 齊登彼岸之願 敬造靑石塔一座九層 兼香臺安置釋迦文佛 以立金剛種字云 時正豊七季三月 日誌) [12]

12) 長岬寺靑石塔記, 『韓國金石全文』, 802쪽.

이 석탑은 고려 의종 16년(1162)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글의 내용에 의하면 청주목 청당현에 있었던 장갑사에서 중대사 영춘(靈椿)을 중심으로 왕실의 무강함과 태자의 장수 그리고 전쟁과 재해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청석탑 1기와 더불어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상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돌아가신 아버지와 살아계신 어머니의 장생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피안(彼岸)에 닿기를 바라며 금강종자(金剛種字)를 세우기 위하여 불사(佛事)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이 사찰이 왕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증평읍 남하3리 남대산 동쪽 기슭에 위치했던 남하리사지(南下里寺址)도 주목할만 하다. 지금의 남하리는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남면의 포천리(浦川里), 금리(金里), 염곡리(念谷里), 탑동(塔洞)과 금반리(金盤里), 둔덕리(屯德里), 서동(書洞)의 일부를 병합한 지역이다. 절터는 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본래 염곡(念谷)에서 분화된 마을로 고려시대 청당현에 있었던 염곡소(念谷所)가 있었던 곳이다. 이 염곡소에서 어떤 특산물을 생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고려시대의 소는 특산물을 생산했던 지역이라는 사실과 청안의 토산품으로써 철이 있었고, 인근 지역에 금리(金里), 금반리(金盤里) 등의 지명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철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곧 남하리 절터는 고려시대 내륙의 큰 길옆에 위치하면서 철을 생산했던 중요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곳 남하리사지에는 현재 3층석탑(도지정유형 제141호)과 마애불상군(磨崖佛像群, 도지정유형 제197호)이 자리하고

증평읍 남하리 사지 마애불상군

도안면 광덕리 광덕사 석불

있어 옛절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높이가 153cm인 이 탑은 자연 암반 위에 기단석이 생략된 채 놓여 있는데, 탑신(搭身)에는 우주(隅柱)와 탱주(撐柱) 등의 조식이 없는 단조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마애불상군은 삼층석탑에서 약간 떨어진 북서쪽 암벽에 위치하고 있다. 암벽의 3면에 모두 5구의 불·보살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중앙에 본존불과 좌우에 보살을 조각한 1면이 있고, 그 암반의 북면에 여래입상이 별도로 새겨져 있다. 삼존불이 있는 바위의 남쪽 앞 정면 삼각형의 바위에는 한쪽 다리만 올리고 생각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다.(본존불 높이-2.98m, 여래입상 높이-2.53m, 반가사유상 높이-2.53m) 이 사지는 1994년 충청대학박물관에 의하여 조사됐다. 그 결과 염곡소(念谷所)에서 많은 불을 다루면서 청안 남쪽의 높아지는 화기(火氣)를 누르고, 마을의 화재와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천비보사상(山川裨補思想)에 의해 건립됐던 것으로 이해됐다.

또 다른 고려시대의 절터로 주목되는 곳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광덕사석불(光德寺石佛, 도지정유형 제76호)이 위치한 절터이다. 도안면 광덕2리에 위치한 이곳은 본래 절이름이 알려져있지 않아 일명사지(逸名寺址)라 하다가 1949년 광덕사가 세워지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광덕사석불의 높이는 연화대좌를 포함해 4.8m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신라말의 전통을 계승한 양식으로 조각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사지는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고려시대 초기의 거불(巨佛)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불상 유물들도 상당수 남아 있어 증평지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남하1리의 미륵마을에는 세 구의 석불입상이 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불상은 아랫부분이 땅 밑에 묻혀 있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나 현재 땅 위에 노출된 높이만 3m 50cm로 실측되고 있어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두 귀는 길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이 불상의 양식적인 특성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10세기때 조

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다른 두 구의 불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각 제작 시기가 다르고 현재의 위치가 본래의 위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작으로 약간 시대가 떨어지는 불상도 전하고 있다. 미암1리 미륵댕이 마을에 있는 관음보살입상이 그것이다. 높이 2m 60cm의 이 보살입상은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광배에는 화불(化佛) 한 구가 조각돼 있다. 눈썹 사이에 백호(白毫)가 양각돼 있고, 두 발이 땅밑에 묻혀 있으며 시멘트로 목부분을 보강해 놓았으나 삼도(三道)가 선명하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어깨에 걸쳐 옆으로 내려졌고, 오른손에는 연경(蓮莖) 1지(一枝)가 조각돼 있다. 보관의 화불이나 옷 무늬 상호 등의 조각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보살입상 앞에는 길이 1m 23cm, 폭 57cm, 두께 12cm의 화강암 배례석(拜禮石)이 놓여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증평지역의 불교 유적과 유물은 고려시대의 초기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고려 초기에 조성됐던 광덕사의 거불은 고려 초기의 국가적 위상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고려 왕실에서는 건국 초기 민심을 무마하고 지방 호족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앙했다. 또한 개경을 수도로 정하고 각종의 시설을 하는 가운데 사원(寺院)을 많이 중창했다. 이것은 경주 중심의 고대적인 불교 기반을 개경으로 재편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 때문이었다.[13] 고려 초기의 거대한 불상 조성은 이같은 고려 왕실의 자긍심과 불교정책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사원은 그 안에 있었던 시설물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가진 사회적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세속의 신자들이 찾아오는 교육적 · 문화적인 공간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사원이 위치했던 지리적인 위치가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곧 증평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과 석탑은 당시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일러주는 중요한 문화재인 것이다.

13)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22~32쪽.

제5장 조선시대의 증평

정제규 집필

제1절

제1절 기록에 보이는 증평

조선시대의 증평 지역에 대한 현존하는 기록은 풍부하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지리지(地理誌)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약간의 내용만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지리지」[1]에 나오는 청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조선시대의 증평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청당현(靑塘縣)은 고려 초에 본래 청주(淸州) 임내에 붙여 일명 청연(淸淵)이라 했는데, 뒤에 감무(監務)를 두어 도안(道安)을 겸임하게 했고, 도안현(道安縣)은 본래 고구려의 도서현(道西縣)인데, 신라에서 도서(都西)로 고쳐 흑양군(黑壤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도안현(道安縣)으로 고쳐 현종(顯宗) 9년에 청주 임내에 붙였다. 본조 태종(太宗) 병자에 두 현(縣)의 백성이 적고 땅이 좁으므로, 합하여 청안(淸安)으로 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청주에 이르기 23리, 서쪽으로 진천(鎭川)에 이르기 27리, 남쪽으로 청주에 이르기 9리, 북쪽으로 음성(陰城)에 이르기 18리이다.

호수가 2백 93호요, 인구가 1천 4백 19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90명이요, 진군(鎭軍)이 50명이요, 선군(船軍)이 48명이다.

청당(靑塘)의 성이 3이니, 한(韓)·신(申)·갈(葛)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신(辛)·박(朴)이요, 속성(續姓)이 2이니, 이(李)·김(金)이다. 도안(道安)의 성이 2이니, 백(白)·이(李)요, 망성이 3이니, 함(咸)·최(崔)·신(申)이요, 속성이 1이

1) 세종 7년(1425)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한 8도지리지를 모아 편찬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수정하고 정리하여 단종 2년(1454)에 간행했다.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제148권에서 제155권까지 모두 8권으로서, 당시의 경제(經濟)·군사(軍事)·지방제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니, 차(車)이다.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많이 차며 풍속이 검소함을 숭상한다. 간전(墾田)은 3천 3백 34결(結)이요(논이 7분의 2에 좀 모자란다.) 토의(土宜)는 기장[黍]·벼[稻]·콩[菽]·조[粟]·보리[麥]·메밀[蕎麥]·뽕나무[桑]·산뽕나무·배나무[梨]이다. 토공(土貢)은 꿀[蜂蜜]·밀[黃蠟]·대추[棗]·칠(漆)·족제비털[黃毛]이요, 약재(藥材)는 목흑(木黑)·백출(白朮)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현의 동쪽 난곡(蘭谷)에 있다.(하품이다.)

역(驛)이 1이니, 시화(時化)이다.

위의 내용은 15세기의 청안지역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건치연혁(建治沿革)은 물론 지역의 경계 그리고 토성·기후·전답·산물·역원 등 상당히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있어 고려시대는 물론 15세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종 25년(1530)에 간행됐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청당현(靑塘縣)이요, 또한가지 이름은 청연(淸淵)이다. 고려 초에 청주(淸州)에 소속시켰고 뒤에 감무(監務)를 두어 도안(道安)을 겸임하게 했다. 도안현(道安縣)은 본래 고구려의 도서현(道西縣)인데, 신라때 도서(都西)로 고쳐서 흑양군(黑壤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년에 도안(道安)으로 고쳐서 현종(顯宗) 9년에 청주에 소속시켰으며, 본조 태종(太宗) 5년에 두 고을이 백성이 적고 땅이 좁다 해서 합치고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감무를 두었다가 13년에 예에 의하여 현감(縣監)을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청안현, 건치연혁)

이상은 건치연혁에 대한 부분으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전하고 있어 두 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 조선시대 초기의 중평지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 표 1. 『세종장헌대왕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 비교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	차 이 점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청주에 이르기 23리, 서쪽으로 진천(鎭川)에 이르기 27리, 남쪽으로 청주에 이르기 9리, 북쪽으로 음성(陰城)에 이르기 18리이다.	동쪽은 청주까지 30리이고, 남쪽은 청주까지 12리, 서쪽은 청주까지 22리이며, 북쪽은 괴산군에 이르기까지 9리이고, 또 음성현까지 19리에 이르며, 경도와의 거리는 2백 93리이다.	각 지역 경계까지의 거리가 차이가 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경도와의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	관원은 현감(縣監)·훈도(訓導) 각 1인이다.	

『세종장헌대왕실록』의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	차 이 점
호수가 2백 93호요, 인구가 1천 4백 19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90명이요, 진군(鎭軍)이 50명이요, 선군(船軍)이 48명이다.	-	
청당(靑塘)의 성이 3이니, 한(韓)·신(申)·갈(葛)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신(辛)·박(朴)이요, 속성(續姓)이 2이니, 이(李)·김(金)이다. 도안(道安)의 성이 2이니, 백(白)·이(李)요, 망성이 3이니, 함(咸)·최(崔)·신(申)이요, 속성이 1이니, 차(車)이다.	청당(靑塘)은 한(韓)·신(申)·갈(葛)·신(辛)·박(朴)·이(李)·김(金)이다. 모두 속성(續姓)이다. 도안(道安)은 함(咸)·최(崔)·백(白)·이(李)·신(申)·차(車) 모두 속성이다. 난곡은 신(辛) 염곡은 신(申)·신(辛)이 있다.	『세종장헌대왕실록』에서는 속성과 망성을 구별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난곡소와 염곡소의 성씨도 기록하고 있다.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많이 차며 풍속이 검소함을 숭상한다.	검소하고 인색한 것을 숭상한다.	
토의(土宜)는 기장[黍]·벼[稻]·콩[菽]·조[栗]·보리[麥]·메밀[蕎麥]·뽕나무[桑]·산뽕나무·배나무[梨]이다. 토공(土貢)은 꿀[蜂蜜]·밀[黃蠟]·대추[棗]·칠(漆)·족제비털[黃毛]이요, 약재(藥材)는 목흑(木黑)·백출(白朮)이다.		
간전(墾田)은 3천 3백 34결(結)이요(논이 7분의 2에 좀 모자란다.)	-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현의 동쪽 난곡(亂谷)에 있다.(하품이다.)	-	
역(驛)이 1이니, 시화(時化)이다.	역원은 시화역(時和驛-고을 서쪽 17리에 있다), 백모로원(白毛老院-고을 북쪽 18리에 있다), 수정천원(水精遷院-고을 동쪽 30리에 있다), 장후원(長候院-고을 서쪽 15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백모로원 등의 3개 원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산천(山川)·학교(學校)·불우(佛宇)·고적(古蹟)·제영(題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장헌대왕실록』보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증평지역에서의 세력을 살펴볼 수 있는 토성(土姓)의 변화 그리고 지방 통치의 기본이 되는 역원(驛院)과 토산물의 차이다. 더욱 『세종장헌대왕실록』에는 보이지 않았던 산천(山川)·학교(學校)·불우(佛宇)·고적(古蹟)·제영(題詠) 등의 항목이 보이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지방 통치 방식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해당 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통하여 조세(租稅)와 군역(軍役) 등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증평지역에 대한 내용으로는 비록 단편적이지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상당수 남아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청안 관련 내용

내 용	전 거
충청도 청안현(淸安縣)에 거주하는 김승도(金升道)의 도망한 종 막동(莫同)과 김강(金康)을 형조에서 목베다	세종 6년 8월 16일 무오
사정(司正) 김석제(金石梯)가 청안현(淸安縣)에서 공법(貢法)을 정하려 하면서 사람을 때려 죽이니 병조 정랑 이예손(李禮孫)이 법에 맞지 않게 처벌하여 그 죄를 묻다	세종 26년 10월 7일 임자
청안현에 눈이 내리다	중종 22년 3월 27일 갑진
충청도 관찰사가 서장(書狀)을 올려 청안 현감(淸安縣監) 한응성(韓應星)이 올린 내금위(內禁衛) 신세린(辛世麟)의 효행을 알리다	중종 38년 4월 29일 계묘
청안 현감(淸安縣監) 전유형(全有亨)이 배사(拜辭)하니 임금이 군량 마련과 군사 징발 방법 등을 물어보다	선조 27년 1월 14일 계사
대사간 김시헌(金時獻)이 충청도 소모사(忠淸道召募使)때의 일로 언관직 사퇴를 주청하다	선조 30년 12월 2일 2일 무오
전 청안 현감 이정열(李廷說)을 처형하다	영조 4년 5월 5일 을묘
공충 감사(公忠監司) 유장환(兪章煥)이 청안현(淸安縣) 난민의 일을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철종 13년 12월 8일 을유

기록에 보이는 이 내용은 시대별로 약간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곧 세종대에는 도망한 노예를 형조에서 목베었다는 내용이 있고, 청안현의 공법을 정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병조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법치(法治)에 기본한 내용들로써 국가적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종대에는 청안현의 내금위(內禁衛) 신세린(辛世麟)의 효행에 대한 내용이 있어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이를 장려했던 조선 사회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증평지역에는 현재 충·효와 관련된 인물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선조대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선조와 청안 현감(淸安縣監) 전유형(全有亨)이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증평 지역의 당시 시

대상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사간 김시헌(金時獻)의 충청도 소모사(忠淸道召募使)때 괴산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은 왕실의 직접적인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대상은 물론 괴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현실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제2절 충북지역과 조선시대사의 전개

1. 양반관료제의 시대 조선

조선시대는 고려 후기의 사회에서 겪고 있었던 대내 · 외적인 많은 모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 사회였다. 고려 후기에 직면했던 현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원나라와 결탁한 권문세족의 농장이 확대되어 민중을 수탈함으로써 농민과 지배계급의 대립이 심화됐다. 권문세족이 소유한 농장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그 규모도 막대하여 수백 결(結)에 이르는 광대한 농장이 많았다. 이러한 농장의 발달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공권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농장의 확대로 국가지배의 공전(公田)이 침식되어 관리들에게 녹과전(祿科田)을 지급할 수 없게 됐고, 노비와 농민이 농장으로 흡수됨으로써 국가지배의 공민(公民)이 감소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농장에 주어진 면세(免稅) · 면역(免役)의 특권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궁핍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 이 시기는 원 · 명이 교체하는 시기였으며, 왜구 및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사회는 커다란 혼란 속에 있었다. 왜구는 대마도 등 일본 근해의 해적들로서 이미 고종 때부터 우리 연해에 출몰했는데, 특히 충정왕(忠定王) 때부터는 거의 매년 전국 각지에 출몰하여 약탈을 자행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또한 공민왕 때는 대륙으로부터 홍건적의 침입을 받아 공민왕 10년(1361)에는 왕이 복주(福州:지금의 안동)로 피난을 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이같은 시대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조선시대는 양반(兩班)의 시대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양반은 고려시대의 개념과는 분명히 달랐다. 고려시대에서는 단순한 관제상(官制上)의 문 · 무(文 · 武)를 합하여 말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에서는 관인(官人)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하나의 신분층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中央集權的 兩班官僚制)의 사회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고려말 조선 초기에 새로이 등장했던 이들은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라고 하여 사(士-선비,학자)와 대부(大夫, 관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춘 집단으로써, 종래의 문벌(門閥) 중심의 귀족(貴族)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능문능리(能文能吏)' 의 새로운 지방토착 세력이었다. 고려시대의 말기에는 중국 원(元)의 지배하에서 등장한 권문세족(權門勢族)에 의해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같은 사회현실속에서 새로운 성리학에 기초하여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학문이었던 성리학(性理學)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고려말에 추진된 공민왕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치의 추진은 이같은 새로운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곧 향리출신을 비롯한 한미한 가문출신의 관료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나간 것이다.

이들이 학문적 바탕으로 했던 성리학은 본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경향이 강했으나, 실천적 유교로써 수용되어 정치와 사회개혁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고려시대에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던 불교는 이미 신비적인 영험(靈驗)과 공덕(功德)만을 강조하는 등 많은 폐단이 있었다. 또한 부패한 사회구조와 깊게 관련되어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 반면에 성리학은 그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신진사대부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조선시대의 특징으로는 관료제(官僚制)와 성리학에 기초한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실현에 있었다. 도학정치란 도학을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정치(王道政治)와 요순시대(堯舜時代)를 지향하는 정치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반중심의 유교적 관료기구와 제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곧 조선시대는 군주(君主)가 국가질서의 정점에 있었지만, 백성 위에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 존재로서 위민정치(爲民政治)를 행해야했다. 이같은 특성이 고대 사회의 전제적(專制的)인 군주와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탄생은 군사적인 기반 속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를 밟아 완결지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성립을 단순한 왕조교체로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고려후기의 심화된 사회모순 속에서 민중들의 개혁 요구를 신진사대부 세력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여 사회변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시대의 완성과 증평지역

조선시대사에서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100년간은 새로운 사회체제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왕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문물제도의 정비에 주력했다. 따라서 즉위하자마자 종래의 군제를 개편하여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했고, 다음해 의흥친군위를 다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병권의 중앙집중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문무관리의 선발·임용의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즉위한 다음해에 무과(武科)와 이과(吏科)를 신설하여 관리선발을 위한 문(文)·무(武)·의(醫)·역(譯)·음양(陰陽)·이(吏) 그리고 문음(門蔭)의 7과로 정리했다. 한편 통치기구의 재편은 지방제도에서도 이루어졌다. 태조 2년(1393)에 관찰사제도를 복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종래 속현이나 향·부곡·소 등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던 행정구역을 혁파하여 주현에 통합시켰으며, 군현제를 재조정했던 것이다.

태종대에도 왕권이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곧 의정부(議政府)·사간원(司諫院)을 만들어 관료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양전(量田)의 실시·사원전의 혁파를 통하여 전제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한편 노비변정사업(奴婢辨正事業)을 벌여 많은 노비를 해방시키는 동시에 호패법을 실시했고, 또한 사병을 폐지하여 왕권을 안정시켰다. 이는 동시에 군역(軍役)과 국방체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태종대의 기반위에서 문화의 융성기를 맞이한 것이 세종때였다. 세종은 집현전(集賢殿)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신민(臣民)의 합의와 비판을 통하여 유교정치의 이상인 덕치와 민본정치를 실시했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전세율(田稅律)의 인하와 담세(擔稅)의 균등화, 의창(義倉)의 확충을 통한 빈민구제, 형벌제도의 개선 등은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안정은 세종의 사후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흔들렸다. 집현전 학사 출신의 원로 대신들과 왕실의 갈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종서 등의 원로대신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세조였다. 세조는 즉위 후 집현전을 폐쇄하고 그 대신 새로운 유신들을 발탁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집권화를 꾀하여 나갔다. 즉 세조는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복구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5위제를 확립하는 한편 보법(保法)의 수립으로 군역 부담자를 확보했다. 세조의 집권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법에 의한 군역제도의 개혁과 직전법의 실시에 의한 토지제도의 혁신이었다. 보법은 군역의 평준화에 따른 국방강화에 목적이 있었고, 직전법은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국가재정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한 것은 성종이었다. 성종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사림을 대거 등용하여 안정된 정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2]을 완성하여 통치기구를 완전히 정비하고, 중앙집권체제인 조선 양반관료체제를 확립했다.

조선 초기의 중앙집권체제의 정비 과정속에서 충북지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왕조의 성립과 체제의 정비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일 것이다. 진천의 배극렴(裵克廉, 1325~1392,) 이거이(李居易, 1348~1412), 권제(權踶, 1387~1445)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도안지역에도 조선 왕조의 성립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 있다. 바로 곡산 연씨(谷山延氏)의 실질적인 시조로 이해되고 있는 연사종(延嗣宗, 1360~1434)이다. 그는 고려 우왕 14년(1388) 요동정벌때 이성계를 따라 정벌에 참여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봉됐고, 조선 태조 2년(1399)에는 회군공신(回軍功臣) 3등에 책록됐다. 또한 태종 1년(1401)에는 태종을 도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기도 했다. 1411년 부친상을 당하여 퇴임했으나 다음 해에 동북면도순무사가(東北面都巡撫使)가 되어 함주군 일대에 있었던 4조왕(4祖王)과 비(妃)의 능(陵)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 공로로 인하여 곡산군(谷山君)에 봉해졌다. 세종 1년(1419)에 훈신에 대한 예우로써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總制府使)에 오르고 1422년에 곡산부원군에 책봉됐다. 연사종의 위상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태조 7년(1398)에 왕명으로 사재감(司宰監) 서인비의 제사에 참석했던 기록을 시작으로 121건의 기사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 16년(1434)에 그가 별세하자 사관들은 연사종 졸기를 수록했고, 왕은 사흘간 조회를 파하고 제문을 내리는 등 추모하고 있다. 이것은 회군공신과 좌명공신으로서 국가의 안정을 꾀했던 그를 국가의 원로로서 예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 조선왕조의 통치규범은 정도전이 개인적으로 만든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경제문감(經濟文鑑)』을 바탕으로 하여, 그 후에 『경제육전(經濟六典)』·『속육전(續六典)』·『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이 편찬되고, 이것이 세조 성종년간에 수정 보완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확정됐다. 이 『경국대전』에는 조선왕조의 관료체제와 사회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도안면 도당리 정후사사원

증평읍 송산리 배극렴 묘소

증평읍 남차리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한편 배극렴도 주목할 인물이다. 그는 이성계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했고, 1388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을 단행했던 인물이다. 그 공으로 개국공신이 됐고, 성산백(星山伯)에 봉해지고 문하좌시중이 됐다. 만년에 괴산군 불정면 어래산(御來山) 밑에 살았는데 태조가 친히 세 번이나 다녀갔다고 하여 동리 이름이 삼방리(三訪里)가 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의 묘소는 현재 증평읍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신으로서의 예우를 직접 전하는 기록은 없으나,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 제69호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의 내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녹권은 태조 6년(1397) 10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에 의하여 개국 원종공신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려진 것이다. 그 내용은 심지백이 태조 4년(1395) 11월에 전 황주목사(黃州牧使) 최사용(崔絲溶)등 수십인과 더불어 원종공신에 책봉됐으며, 태조 6년(1397) 9월 11일에 왕지(王旨)로 이 녹권을 사급(賜給)하여 포상의 은전(恩典)을 내린다는 것이다.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1400여명에게 책봉됐는데, 이 때에는 74명이 공신녹권을 받았다. 그들에게 내려진 은전은 대장군(大將軍) 이화영(李和英)의 전례에 따라 각기 전(田) 15결(結)을 사급하고, 각 부모와 처에게 봉작(封爵)하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수여하며 후손에게도 은전(恩典)과 천역(賤役)에 처하지 않게 하는 신분상의 특권을 부여했다.

한편 증평에는 이같은 공신녹권이 유물로 남아 있어 이 지역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바로 보물 제1380호로 지정된 신경행 청난공신교서(辛景行 淸難功臣敎書)와 녹권(錄券)이다. 이 유물은 일괄 지정된 것으로 교서와 녹권 외에도 유서(諭書), 시호서경(諡號署經, 2점), 증시교지(贈諡敎旨), 조은신공시장(釣隱辛公諡狀), 이십공신회맹록(二十功臣會盟錄),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 등 모두 8종 9점이 남아 있다. 신경행(辛景行, 1547~1623)의 호는 조은(釣隱), 본관은 영산(靈山)으로 선조 10년(1577)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산군수가 됐으며, 충청도 병마절도사 등의 벼슬을 했다. 선조 29년(1596) 7월에 이몽학이 충청도 홍산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이를 평정

하는데 세운 공으로 청난공신이 되어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죽은 뒤에 예조판서에 증직됐고,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공신교서는 선조 37년(1604)에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선무공신(宣撫功臣) 및 선조를 의주까지 호송한 호성공신(扈聖功臣)들과 함께 발급됐다. 이 교서에는 녹훈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3. 임진왜란과 이인좌의 반란

조선 후기의 충북지역과 증평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영조 4년(1728)에 발생한 이인좌(李麟佐)의 난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조선은 이 시기에 사회 · 경제적으로는 농업생산력이 발전했으나 정치적으로는 훈구(勳舊)와 사림(士林) 세력 간의 계속된 정쟁과 이후 선조 즉위 이후에 극심해진 붕당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비변사(備邊司)라는 합의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豊臣秀吉)에 의해서 혼란기를 수습했고 전국시대를 통일하여 봉건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후들의 강력한 군사권을 해외로 돌려 국내의 통일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대륙침략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 왜군이 20만의 대군으로 부산에 상륙하여 침략행위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과 동래 부사 송상현이 왜군을 맞아 싸웠으나 패했고, 이후 도순변사 신립(申砬) 역시 충주에서 배수진을 치고 항전했으나 역시 패했다. 이에 선조는 의주를 향해 피난했고, 두 왕자를 함경도와 강원도에 보내 근왕병을 모집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도 못 되어 서울에 입성했고 계속해서 평양을 거쳐 함경도까지 북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침략은 점차 저지됐다. 바로 전라도 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이 이끄는 수군에 의해서 왜군이 패하면서 수륙으로 협공하려던 왜군의 작전이 봉쇄됐고, 육지에서는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왜군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의병들은 의병장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했다. 의병장은 대체로 그 지방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들로서 조헌(趙憲) · 곽재우(郭再祐) · 고경명(高敬命) 같은 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휴정(休靜) · 유정(惟政) 등 승려들의 의병도 주목된다.

충북지역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로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왜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란의 초기에 일어난 전투로써 중요한 것은 충주성에서의 전투를 들 수 있다.

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이일(李鎰)을 순변사(巡邊使)로 삼아 중로(中路, 조령 · 충주방면)의 방어를 담당케 했다. 또한 성응길(成應吉)을 좌방어사(左防禦使)로 임명하여 좌도(左道, 죽령 · 충주방면)를 방어케 했으며, 조경(趙儆)을 우방어사로 삼아 서로(西路, 추풍령 · 청주 · 죽산방면)를 방어하게 하고, 유극량(劉克良)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아 죽령을 지키게 하고, 변기(邊璣)를 조방장으로 삼아 조령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신립(申砬)을 도순변사로 삼아 이일의 뒤를 이어 떠나게 했다. 그러나 이일은 상주 북천변의 전투에서 패했고 이에 충주성에서의 전투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신립과 맞선 왜군은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인솔한 제일번대(第一番隊)였다. 그들은 부산포에 상륙하여 부산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 그리고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의 전투 승리 이후에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양산 · 밀양을 거쳐 대구 · 상주 · 조령방면으로 진격하여 충주성에까지 도착했다. 이 전투에서의 패배는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신립에 대한 평가가운데에는 순변사(巡邊使) 이일의 패배로 인하여 조령에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했고, 정예 병력을 갖추지 못했던 필연적인 패배로도 이해하고 있다.

청주성으로 진격했던 왜군은 흑전장정(黑田長政)의 삼번대(三番隊)와 모리길성(毛利吉成)의 사번대(四番隊)였다. 이들은 25일에 성주에 이르렀고 이후 지례 · 금산을 지나 추풍령을 넘어 충청도 영동으로 진격하여 청주성을 함락했다.

충북 옥천에서 일어났던 조헌의 의병은 선조 2년(1592) 8월 1일 왜군을 격파하고 청주성을 수복했다. 당시 청주방어사 이옥(李沃), 조방장(助防將) 윤경기(尹慶祺) 등이 이끄는 관군은 왜군에 패퇴하여 연기지방으로 물러가 있었고, 영규(靈圭) 대사의 승군만이 왜군과 대치하자 형강(荊江, 금강의 중류)에 있었던 조헌이 의병군을 이끌고 청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한편 괴산과 청안지역에서도 조덕공(趙德恭, 1547~1607)과 연충수(延忠秀, 1557~1621)가 중심이 되어 의병이 일어났다. 조덕공은 한성좌윤이었던 조승(趙勝)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아우 덕검(德儉)과 함께 북상하다 왜군에 맞서 초래(草萊)에서 이를 물리쳤다. 한편 연

7백의총(충남 금산)

충수는 청안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맞서 싸웠다.

임진왜란은 당시의 조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전란이었다. 비록 직접적이진 않으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의 증평 지역의 사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

1-1) 청안 현감(淸安縣監) 전유형(全有亨)이 배사(拜辭)하니, 상이 인견했다. 상이 편전에 나아가 전유형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는 부복(俯伏)하지 말고 일어나 앉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 말고 큰 목소리로 말하도록 하라. ***그대가 지금 맡은 고을로 가는데 백성은 흩어지고 곡식은 모자라는 때를 당했으니*** *어떻게 설시(設施)할 작정인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소신은 재능이 부족하니 어떻게 일을 조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목숨을 바쳐 직책을 수행하려 할 뿐입니다.* ***청안현은 분탕된 것이 너무도 극심하므로 신의 생각에는 공세(貢稅)를 전부 견감해야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 반만 감했다고 합니다.*** *" 했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했는가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본읍 민생의 태반이 굶어 죽었으므로 양향(粮餉)이 있어야 진구하여 살릴 수가 있고 종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 했다.(선조 27년 1월 14일 계사조)*

*1-2) 상이 이르기를, "그 고을에서 군사를 모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청안이 비록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장정 2백 명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군량만 있다면 군사가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했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양곡을 구득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홍주(洪州)에는 저축한 곡식이 약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곡식을 공주(公州)로 옮기고 공주의 곡식을 청안으로 옮기게 하면 될 것입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군대를 양성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사력(死力)을 바쳐 물불을 피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신의 재능으로 어떻게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대를 기르게 하신다면 싸움에 임하여 달아나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했다.(선조 27년 1월 14일 계사조)*

1-3)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해야 될 것에 대해 그대는 다 말하라."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근래 성명(聖明)께서 하시는 일을 보건대, 민심을 감격시키는 일은 할 수 있으나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은 다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하는 말은 오늘날의 상황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서야 되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상의 가르침이 이러한 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신민의 복입니다. 하늘이 높아도 낮은 곳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이 도와준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

습니까." 했다. 상이 이르기를, "하늘은 믿을 수가 없다. 원(元)나라의 백안(伯顔)이 하수(河水)를 건널 적에 조수(潮水)가 3일이나 이르지 않았다. 원나라는 이적(夷狄)이었는데도 하늘이 어찌 도왔는가 송(宋)나라는 악덕(惡德)이 있었지만 이적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송나라는 군자가 배출됐지만 소인들에게 이간당하여 그 뜻을 펴지 못하여 국세가 경복(傾覆)되게 했으니, 원나라가 아무리 이적이지만 하늘이 혹 원나라의 손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백안이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면서도 1인을 거느린 것과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옛사람에는 이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신(韓信)도 많을 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율(紀律)을 확립하여 인심이 동요되지 않게 한다면 천만인이라도 자신의 수족(手足)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서경(書經)』에도 '나는 신하 3천이 있는데 오직 한마음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한마음이 되게 만든다면 아무리 많은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했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안으로는 백성들을 구활하고 밖으로는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인재를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방백(方伯)은 일도(一道)를 제재하고 수령은 일읍(一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만일 인재를 얻어 백성이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한다면 몽둥이를 만들어 적을 격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을 임용하여 진양(晉陽)을 다스리게 하자, 부엌까지 물이 차 개구리가 새끼를 낳았어도 백성들이 배반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 좋은 증거입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에 의하면, 인심을 얻으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5백 명의 의사(義士)가 같은 날 목숨을 바쳤는데도 전횡(田橫)은 어찌하여 이룬 것이 없었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고제(高帝)는 천하의 인심을 얻어 천명(天命)이 그에게 돌아왔고 전횡은 단지 5백명의 마음만 얻었을 뿐이었으니 어떻게 한(漢)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옛사람 주에는 혹 '5백 명이 죽은 것은 전국 시대에 기습(氣習)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고도 했습니다. 했다.(선조 27년 1월 14일 계사조)

*1-4) 상이 이르기를, "**충청도의 도적이 매우 치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됐으므로 점차 무리를 지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이는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괴수를 잡고 위협에 의해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면 적도들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역경(易經)』의 이괘(離卦)는 지극히 밝은 괘인데, 그 밝음에 지나침이 있을까 염려하여 우두머리만 베고 졸개는 베지 않으면 허물이 없으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 하려면 내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 내가 그대의 설시(設施)를 서서히 살펴보겠다. 만일 할 말이 있으면 외관(外官)이라는데 구애되지 말고 봉소(封疏)로*

바치도록 하라."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초야에 있는 사람도 바른말을 하다가 머리를 베이게 되어도 후회하지 않는 법인데 신이 감히 외관이라는 것으로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했다. 상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한번 만났어도 오래된 사이 같다.' 고 했는데 내가 일찍이 그대의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그대가 나의 일에 마음을 다할 것을 알겠다." 하고, 인하여 궁시(弓矢)와 약물(藥物)을 내렸다.(선조 27년 1월 14일 계사조)

2) 대사간 김시헌(金時獻)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충청도 소모사(忠淸道召募使)가 됐을 적에 복수군(復讐軍)의 군량 20여 석을 괴산(槐山)에 비치했고, 또 ***청안현(淸安縣)의 복수군 군량과 상환(相換)한 곡식 1백여 석도 괴산에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초발하여 추격할 적에 이 곡식을 지출하려고 하니, 군수(郡守) 이봉(李逢)과 장곡 유사(掌穀有司) 채유희(蔡有喜)가 완강히 거절하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힐문하기 위해 하인을 시켜 유사를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만 숨고 현신(現身)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을 잡아오려 하자 아중(衙中)으로 달아나서 끝내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난리를 겪은 뒤로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들이 조정을 존경할 줄 모르고 있다지만 일개 유사로서 사명(使命)을 능멸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짐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군량의 지출은 일이 군율에 관계되므로 버려 둔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군관(軍官)·아병(牙兵)을 시켜 끝까지 찾아내어 장(杖) 50을 쳤습니다. 곡절(曲折)은 이와 같은 데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본 바로써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뒤 유희가 죽었는데, 신이 죄를 가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죄를 가하여 목숨을 잃게까지 했다고 물의(物議)가 일어났습니다. 신이 복수군을 거느리라는 명을 받고 한 명의 적이라도 죽여 공사(公私)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것이 없는데다 또 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으니, 신의 죄가 매우 큽니다. 또 소모장(召募將)을 체개(遞改)하라는 명을 10월 20일께 비로소 들었는데 바로 환조(還朝)하려 했으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소관(所管)의 군량과 군기들이 모두 병화(兵火)에 탕실됐으므로*** *유무(有無)를 검사하여 후임자에게 전장(傳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완결짓기가 쉽지 않아 지체함을 면치 못한데다가, 평소에 앓아 오던 편허병(偏虛病)이 이때에 다시 발병하여 신음속에 길을 나서서 조금씩 전진하다 보니 은명(恩命)에 대한 사례가 이처럼 늦어지게 됐습니다. 신의 포만(逋慢)한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리고 신이 전일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마장(馬場)의 말을 잡아내어 병사(病死)시킨 죄로 추고(推考)를 당하여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신의 전후 죄상이 수없이 많으니 결코 무릅쓰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파척(罷斥)시켜 주소서." 하니, 사피(辭避)하지 말라고 비답했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선조 30년 12월 2일 무오조)*

위의 내용은 모두 선조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전유형(全有亨, 1566~162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그는 괴산의 유생으로 있으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헌(趙憲)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또한 이듬해에는 왜군을 방어하기 위한 책략 10여조를 올려 선조의 칭찬을 받았으며, 재주를 인정받아 군자감참봉(軍資監參奉)에 임명됐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사임했다. 그러나 다시 민심수습방안 등을 상소하여 선조 27년(1594)에 특별히 청안현감에 임명됐던 것이다. 한편 대사간 김시헌(金時獻, 1560～1613)은 선조 30년(1597)에 충청도 관찰사가 됐고, 이후 선조 35년(1602)에도 소모관(召募官)으로 충청도에 파견됐던 적이 있었다. 그는 복수사(復讐使)의 종사관으로 탄금대를 돌아보고 임진왜란 후의 민심을 수습하는데 힘썼던 인물이었다.

바로 이들과 선조와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당시 증평지역의 현실을 살펴볼 수가 있다. 1-1)의 내용에서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증평지역은 백성은 흩어지고 곡식은 모자랐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증평지역의 백성들은 태반이 굶어 죽어 양향(粮餉)이 있어야 살릴 수가 있는 형편이었다. 한편 1-2)의 내용에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증평지역의 백성을 중심으로 군사 200을 모아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3)의 내용에서는 민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1-4)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도 지역에는 도적이 매우 치성한 암울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충청도 관찰사였던 김시헌의 명령을 괴산의 군수였던 이봉(李逢)과 장곡 유사(掌穀有司) 채유희(蔡有喜)가 불복했던 사례를 통하여 당시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까지 미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으로, 그 영향의 범위 안에 증평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함께 증평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으로 이인좌의 반란이 있다. 이 반란은 영조 4년(1728) 3월에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당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과격한 대립 관계 때문이었다. 곧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과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의 다툼이 격렬해지면서 영조를 폐하고 소현세자(인조의 맏아들)의 증손인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모반이 계획됐고 그 과정에서 계획이 드러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인좌는 1728년 3월 15일에 상여에 무기를 싣고 청주에 진입하여 충청병사 이봉상(李鳳祥), 군관 홍림(洪霖), 영장 남연년(南延年) 등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점령했다. 이어서 각처에 격문을 돌려 병마를 모집하고 북상하기 시작하여 목천 · 청안 · 진천을 거쳐 안성 · 죽산에까지 이르렀으나,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의 관군과 싸워 패하여 죽산으로 도피했으나 곧 체포됐다. 한편 청주성에 있었던 신천영(申天永)은 창의사(倡義使) 박민웅(朴敏雄) 등에

의하여 궤멸됐다.

이 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충평지역에서는 연세홍(延世鴻)·연수창(延壽昌) 등이 의병을 일으켜 맞섰다. 특히 연수창은 청주성의 탈환시 큰 공을 세워 1등공신에 책록되기도 했다.

제3절

제3절 조선의 지방제도와 충평의 변천

1.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변천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문화와 함께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지방제도의 정비는 그 가운데 하나로서 지방통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였다. 태조 이성계는 1394년 개성(開城)에서 한양(漢陽)으로 수도를 옮기고, 궁궐(宮闕)·종묘(宗廟)·사직(社稷) 등을 건설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경기도(京畿道)를 좌(左) 우도(右道)로 나누고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忠淸道)로 개칭하고 강릉(江陵) 교주도(交州道)를 합해서 강원도(江原道)로 개칭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듬해 개성부(開城府)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로,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忠淸道)로, 서해도(西海道)를 풍해도(豊海道)로, 강릉도(江陵道)와 교주도(交州道)를 합하여 강원도(江原道)로 하게 됐다. 이후 태종대에 와서 전국을 8도로 구분하여 지방을 통괄했다. 한편 성종 2년(1471)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중앙직할제인 한성부(漢城府) 외에 개성부(開城府), 경주부(慶州府), 전주부(全州府), 영흥부(永興府), 평양부(平壤府)의 5개 부(府)와 경기(京畿) 충청(忠淸) 경상(慶尙) 전라(全羅) 황해(黃海) 강원(江原) 함경(咸鏡) 평안도(平安道)의 8도제(八道制)를 시행했고, 그 밑에 하급 행정구역으로서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을 두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의 강력한 추진속에서 점차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

견되지 못했던 속현(屬縣) 등이 상위 행정 구역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모든 행정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됨으로써 그같은 종속관계가 해체됐다. 또한 고려말 이후부터 중앙에서 관직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본래 토착세력의 정치 ·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조선시대의 충청도의 변천과정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지리지(地理志)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예전 마한(馬韓)의 지역인데 고구려와 백제가 그 땅을 나누어 차지했다가, 뒤에 모두 신라에 병합됐다. 고려 성종 14년에 나라 안을 나누어 10도(道)를 만드는데, 충주(忠州) · 강주(剛州) · 환주(歡州) 등 13주(州)로 중원도(中原道)를 만들고, 공주(公州) · 운주(運州) 등 11주로 하남도(河南道)를 만들었다. 예종 원년에 관내도(關內道)에 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 일컬었다가 명종 원년에 나누어 두 도를 만들었고, 충숙왕 원년에 다시 합하여 한 도를 만들어 양광도(楊光道)라 일컬었다. 공민왕 5년에 충청도(忠淸道)로 일컬었고 신우(辛禑) 말년에 본 도의 평창군(平昌郡)을 베어서 교주도(交州道)에 옮겨 붙였다. 본조 태조 4년에 양주(楊州) · 광주(廣州)의 관할인 군과 현은 경기에 붙이고, 충주(忠州) · 청주(淸州) · 공주(公州) · 홍주(洪州)의 관할인 군과 현은 그대로 충청도로 일컬어서 각각 관찰사(觀察使)를 두었다. 공정왕 원년에 영월군(寧越郡)을 베어 강원도에 붙이고 강원도의 영춘현(永春縣)을 본도에 붙이었으며, 태종 13년에 여흥(驪興) · 안성(安城) · 음죽(陰竹) · 양성(陽城) · 양지(陽智)를 베어 경기에 붙이고, 경상도의 옥천(沃川) · 황간(黃澗) · 영동(永同) · 청산(靑山) · 보은(報恩)을 본도에 붙이었다. 목(牧) 4, 군(郡) 12, 현(縣) 38을 관령(管領)한다.(『세종실록』 권14, 충청도)*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초기의 충청도 지역은 충주(忠州) · 청주(淸州) · 공주(公州) · 홍주(洪州)의 관할인 군과 현이었다. 이후 태종 13년(1413)에 여흥(驪興) · 안성(安城) · 음죽(陰竹) · 양성(陽城) · 양지(陽智) 지역이 경기도에 속하게 됐고, 경상도에 속했던 옥천(沃川) · 황간(黃澗) · 영동(永同) · 청산(靑山) · 보은(報恩) 등의 지역은 충청도에 속하게 됐다. 당시의 군현은 모두 목(牧) 4, 군(郡) 12, 현(縣) 38개 지역이었다. 충청도에는 관찰사를 두어 관장하게 했는데, 관찰사는 고려시대의 안찰사(按察使) 또는 안렴사(按廉使)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종2품의 관직을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감사(監司) · 도백(道伯) · 방백(方伯)이라고도 불리웠고, 관할하는 도에 대해서는 사법권(司法權)을 포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충청도라는 명칭은 변화가 많았다. 연산군 11년(1505년)

에 충공도(忠公道)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진천 · 직산 · 평택 · 아산 등의 지역을 경기도에 속하게 했으나 중종 때에 다시 환원됐다. 이후 명종 5년(1550)에는 청공도(淸公道)로 바꾸고, 광해군 5년(1613)에는 공청도(公淸道)로, 인조 6년(1628)에는 공홍도(公洪道)로, 1646년에는 홍충도(洪忠道)로, 효종 7년(1656)에는 공홍도(公洪道)로, 현종 11년(1670)에는 충홍도(忠洪道)로, 숙종 6년(1680)에는 공홍도(公洪道)로, 영조 5년(1729)에는 공청도(公淸道)로, 1731년에는 홍충도(洪忠道)로, 순조 25년(1825)에는 공충도(公忠道) 등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사이에 충청도로 환원되기도 했다. 이것은 지명을 따온 지역에서 강상죄인(綱常罪人)이나 배역자(背逆者)가 생기면 그때마다 바뀌곤 했기 때문이다.

충청도의 감영은 충주(忠州) 또는 공주(公州)에 두었다. 태조 때에는 감영을 충주에 두었으나 선조 31년(1598)에는 공주로 옮겼다. 충주에 있었던 감영은 현재 충북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녕헌(淸寧軒)이 있는 충주읍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도 충주시 성내동에는 고종 7년(1870)에 읍성을 증축하고 세운 충주축성사적비가 전하고 있다. 이 유물은 충북 유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비에는 충주읍성의 크기와 문루의 크기가 명기되어 있고 축성과 관계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좌수 조광수 외 6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충주읍성[3]의 규모는 둘레가 약 1,200m, 성벽의 두께가 약 7m, 높이가 약 6m로 석축으로 축성됐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층 누각으로 되어있는 동서남북의 4대문과 야문(夜門)과 수구문으로 되어 있고 각 성문마다 수문청(수문장이 일을 보던 곳)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성은 조선 중기에는 그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충주에 성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 유성룡이 '성이 비록 있

충주시 성내동 관아공원에 있는 청녕헌

3) 읍성은 거주주체가 왕이 아니고 군 · 현 주민의 보호와 군사적 · 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이다. 우리나라 군 · 현들이 배후에 진산을 두고 시가지를 형성했으므로 독특한 읍성의 형식이 발달됐다. 읍성은 평산성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평지에 축조된 평지성도 많이 있다. 읍성의 평면 형태는 반듯하게 네모로 된 방형과 원형 · 자연지세형 등이 있는데 각 방향의 중심부에 성문을 두었다. 성문은 문루를 세워 위엄을 갖추고 성벽에는 요소요소에 부속시설을 갖추었다. 여장을 비롯하여 치 · 포사를 배치했고 대부분의 읍성은 성벽외부에 자연 또는 인공 해자를 축조했다. 평지를 위주로 한 읍성에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옹성을 두었고 성안에는 중앙의 북편에 관아를 두고 일부 주민들을 수용하여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도로는 문루에 이르는 열십자형으로 조성하고 성내에 우물이나 연못을 만들었다. 충주읍성의 옛날의 동문은 조양문이라 하여 2층으로 성내동 옛 법원 쪽에 있었고, 서문은 휘금문이라 하여 역시 2층으로 성내동 중앙여관 북쪽길에 있었으며, 남문은 봉이문이라 하여 2층으로 성내동 아시아극장 위 편길에, 북문은 경천문이라 하여 성내동 보문당 동쪽편 도로에 있었다. 북문은 목사나 원이 부임하여 오거나 서울로 올라갈 때에는, 장호원 방면에서 앙성면 용포리를 거쳐 가금면 가흥리에서 금가면 하담리를 지나 충주시 목행동의 남한강을 건너 충주시로 들어오는 통로였으므로 다른 문에 비해 배나 컸다고 한다. 야문이란 밤 11에 4대문이 닫히므로 그 이후에는 이 문을 사용하도록 설치했다고 하며, 성

기는 하나 토적도 방어하기 어렵다' 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병인양요 이후에 유사시의 필요에 의하여 충주읍성이 다시 개축됐으나, 이후 1896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하여 성문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동헌으로 쓰이던 청녕헌과 최근까지 중원군청의 관사로 사용됐던 제금당(製錦堂)만이 남아 있게 됐다. 현존하는 천녕헌은 고종 7년(1870) 소실되어 같은 해 10월에 충주목사 조병로(趙秉老)가 28칸을 중건하여 관아로 사용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7량집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집이다. 한편 공주 감영이었던 선화당(宣化堂)은 1980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공주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1932년 현 위치로 옮겨졌다. 건물의 크기는 원래 정면 9칸, 측면 5칸이었으나 옮겨지면서 축소되어 현재는 정면 8칸, 측면 4칸이다. 익공계(翼工系)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동 옛 충주 경찰서장 관사 북쪽 도로에 있었다. 수구문은 성안의 물을 빼는 배수문으로 중원군 농업협동조합이 있는 곳에 있었다. 이 성을 중심으로 남쪽을 성남동, 서쪽을 성서동, 성 안을 성내동이라 부르게 됐다.

2. 증평지역의 변천

오늘의 증평지역이었던 청안과 도안은 청주목에 속했다. 특히 태종 5년(1405)에는 백성들의 수가 적고 땅이 좁다고 하여 청안(淸安)으로 합치게 됐다. 그리고 감무를 두어 다스리게 했다가 태종 13년에 비로소 현감이 파견됐다. 당시 여주, 안성 등의 지역이 경기도에 속하고 영동, 옥천, 보은 등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속하게 되어 오늘의 충청북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형성했다.

증평지역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지리지 등을 통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지리지에는 청안을 중심으로 한 사방 지역과의 경계(境界), 그리고 호수(戶數)와 인구수(人口數), 군정(軍丁), 토성(土姓), 기후(氣候), 풍속(風俗), 토산품(土産品), 역(驛)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고 있다. 이를 보면 당시의 증평은 293호(戶)에 1천 4백 19명이 살았던 곳이었다. 성씨로는 청당현에 한(韓)·신(申)·갈(葛)과 망성(亡姓)으로 신(辛)·박(朴) 그리고 속성(續姓)으로 이(李)·김(金)이 있었다. 또한 도안(道安)의 성으로는 백(白)·이(李)와 망성으로 함(咸)·최(崔)·신(申) 그리고 속성으로 차(車) 1성이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검소했던 것으로 인식됐다.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에 있는 청안현

한편 16세기 중반에 간행됐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증평

지역에서의 토성(土姓)의 변화와 역원(驛院)과 토산물 등 많은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종장헌대왕실록』에는 보이지 않았던 산천(山川)·학교(學校)·불우(佛宇)·고적(古蹟)·제영(題詠) 등의 항목을 두어 문화와 인물 등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예로 16세기 중반 증평지역에는 이미 청안팔경(淸安八景)으로 대표되는 명소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영조(題詠條)에는 이를 노래한 시가 적혀있는데, 팔경으로는 용문송객(龍門送客)·귀석심승(龜石尋僧)·난곡목마(亂谷牧馬)·반계포어(磻溪捕魚)·뉴성백우(杻城白雨)·초령청운(椒嶺晴雲)·청하계음(淸河禊飮)·황사한음(蟹舍閑吟) 등을 들고 있다.

인조 때(1623~1649)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서승람(湖西勝覽)』에도 증평 지역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에 의하면, 당시 청안현의 민호(民戶)는 534호 였으며, 밭은 1,524결(結) 81부(負) 4속(束) 그리고 논은 1,063결 31부라고 되어 있다. 또한 향교의 교생(校生)은 30명으로 향교 소속의 노(奴)는 2□구, 비(婢)는 3□구라고 적고 있다. 더불어 인물조에서 신세린(辛世麟)의 정문(旌門)이 관문 밖에 있고, 충신 박지화(朴之華)의 정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장헌대왕실록』과 비교하여 볼 때 민호는 241호가 증가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논밭의 결수를 계량화하여 조선사회가 안정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조선 영조 33년(1757)에서 영조 41년(1756)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18세기 중반의 증평 지역에는 민호가 2,809호, 밭이 1,856결 2부 2속 그리고 논이 946결 20부 7속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사정을 『호서승람』과 비교해 보면, 밭은 332결이 증가됐고, 논은 오히려 117결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호는 오히려 2,275호가 늘어 지역민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제4절 증평의 향교(鄕校)·서원(書院)과 청안 사마소(司馬所)

1. 증평의 향교와 서원

증평에는 교육기관으로 향교와 함께 서원이 일찍부터 세워져 지역의 자제들을 교육했다. 서원은 조선 후기 유교정치의 전개속에서 본격적으로 세워졌는데, 강학(講學)과 사현(祠賢), 제향(祭享)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다. 한

편 향교는 조선시대에 지방에 설립됐던 관학교육 기관이었다. 교궁(校宮) 또는 재궁(齋宮)이라고도 불렀다.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시대에는 백성에 대한 교화 정책으로써 지방의 백성들을 교육 · 교화할 학교의 설립을 추진했고, 성종 때에 이르러 모든 군 · 현(郡縣)에 향교가 설치됐다. 향교는 공자(孔子)와 선현의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제례를 위해 마련된 대성전(大成殿)과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숙하는 명륜당(明倫堂)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제례와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배우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府) · 대도호부(大都護府) · 목(牧)에는 50명, 도호부에는 40명, 군(郡)에는 30명, 현(縣)에는 15명으로 배당됐으나 후에 약간 증원됐다. 교수관으로는 교수(敎授;종6품)와 훈도(訓導;종9품)를 두어 교육을 맡아보게 하고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했다. 그리고 교생이 독서하는 일과를 매월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순행(巡幸)하면서 교생을 고강(考講)하여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은 교생신분을 박탈했고, 우수한 교관은 호역(戶役)을 감해 주었다. 향교의 재정은 조선 초부터 향교에 급여된 위토(位土) 전답의 수세(收稅) 외에도 지방관이 분급한 전곡 및 요역, 그리고 향교에 비축된 전곡의 식리로 충당됐다. 『대전속록(大典續錄)』의 학전조에는 성균관을 비롯한 주 · 부 · 군 · 현 등에 각각 400결 · 10결 · 7결 · 5결씩을 지급하여 이고소에서 세금을 거두어 재정수요를 충당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향교는 조선시대의 중기 이후에는 점차 무력화되어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은 사학인 서원(書院)이 거의 대치하게 됐고, 향교는 지방 양민들이 군역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했다. 결국 1894년(고종 31)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이름만 남게 되고 단지 문묘를 향사(享祀)하는 기관으로만 이름을 갖게 됐다.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에 있는 청안향교

증평지역에는 청안면 읍내리에 있는 청안향교(淸安鄕校, 도유형문화재 제40호)가 있다. 이 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에 창건됐다고 전하는데, 창건 이후 여러 차례의 중건이 이루어졌다. 향교의 입구에는 신성한 곳임을 나타내는 홍살문과 이곳에 들어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져있다. 건물의 구조는 앞쪽에 공부방과 교실인 명륜당(明倫堂), 뒷쪽에는 사묘(祀廟)인 대성전(大成殿)을 배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인 향교배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정면 3칸, 옆면 2칸에 맞배지붕이다. 대성

전에는 공자를 중심으로 양편에 중국의 성인 네 분을 배향(配享)하고 동쪽 벽에는 최치원(崔致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성현 10 분, 서쪽의 벽에는 설총(薛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성현 10 분을 배향하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옆면 3칸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걸려 있는 '명륜당' 이란 편액은 영조 9년(1733)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원으로는 구암서원(龜巖書院)이 있었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관학(官學)인 성균관과 향교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점차 양반들의 교육활동의 중심지로 떠올랐던 사설 교육 기관이었다. 관학이었던 향교 교육이 과거와 법령의 규제에 얽매인 것과는 다르게 학문의 자율성이 존중됐고, 주로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성리학을 통하여 우주의 본질과 이성을 탐구했다. 다만 유학의 원리에 어긋나는 이른바 이단(異端)에 관계되는 서책은 철저히 금지됐다. 서원에는 정해진 인원수는 없었다. 그러나 각각의 서원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 인원이 제한됐고, 사액서원(賜額書院)인 경우에는 30명까지도 허락됐다.

증평읍 남차리에 위치했던 구암서원은 일명 구계서원(龜溪書院)으로도 부르고 있다. 이 서원은 광해군 5년(1613) 현감 조인행(趙仁行)과 신경행(辛景行) 등이 인근의 사림들과 함께 청안현감을 지낸 서사원(徐思遠), 괴산현감을 지낸 이득윤(李得胤) 그리고 이득윤의 스승이었던 박지화(朴枝華) 등 세 사람을 모시면서 건립됐다. 현종 7년(1666)에는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황처검(黃處儉) 등이 중심이 되어 다시 이준경(李浚慶), 이당(李塘)을 배향했다. 이후 송시열의 의견에 따라 이준경을 주향(主享)으로 하고 서사원, 박지화, 이득윤, 이당을 차례로 배향했다. 이렇게 배향된 인물을 볼 때 구암서원은 노론 성향을 지녔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증평과 가까운 괴산 화양동에는 송시열을 모시는 화양서원(華陽書院)과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만동묘(萬東廟) 등이 건립되어 있어 증평과 충북지역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학풍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암 송시열의 학문과 영향

증평지역에서 유교의 역사적인 전개를 살필 때 중요한 인물은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다. 그는 도학자로서 17세기의 학계와 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주자(朱子)를 도학의 정통으로 삼아 주자의 학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비판했고,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통 수립과 도학사상의 정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기호학파는 경기도와 충청도지역의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인과 학자들의 집단을 말한다. 기호를 지리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기(畿)' 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원으로, '호(湖)' 는

충북 제천의 의림지 서쪽의 충청도 전역을 가리키는 호서(湖西)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이이(李珥)의 학설을 계승한 주기적(主氣的) 경향의 성리학자들로서 일반적으로 주기파(主氣派)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비교되는 영남학파(嶺南學派)는 정몽주(鄭夢周) - 길재(吉再) - 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으로 학문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다.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의 송시열 암서재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예학은 현종대에 남인과 맞서 극렬한 예송논쟁(禮訟論爭)을 일으키게 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즉 송시열 등의 서인들은 주자학을 절대 신봉하는 반면, 근기남인은 원시유학인 육경(六經)을 중시하면서 고학(古學)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졌다. 송시열은 공자(孔子) - 주자(朱子) - 율곡(栗谷) - 사계(沙溪)라는 학통을 수립하고, 기호학파를 조선 성리학의 정통으로 자임하는 도통관(道統觀)을 명시 했다. 그러나 숙종대에 이르러 남인 출신의 영의정 허적(許積)을 두고 강력한 탄압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갈리면서 회덕을 중심으로 한 송시열 계열은 노론(老論)이 되고, 이산(泥山)을 중심으로 한 윤증(尹拯) 계열은 소론(少論)으로 분리됐다.

송시열의 문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 『전고대방(典故大方)』 그리고 『유교연원록(儒敎淵源錄)』 등을 들 수 있다. 『화양연원록』의 제1편에는 김장생, 김집을 비롯하여 143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고, 제2편에는 권상하를 비롯한 문인 340명과 제3편에는 이여를 비롯한 문인 487명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전고대방』에는 문인 190명 그리고 『유교연원록』에는 문인 305명이 수록되어 있다.[4]

이같은 송시열의 문인들 가운데 증평을 포함한 충북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은 현존 유적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증평과 가까운 괴산에 송시열이 은거했던 장소에 세워진 화양서원지(華陽書院址)가 있고, 또한 중국 명나라 황제였던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었던 만동묘지(萬東廟址) 그리고 송시열 묘소 및 신도비 등 다양한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변의 여건으로 인하여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괴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결집하여 유교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교육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4) 이연숙, 「우암학파의 형성」,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사회와 문화』, 2002. 27~31쪽.

그들 가운데 충북지역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인물은 수암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이다. 그의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호는 한수재(寒水齋)이다. 현종 1년(1660)에 진사가 됐고, 송시열을 스승으로 섬겨 학문에 전력했던 인물이다. 이후 효종 10년(1659)에 송시열이 기해복제(己亥服制)로 인하여 숙종 원년(1675)에 덕원부(德源府)에 유배되면서 남인(南人) 계통이 정권을 장악하자 청풍(淸風)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열중했고,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 사사(賜死)되자 그 유언에 따라 만동묘(萬東廟)와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했다. 권상하는 이같이 스승이었던 송시열의 유업을 이으면서도 충북의 청풍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였던 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윤봉구(尹鳳九)·채지홍(蔡之洪)·이이근(李頤根)·현상벽(玄尙璧)·최징후(崔徵後)·성만징(成晩徵) 등이었다. 특히 한원진(1682~1751)은 송시열 - 권상하를 잇는 도통을 계승한 인물로 역시 스승인 권상하로부터 송시열로 물려받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받았다. 그는 18세기 주자명분론을 주도해 가고 있던 최고의 이론가로 그의 의리론(義理論)·무분비판론(無分批判論)·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은 일찍이 우암 송시열이 내세웠던 강상설(綱常說)·춘추의리설(春秋義理說)·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을 계승해서 한층 체계적으로 조직한 정통주자학의 인식논리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송시열의 도통의식(道統意識)·세도정치론(世道政治論)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집권노론의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었다.

3. 청안 사마소(司馬所)의 설치와 그 의미

사마소는 고을의 과거 합격자의 연방안(蓮榜案)[5]과 계방안(桂榜案)[6] 등의 이른바 사마안(司馬案)을 보관하고, 향약계(鄕約契)를 하기도 하며, 청금록(靑衿錄)을 작성하고 봉안하기도 하는 곳이다.[7] 조선시대 사마소의 설립에 대한 기록은 연산군 4년(1498)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유자광의 말에 의하면 '외방의 생원·진사(生員進士)들이 사마소(司馬所)라 자칭한다.' 하옵니다." 하니, 자광이 급히 나서며 '내가 아뢰겠다.' 하고, 드디어 아뢰기를, "남원(南原)과 함양(咸陽)은 모두 신의 본관(本貫)이므로 신이 친히 보았습니다. 생원과 진사들이 별도로 한 장소를 만들어서 사마소라 이름하고, 사사로 서로 모이어 여럿이 술을 마시면서 빗나간 의논을 하고, 서민이나 서리가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문득 매질을 합니다.

5) 생진(生進)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의미한다.
6) 문과(文科)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의미한다.
7) 괴산군·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청안 사마소』, 2001, 14~15쪽.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에 있는 청안 사마소

유향(留鄕)의 품관(品官)들이 거개 늙고 열등하기 때문에 온 고을 인리(人吏)들이 유향소(留鄕所)를 멸시하고 도리어 사마소에 아부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온데, 수령된 자들이 비단 능히 금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노비(奴婢)를 지급하며 식리(殖利)하는 곡식과 물화(物貨)를 맡기니, 국가에서 설립한 유향소 이외에 또 이 무리들이 사사로 세운 한 장소가 있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하고, 필상은 아뢰기를, "칠국(七國)의 처사(處士)와 동한(東漢)의 당인(黨人)과 조송(趙宋)의 낙당(洛黨) 촉당(蜀黨)과 근일 김종직의 간당(姦黨)이 모두 떼로 모여서 빗나간 의논을 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오니, 이러한 풍조는 통렬히 개혁해야 하옵니다. 청컨대 팔도 감사에게 유서(諭書)를 내리시어 소위 사마소(司馬所)라는 것은 일제히 혁파하도록 하소서." 했다. 그리고 자광이 필상더러 이르기를, "홍유손(洪裕孫)의 일도 역시 아뢰어야 한다." 하니, 필상이 아뢰기를, "남양부(南陽府) 공생(貢生)이란 자가 있는데, 시문(詩文)이 능하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심히 괴이하여 나이 젊은 6, 7명과 당(黨)을 만들어서 아무개는 정자(程子)고 아무개는 주자라 자칭하며, 이따금 강가의 인가에 모이어 소요건(逍遙巾)을 쓰고 서로 더불어 떼지어 술마시며, 비방을 하옵니다. 일찍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제술은 아니하고, 종일 술에 취해서 희어(戱語)를 쓰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오래 도성 아래 있으면 반드시 후생을 그르치고 말 것이오니, 청컨대 잡아내서 먼 지방으로 내치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외간의 이러한 일을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경 등의 이 계(啓)는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는 바이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명하여 유손을 잡아 포박했다.(연산군 4년 8월 계유조)

이에 의하면 사마소는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지방 정치기구로 본래의 향촌 기구였던 유향소(留鄕所)보다도 그 세력과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점차 폐단이 많아진다고 인식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새로운 지방 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던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들이 하나의 독자적인 회합 장소를 마련하고 향론(鄕論)을 펴서 본래의 향촌 통치 기구였던 유향소의 권위와 역할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산군일기』의 내용은 오히려 사마소의 설립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연산군때에 이르러 그 역할이 증대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마소의 설립이 이미 존재했던 유향소와는 다른 성격의 기구였다는 점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마재의 설립과 목적은 각 지방에서 편찬된 읍지의 기록과 사마안 등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사마재는 이미 세종때부터 이루어졌고, 그 목적도 사림의 정치적 성장과는 무관한 향촌교화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8] 청안현에 설립된 사마소의 성격은 현존하는 『사마록(司馬錄)』의 서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고을마다 각기 사마소를 두고 고을에서 생원 · 진사가 된 선비들이 여기에 모여서 강업(講業)하고 수호(修好)하더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는 거의 모두 폐지되고 복구되지 못했다. 청안(淸安)은 호서지역의 작은 고을인데도 지금 진사가 된 사람이 4명이다. 지금 연세화(延世華)가 다시 만들고자 치소의 북쪽 향교의 남쪽에 자리를 정하고 관청에 아뢰니, 관청에서 10,000전(錢)을 출연하여 도와주었다. 책자에 이전부터 생원 · 진사가 된 사람을 기록하는데 김광우(金光佑)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전의 문헌이 없어 알 수 있는 사람만 쓰기 때문이리라. 이중에서도 현사(顯仕)한 사람은 영성군(靈城君) 신경행(辛景行)과 참판(參判) 김질간(金質幹)이 비교적 잘 알려진 사람이다. 할아비와 손자나 부자지간 혹은 형제지간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참으로 가상하다.

이에 의하면 청안 사마소는 숙종 28년(1702)에 설립됐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목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모두 없어진 유교적 전통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이같은 사마소가 증평 외에 옥천군만이 그 사례를 전하고 있다. 곧 『충청북도각군읍지(忠淸北道各郡邑誌)』의 옥천군 해우조에서 사마재(司馬齋)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서도 옥천군 누정조(樓亭條)에서 사마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옥천의 사마재는 과거 합격자의 명부를 봉안했고,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매년 봄과 가을에 청금록을 중수하여 봉안했던 것을 알 수 있다.[9]

『충청북도청안군양안(忠淸北道淸安郡量案)』(규17686) 관련 기록

그런데 청안현의 경우에는 지리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충청북도청안군양안(忠淸北道淸安郡量案)』(규17686)에서 사마소가 향교인 교궁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양안은 광무 4년과 5년 사이의 것으로 양지아문에서 당시 청안의 토지 지번별 소유주와 토지의 크기, 모양, 경작자의 이름, 집의 종류와 규모, 사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이

8) 괴산군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청안 사마소』, 2001, 36~46쪽.

9) 이병연,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1932년.

곳에 사마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사마소는 제 70번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네모진 모양의 땅은 남북으로 9자, 동서로 10자 크기로서 면적이 90제곱자여서 결부법(結負法)으로는 9속(束)의 넓이가 된다고 했다. 또한 토질은 1등전으로서 대지의 북쪽에는 언덕이 있고, 남쪽에는 향교 소속의 밭이 있다고 했다. 동쪽에는 안일성(安逸成)의 집이 있는데 초가 2칸이며, 서쪽으로는 한평길(韓平吉)의 집이 초가 2칸이 있었다. 곧 사마소 건물은 동서로는 2칸의 초가집에 둘러 싸이고 남쪽에는 향교 소속의 밭이 있었던 곳에 위치했던 4칸의 기와집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래의 사마소가 현존하는 건물과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이는 사마소가 당초 연방(蓮榜)과 계방(桂榜)에 합격한 사람과 일부 지주(地主)까지 사마안을 작성하여 보관하던 곳으로 문서 보관의 기능과 생원과 진사가 된 사람들의 강신(講信)의 장소 그리고 학당적 기능(學堂的機能), 사마계(司馬稧) 등을 운영하는 친목도모의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곧 본래의 기능에서는 팔작지붕의 건물로 만들어 사용됐으나 이후 사마소에 오른 인물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선조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봉사(奉祀)의 기능과 봉사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계(稧)를 위한 기능만이 중시되면서 오늘날 보이는 맞배지붕형태의 건물로 변화된 것이다.

『청안현지도』 청안현 옛지도 (1871년)

청안 사마소에 대한 조사는 2001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관련된 문헌과 원위치, 성격 등이 폭넓게 규명되어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청안 사마소는 현재의 향교 앞쪽에 있었던 민가의 터로 추정되고 있다. 곧 원래의 위치는 교궁(校宮)의 남쪽이 맞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리지에 보이는 지도상의 위치도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지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청안 사마소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향교의 위치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규장각의 『충청북도청안군양안』의 기록과 현지 조사를 통하여 추정된 위치 그리고 옛지도상에 나타나는 향교의 위치를 통하여 사마소의 원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5절

제5절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와 증평 지역

1. 증평 지역의 유교문화재와 의미

증평지역에는 유교의 도덕관이 반영된 문화재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도안면 송정2구에 있는 연충수 묘갈(延忠秀墓碣) 그리고 도안면 화성리에 있는 정조 20년(1796)에 세워졌던 곡산연문 쌍효각(谷山延門雙孝閣) 그리고 도안면 광덕리에 있는 김학주 소장 고문서 가운데 효자 김창익(金昌翼)에 대한 상서(上書) 등은 조선시대의 윤리와 사상을 그대로 전해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 표. 증평군 내 유교유적 분포

명 칭	위 치	건립연대	비고
연종록부부 정효각(延鐘祿夫婦旌孝閣)	도안면 화성리	1859	효자각
곡산연문 쌍효각(谷山延門雙孝閣)	도안면 화성리	1887	효자각
김창익 효자각(金昌翼孝子閣)	도안면 광덕리	1900	효자각
곡산연문 효열각(谷山延門孝烈閣)	도안면 화성리	1796	효열문
곡산연씨 열녀문(谷山延門烈女門)	도안면 화성리	1892	효열문
강릉유문 쌍열각(江陵劉門雙烈閣)	도안면 도당리	1884	효열문
경 모 재(敬慕齋)	증평읍 남하리	1700	사 당
기 성 전(箕聖殿)	도안면 노암리	1854	영 당
정 후 사(靖厚祠)	도안면 도당리	1813	영 당
양무공사(襄武公祠)	증평읍 죽리	1595	사 당

표에서 보듯이 증평지역의 유교 문화재는 사당과 영당 그리고 효자각과 효열문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윤리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품성을 최대한 발휘시켜 이상적 인간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筍子)의 성악설(性惡說)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의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착한 품성으로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네 가지가 있으니 이를 사단(四端) 곧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본성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그 기질이 달라진다. 곧 물욕(物慾)에 따라 달라지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있는 것이다. 이를 칠정(七情)이라 한다. 그런데 이같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갖춘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오랜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왔고 또 후대에 그 전통과 문화를 남겨주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상들을 공경하여 제사를 바치며, 자손을 두어 대(代)를 잇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수양을 통하여 이상적인 덕을 갖추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군자(君子)' 라는 이상적 인물이 되기 위해서 유교적 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로 군자가 갖추어야 하는 유교적 덕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예(禮)이다. 이 예에 근거하여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윤리 덕목을 추구하는 것이다. 증평지역에서 발견되는 유교문화재는 이같은 윤리관 가운데 삼강오륜사상(三綱五倫思想)을 표현하고 있다.

삼강(三綱)이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관계를 도덕적으로 확장한 유교의 질서의식을 말한다. 곧 군위신강(君爲臣綱 : 임금은 신하의 벼리가 된다), 부위자강(父爲子綱 : 아버지는 아들의 벼리가 된다), 부위부강(夫爲婦綱 :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된다)이 그것이다. 한편 오륜(五倫)이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 다섯가지를 말한다. 곧 임금과 신하(君臣), 부모와 자녀(父子), 남편과 아내(夫婦), 형과 아우(長幼), 친구들사이(朋友)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 도덕이 『맹자(孟子)』와 『중용(中庸)』 그리고 『소학(小學)』을 통하여 조선 사회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같은 조선 시대의 윤리관은 증평 지역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2. 백곡 김득신의 문학과 의미

조선시대 증평 지역의 문화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의 한문학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현실로 인하여 백곡의 문학이 빛을 발했다는 시대적인 한계성은 있으나, 문화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증평읍 율리에 있는 백곡 김득신 묘

백곡 김득신(1604~1684)의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 또는 구석산인(龜石山人)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의 조부는 임란왜란 3대 대첩

백곡집

의 하나인 진주대첩(晋州大捷)의 명장 충무공(忠武公) 김시민(金時敏)이다. 백곡이 태어난 곳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친에게서 『사략(史略)』을 배웠는데 3일이 지나도록 잘 읽지도 못했다 하여 어려서부터 비범하지는 않았으나 그 뒤로 열심히 노력하여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 그가 한 시에 재능을 보이며 인정을 받은 때는 24세 이후이다. 당시 한문사대가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에게 인정을 받았고, 「용호(龍湖)」와 「한강(漢江)」 등의 작품은 효종에게까지 극찬을 받게 됐다.

그의 문학세계는 『백곡집(柏谷集)』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백곡집』에는 시(詩) 1,594수와 함께 문(文) 177여 편 그리고 명(銘), 행장(行狀), 제문(祭文) 등이 들어 있는데, 특히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칠언절구(七言絶句)의 시가 유명하다. 그 중 효종에게까지 찬사를 받았던 「용호」라는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용호(龍湖)

古木寒雲裏 고목은 찬 구름 속에 쓸쓸히 서 있고
秋山白雨邊 가을 산엔 소낙비 들이친다.
暮江風浪起 저문 강에 풍랑이니
漁子急回船 어부가 급히 뱃머리돌리네.

그의 시는 자연과 고향을 소재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을 노래함에 있어 그 표현법이 작가의 정조(情調)와 함께 회화성이 뛰어난 감각으로 '시중유화(詩中有畵)의 가경(佳境)'을 이룩했고 나아가 산수자연의 경치를 묘사함에 사경(寫景)의 묘(妙)를 갖추기 위하여 마련(磨鍊)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0] 이같이 백곡은 어려웠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천하지 못한 유자(儒者)로서의 번뇌를 토로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보적인 시의식을 가지고 창작했던 사람으로 한문학상 일획을 그을 수 있는 작가였다는 점이다. 더욱 조선 시대의 유교적인 가치로 보아도 실패했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의 가치가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물을 지향했다는 면에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그는 진정한 선비였다고 할 수 있다. 백곡 김득신의 역사적인 의미는 바로 이에서 찾을 수 있다.

10) 임동철, 「백곡 김득신의 인간과 시」『증평문화』 제7집. 2004, 62-77쪽

제6장 근 · 현대의 증평

박걸순 집필

제1절

제1절 일제 강점기의 증평

1. 행정구역의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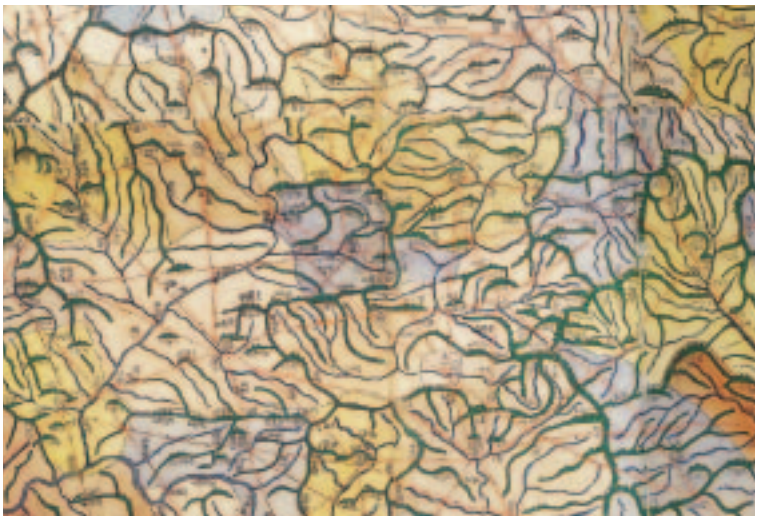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자마자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에 편리하도록 지방 관제를 개편했다. 즉, 일제는 1910년 9월 30일자로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칙령 제357호)를 공표했고, 그 이튿날 관할구역, 도와 부 · 군의 명칭과 면에 관한 규정을 잇달아 공표했다.

1910년 말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은 18군 199면이었는데, 증평군이 분리되기 이전의 괴산군과 유사한 행정구역은 괴산군 13면 · 청안군 6면 · 연풍군 5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10년 말 괴산의 행정구역

군명	군청 소재지	관할면	면수	동리수
淸安郡	邑內面 紅門里	邑內面, 東面, 南面, 西面, 北面, 近西面	6	176
槐山郡	一道面 西部里	一道面, 二道面, 東上面, 東中面, 東下面, 佛頂面, 北下面, 北中面, 北上面, 西面, 南上面, 南中面, 南下面	13	105
延豊郡	縣內面 紅門洞	縣內面, 長豊面, 勉儀面, 古沙里面, 水回面	5	51

그런데 1913년 청안군과 괴산군은 충청북도 고시 29호와 30호로 동리가 통폐합되며 변화했다. 이듬해인 1914년 3월, 일제는 전국의 부 · 군 · 면을 통폐합하여 97개 군을 없애는 등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단행했다. 이 또한 식민지



1861년의 증평
(청구전도:김정호)

지배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였다. 이 때 괴산군은 종래의 괴산군과, 연풍군 일원, 청안군(서면 제외) 일원, 청주군 청천면, 충주군 감물면과 율지면을 관할하는 것으로 재편됐다.

증평이란 명칭이 지명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앞의 충청북도 고시 29호(1913. 8. 18)로 청안군의 면과 동리를 통폐합했던 때였다. 이 때 근서면은 27개리에서 6개리(연탄리 · 송산리 · 미암리 · 사곡리 · 용강리 · 증평리)로 축소 조정됐는데, 증평리는 삼성리(三省里) · 평사리(平沙里) · 증천리(曾川里) · 내상리(內上里) · 안곡리(安谷里) · 장평리(莊坪里) 등 기존의 6개리를 통합하여 신설한 동리이다. 이 때 증평이란 지명은 증천리의 '증'과 장평리의 '평'을 따 붙인 것이다.

증평리는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충청북도령 제2호」(1914. 3. 9)로 면의 명칭과 구역이 재조정될 때 증평면으로 승격했다. 즉, 증평이란 지명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해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의 면수는 4,322개에서 2,521개로 1,801개나 대폭 감소하게 됐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개 면에서 114개면으로 축소됐고, 괴산군도 25개면에서 14개면으로 축소됐다. 당시 괴산군 관내 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1)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3월 14일자.

●● 괴산군 관내 면의 명칭과 관할구역(1919. 4. 1)

명 칭	관 할 구 역
읍내면	일도면 일원, 이도면(길동 제외) 일원
청천면	청천면 일원, 남하면 관평리, 운교리
칠성면	동상면 일원, 동중면 일원
불정면	불정면 일원, 북하면 일원, 율지면 일원, 동하면 능촌리, 이도면 길동
소수면	북중면 일원, 북상면 일원
사리면	서면 일원, 남상면 일원
문광면	남중면 일원, 남하면(관평리, 운교리 제외) 일원
감물면	감면 일원, 동하면 오창리, 검승리, 매양리
연풍면	현내면 일원
장연면	장풍면 일원, 면의면 일원
상모면	고사리면 일원, 수회면 일원
청당면	읍내면 일원, 동면 일원
증평면	근서면 일원, 남면 일원
도안면	북면 일원

이를 다시 오늘날의 증평군에 해당하는 증평면과 도안면의 리명과 옛 구역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증평면 행정구역

里名	옛 구역
彌岩里	청안군 근서면(시화리, 단암리, 선원리, 미륵리, 평사리, 명암리 일부), 청안군 북면(자양리, 도안리)
松山里	청안군 근서면(송치리, 송오리, 안자산리, 미륵리, 사곡리 일부), 청주군 산외이면(초중리 일부)
連灘里	청안군 근서면(연천리, 연신리, 탑선리, 금곡리, 반탄리, 사곡리 일부), 청주군 산외이면(금대리 일부), 청주군 북강내이면(금헌리)
射谷里	청안군 근서면(방곡리, 사청리, 궁전리, 내룡리, 평사리, 증천리, 명암리 일부), 청안군 읍내면(회룡리 일부)
龍江里	청안군 근서면(외룡리, 석현리, 곡강리, 내룡리, 증천리 일부), 청안군 남면(작동 일부)
曾坪里	청안군 근서면(장평리, 삼성리, 안곡리, 내상리, 평사리, 증천리 일부), 청안군 남면(금반리, 둔덕리 일부)
南下里	청안군 남면(포천리, 금리, 염곡리, 탑동, 금반리, 둔덕리, 서동 일부)
竹里	청안군 남면(모평리, 대수리, 중리, 비학리, 원평리, 서동 일부), 청주군 산외이면(월경리 일부)
德祥里	청안군 남면(장봉리, 정복리, 덕령리, 구상리, 연정리, 작동, 탄치리 일부)
南次里	청안군 남면(동점리, 덕평리, 장천리, 탄치리), 청주군 산외이면(월경리, 청유리 일부)
栗里	청안군 남면(삼기리, 율치리, 외봉천리, 내봉천리), 청주군 산외이면(청유리 일부)

●● 도안면 행정구역

里名	옛 구역
硯村里	청안군 북면(점촌 연치리 일부)
老岩里	청안군 북면(노상리, 백암리, 신곡리, 대지곡리, 노하리 일부)
松亭里	청안군 북면(칠송리, 입장리, 소강정리, 월강리, 가정리, 전당리, 노하리, 비석리 일부)
光德里	청안군 북면(구계리, 천광리, 덕암리, 둔산리, 석화리, 지곡리 일부), 음성군 원서면(눌문리 일부)
石谷里	청안군 북면(광암리, 백곡리, 지곡리, 석화리, 진암리 일부)
花城里	청안군 북면(성도리, 구화리, 상작리, 행화정리, 칠곡리, 하작리, 명암리, 비석리 일부)
道塘里	청안군 북면(금당리, 도암리, 진암리, 은행정리 일부), 청안군 근서면(명암리 일부), 괴산군 서면(진암리 일부)

1914년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일제 말기까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됐다. 다만, 1917년 괴산군내의 읍내면이 괴산면으로, 청당면이 청안면으로 바뀌는 등 일부 면의 명칭이 바뀌게 됐다.

이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은 단지 지리적 통 · 폐합이 아니라 통감부 이래 추진해 왔던 행정력의 강화라는 점과, 특히 일제가 면을 행정의 말단 기관으로

삼아 직접적인 통제책을 쓰려고 했던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2] 또한 이같은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은 오랜 전통과 관습적 생활권이 무시된 채 식민지 통치의 편의만 고려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오류가 오늘날의 지역간 갈등과 반목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3]

2) 김익한, 「일제의 초기 식민통치와 사회구조변화」, 『일제식민통치연구1, 1905~1919』, 백산서당, 1919, 195~196쪽.

3) 강신욱, 『증평·괴산 근현대사』, 푸른나라, 2001, 226쪽.

2. 사회경제의 변화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기 직전인 1909년 충북지역의 총 가구 수는 119,354호였으며, 인구는 504,885명으로 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4.2명이었다. 당시 괴산지역의 인구와 호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4]

4) 정삼철 편역,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괴산군편)』, 충북학연구소, 2001, 11쪽.

●● 괴산지역의 인구 및 호구수 현황(1909년)

구 분	면 수	동 수	호 수	인 구 수
충청북도	199	3,797	119,354	504,885
괴산군	13	112	5,539	24,303
연풍면	5	50	2,557	9,688
비율(%)	9.0	4.2	6.7	6.7

한편 1909년 충청북도의 직업별 인구비율은 총 인구의 94.3%가 농업에 종사하는 절대적 구조를 보이며, 나머지는 상업 3.2%, 기타 2.5%였다. 괴산지역의 경우는 괴산군과 연풍군을 합한 총인구 33,991명 중 9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상업 4.4%, 기타 0.6%의 구조를 보인다. 이를 충북 전체의 직업인구와 대비해 보면 농업인구는 6.7%, 상업인구는 9.3%, 기타가 1.6%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를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괴산지역의 직업별 호구표(1909년)

구분	농 업				상 업				기 타				합 계			
	호	인 구			호	인 구			호	인 구			호	인 구		
	수	남	여	계	수	남	여	계	수	남	여	계	수	남	여	계
충북	112,420	254,855	221,493	476,348(94.3)	4,035	8,557	7,439	15,996(3.2)	2,895	6,667	5,874	12,541(2.5)	119,350	270,079	234,806	504,885(100)
괴산	5,172	12,348	10,323	22,671	307	791	637	1,426	60	104	100	204	5,539	13,243	11,060	24,303
연풍	2,543	5,397	4,228	9,625	14	35	28	63					2,557	5,433	4,256	9,688
비율	6.8	6.9	6.5	6.7	7.9	9.3	8.9	9.3	2.0	1.5	1.7	1.6	6.7	0.06	6.5	61.9

대한제국 시기의 호구조사는 1896년 제정된 '호구조사규칙' 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이 주관하고 경찰이 보조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호구조사는 경찰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일제는 1916년 경무총감부 훈령으로 「호구조사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이 정기적으로 담당구역의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1918년 9월 25일자로 「국세조사시행령」을 칙령 358호로 공포, 1920년 10월 1일을 기해 '제국판도 안에 현재하는 자' 를 대상으로 국세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1925년 10월 1일 현대적 인구 센서스가 처음 시행된 이래 5년마다 조사가 시행됐다.[5)]

일제 강점기 괴산군의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10년 58,461명이었던 괴산군 인구는 1942년 118,3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호수 또한 13,244호에서 20,602호로 증가했다. 일제의 국세조사보고에 의해 증평과 도안의 인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하 증평 · 도안면 인구 및 호구 현황

(호구)

연도/면별	괴산군	증평면	도안면
1925	106,747	9,204	5,183
1930	113,693(21,021)	10,948(2,054)	5,440(970)
1935	118,929(21,721)	12,481(2,344)	5,687(1,010)

이로써 보면 증평면의 경우, 1925~1935년간 35.6%의 인구증가 현상을 보인다. 이는 충북선 개통으로 증평에 역이 들어서고, 이같은 교통의 발달과 함께 5일장이 번창하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의 증가를 식민지미화론이나 근대화론으로 왜곡하는 해석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일제는 충북선 철로의 연장 개통은 오지의 교통면목을 일신할 것이라고 보았다.[6)] 충북선은 1908년 4월 1일 개통된 경부선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1920년 3월 조치원~청주간 22.7㎞ 구간이 착공되어, 1921년 11월 1일 개통됐고, 이어서 1922년 5월 청주-청안(증평) 23.9㎞가 착공되어 이듬해 5월 1일 개통되어 청안역에서 개통축하회가 개최됐다.[7)]

청안역은 당시 증평면 평리에 있었는데 주요 물산은 쌀, 콩, 연초, 누에고치, 면화 등으로

1960년대 증평역사

5) 강신욱, 『증평 · 괴산 근 · 현대사』, 238~242쪽.

6) 忠淸北道, 『忠淸北道要覽』, 1928, 9쪽.

7)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編, 『朝鮮の私設鐵道』, 1925, 105쪽.

인천, 군산, 서울, 부산 등지로 직송됐다. 역 종업원은 모두 15명이었고, 역 구내에 급수소와 매점이 있었다. 조치원~청안간 충북선 철도운행은 부설 이후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다. 충북선 개통 당시 조치원~청주구간은 하루 4회 왕복했으나, 점차 증가해 1927년까지는 7회 왕복했고, 청주~청안구간은 개통 당시 하루 4회 왕복했으나, 1927년까지는 5회로 늘어났다.[8] 1927년 현재 충북선 주요 역의 여객 및 화물운송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김양식 · 강민식,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 방안 연구』, 2004, 충북학연구소, 6~14쪽.

●● 충북선 주요 역의 여객 및 화물운송 현황(1927년 현재)

역명	승객(명)		발착화물(톤)										합계
	승차	하차	쌀(米)		보리(麥)		콩(大豆)		기타		계		
			발	착	발	착	발	착	발	착	발	착	
청안	86,640	75,160	9,979	221	87	4	861	14	4,034	18,104	14,961	18,343	146,446
내수	25,971	24,901	270						131	500	401	500	7,128
오근장	15,726	314		1					44	234	359	234	4,004
청주	127,042	145,074	10,184	393	22	3	228	44	5,843	18,986	16,277	19,426	143,340
정봉	9,661	11,609	169	1					15	28	184	29	2,851
합계	264,664	272,470	20,916	615	110	7	1,089	58	10,067	37,852	32,182	38,532	302,769

한편, 1926년 일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괴산군내에는 괴산시(괴산면 읍내리, 3 · 8일), 광전시(감물면 광전리, 휴시), 온정시(상모면 온정리, 휴시), 연풍시(연풍면 삼풍리, 2 · 7일), 청안시(청안면 읍내리, 4 · 9일), 반탄시(증평면 증평리, 1 · 6일) 등이 있었는데, 특히 반탄시는 청안역(증평역) 개역 이후 급격히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9]

충북선의 개통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괴산의 사회경제구조도 변화했다. 즉, 1909년 95%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던 농업구조가 1933년 당시 괴산의 전체 호수 20,117호 중 농가 호수는 16,437호로 81.7%로 변화했다.[10]

일제하 괴산의 사회경제 구조는 『동아일보』 1926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각반(社會各般)이 시설의 초기 -발전 중의 괴산-」이란 제하에 보도된 순회 탐방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보도된 괴산의 산업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 **농업** : 전부 주민의 8할강(割强)을 점령한 중 그 9할이 소작농인 바 그들 농민의 손으로 생산되는 곡물은 쌀(米) 59,600석, 보리(麥) 74,500여석, 콩류(豆類) 25,200여석에 달하고 연초가 880,900여이고 잠업은 춘추를 합하여 2,500여석이라. 농업개량으로 열심 연구하여 농

9)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經濟』, 1929, 115쪽.

10) 『東亞日報』, 1933년 2월 27일자.

11) 『東亞日報』, 1926년 10월 7~9일자. 「社會各般이 施設의 初期 -發展 中의 槐山-」.

업계에 공적이 현저한 이는 괴산면 신상우(申桑雨)씨이고, 잠업가로 성적이 우수하고 개량에 노력한 이는 증평에 이성노(李聖魯)씨가 있다.

■ **상업** : 별로 가관(可觀)할 것이 무(無)하나 시장거래를 주로 하는데 시장 6개 중 괴산 증평 양시(兩市)가 최성(最盛)하고 1개년 매매가격이 약 50만원에 달하며 상업으로 성공한 이는 김응규(金應奎) 박규호(朴圭浩)씨였다 한다.

■ **공업** : 직물 도자기와 조선지(朝鮮紙)를 제한 외에 특산물로 청천, 칠성 양면에서 농립(農笠) '미사리'가 있어 4도(道)에 수출되며 공업의 1년 총액이 10여만원이라 한다.

■ **무역** : 도에 수출액이 1,025,700여원에서 수입액이 922,800여원을 감하면 잉여가 있다 한다. 금융으로 말하면 3개소의 금융조합이 있고 일본인의 고리대금업자 약간이 유한 외에 순전한 조선인의 손으로 설립된 식산조합(殖産組合)이 있어 자금 2만여 원으로써 저리자금을 행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도모한다.

한편, 1930년대 괴산군내에는 3군데에 동족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괴산군내 동족마을 현황[12)]

현황 / 주소	존속시기	성씨	동성 현황		타성 현황		총호수
			호수	인구	호수	인구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백양동	200년	연안이씨	90	495	74	388	164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명암	400년	곡산연씨	75	350	17	105	92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사담	不詳	단양우씨	66	330	21	63	87

이 중 대표적인 동족마을은 도안면 화성리 명암은 곡산 연씨 마을인데, 선조인 연건(延健)이 서울로부터 내려와 동족마을을 형성한 이래 자손이 번창하여 도안, 증평, 청안 등 3개 면 일대에 1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군내에서는 증평면에 동족마을이 10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안동 김씨가 4개소, 전의 이씨가 2개소, 상주 박씨 · 영산 신씨 · 곡산 연씨 · 전주 이씨가 각각 1개소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13)]

일제시대 도안면 우르배마을

12) 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編)』, 1935, 464쪽.

13) 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編)』, 227, 519쪽.

제2절

제2절 항일운동과 증평

1. 의병항쟁

증평일원의 의병활동을 보고한 일제문서

한말의 의병투쟁은 1894년 6월 일제의 경복궁 침범사건, 즉 갑오왜란에 분기하여 봉기한 이래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난 전기의병 때 제천은 유인석을 필두로 의병항쟁의 중심지가 됐고 충북의 충주성, 수안보, 박달재, 제천, 단양 등지는 혈전지구로 꼽힌다. 을사오조약의 강제에 분개하여 봉기한 중기의병 때에도 제천의병은 다시 봉기했으며, 1905년 5월에는 괴산과 청천, 진천 일원에 1천여 명의 의병이 활동하자 충주에 일본군이 주둔하기도 했고,[14] 충주와 청주 부근에서 3백여 명의 의병이 일본군과 접전했다는 기록도 보인다.[15]

한말의 의병은 일제에 의한 구한국 군대 강제해산을 계기로 전쟁의 양상으로 격화됐다. 특히 충북 제천과 진천, 보은은 일제의 의병진압을 명분으로 내세운 야만적인 보복 탄압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의병전쟁은 1909년까지 끊임없이 전개됐다.[16] 이 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본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측 보고 문서를 중심으로 증평 일원에서 전개됐거나, 증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후기 의병항쟁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자료는 일제측 기록이므로 일제측 입장에서 용어가 선정되고 정리됐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4) 『皇城新聞』, 1905년 5월 15일자.

15) 『皇城新聞』, 1905년 5월 29일자.

16) 정삼철 편역,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괴산군 편)』, 83쪽. 여기에는 〈괴산지역 의병 봉기 손해발생 현황〉이란 제하에 의병 활동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괴산군 지역 의병봉기 현황

구분	내습 (회)	피해 (호)	피해종류별					비고
			소실 (호)	파괴 (호)	금전 (원)	곡물류	기타	
충청북도	190	245	40	2	1,202.06	121.28	4,890.23	
괴산군	12	35			195.64		229.21	
연풍군	1	17					0.50	
비율 (%)	6.8	41.9			16.2		5.1	

충주수비구의 정황. 29일 밤 음성수비대의 일부는 동지 서북쪽 약 30리 지점에서 적 40명과 충돌하여 이를 격퇴시켰다. 적의 사망자는 6명, 부상자 약간명, 노획품은 총 및 잡품 약간, 아군 병졸 2명 부상, 그 중 1명은 중상 …(參1發 제240호, 1908. 2. 3,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17]

충청북도 음성수비대의 일부는 2월 25일 청안 서북방 약 10리 지점에서 약 40명의 적과 충돌했다. 격전 끝에 그 중 7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궤란시켰다. 총 7정 및 잡품을 노획했다(參1發 제259호, 1908. 3. 2,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18]

충청북도 청주수비대(임시 배치한 부대)에서 출동한 변장토벌대는 4월 20일 동지 동남방 약 45리 지점에서 적 약 30명과 조우했다. 그 중 6명을 죽이고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 같은 토벌대의 척후는 21일 청주 동남방 약 40리 지점에서 적 약 1백 명과 조우하여 그 중 7명을 죽이고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參1發 제280호, 1908. 5. 4,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19]

충주수비대에서 출동한 토벌대는 4일 청풍 서남방 약 10리 지점에서 적 약 25명을 공격했다. 그 중 6명을 죽이고 2명을 체포했다. 아군 우편호위병 2명은 청안 서남방 약 15리 지점에서 적 약 40명의 습격을 받아 아군 병사 1명이 전사했다(參1發 제286호, 1908. 5. 16,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0]

충청북도 충주수비대의 연락병은 5월 18일 괴산 군내에서 적 약 30명을 격퇴했다(參1發 제290호, 1908. 5. 30,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1]

충주수비구내에서 6월 18일부터 28일에 걸쳐 적을 소탕했다. 그 중 1명을 죽이고 7명을 체포했다. 청안분견소의 헌병 2명은 7월 1일 동지 서북방 약 30리 지점에서 적 7명을 궤주시켰다. 적의 사상자는 불명확하다(參1發 제302호, 1908. 7. 11,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2]

충청북도 충주의 순사, 수안보 분견대, 청안수비대 등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각 수비구내에서 각각 적 1명을 체포했다. 청안의 헌병은 수비대와 협력하여 7월 3일 같은 군내에서 적 2명을, 음성수비대의 일부는 7일 동지 서북방 30리 지점에서 적 2명을 체포했다(參1發 제307호, 1908. 7. 23,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3]

충청북도 충주에서 출동한 토벌대는 7월 7일 동지부근에서 적 2명을, 또 괴산수비대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적 2명을 체포했다(參1發 제309호, 1908. 7. 28,

1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2003, 3쪽.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17~18쪽.
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46쪽.
2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58쪽.
2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73쪽.
2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90쪽.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111쪽.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4]

괴산분견대는 한인 순사와 함께 7월 16일 동지 남방 약 30리 지점에서 적 3명을 체포했다. 또 분견대의 일부는 순사와 함께 다음날 17일 청주 군내에서 적 2명을 체포했다(參1發 제312호, 1908. 8. 4,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5]

수안보 분견대의 척후는 7월 24일 동지 서남 약 20리 지점에서 10여명의 적을 토벌하고 그 중 3명을 사살했으며, 총 5정, 탄약 약간을 노획했다(參1發 제313호, 1908. 8. 6,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6]

충청북도 음성수비대는 7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청안 부근에서 적 4명을 죽이고 총 1정, 기타 잡품을 노획했다(參1發 제314호, 1908. 8. 6,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7]

충청북도 음성수비대의 일부는 9월 10일 헌병과 함께 동지 서남방 약 25리 지점에서 적 약 40명을 공격해 그 중 2명을 죽였다. 동 수비대의 다른 토벌대는 다음날 11일 동지 부근에서 적 약 30명을 격퇴하여 그 중 4명을 죽였다(參1發 제332호, 1908. 9. 22,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8]

충청북도 음성의 헌병 및 보조원은 9월 10일 동지 수비대 및 순사와 함께 동지 서남방 약 35리 지점에서 적 약 40명을 공격하여 그 중 2명을 죽였다. 또 동지 수비대의 토벌대는 12일 음성 서방 약 30리 지점에서 적 20명을 격퇴하여 그 중 2명을 죽였다(參1發 제333호, 1908. 9. 26,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29]

그런데 이같은 후기 의병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한봉수 의병부대의 활약이었다. 한봉수는 1884년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에서 한미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그는 생계를 위해 일시 괴산군 청안면 장암의 타면공장에 취직하여 타면기를 밟는 일에 종사했다.[30]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는 것에 분개하여 1907년 9월경 의병의 기치를 내세웠다. 이후 그는 1910년 5월 일제에 피체될 때까지 청원, 괴산, 보은 등 충북 일원은 물론 강원과 경북일대에 걸쳐 판결문에 나타난 것만 해도 26회의 신출귀몰한 유격전을 펼쳤다.

그의 활동은 일본인 자산가와 친일파의 응징, 밀정과 변절자의 처단, 일본군과의 직접 교전, 군자금 모금 등 다양했으며, 무장 병력의 호위 하에 이동 중인 우편행랑을 매복, 습격하여 일본군을 사살하고 현금을 노획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119쪽.
2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127쪽.
2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130쪽.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V』, 133쪽.
2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V』, 14쪽.
2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資料 IV』, 25쪽.
30) 박걸순, 『舊韓末 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한봉수의병장동상건립추진위원회, 1998, 45쪽.

그의 재판 판결문에 보면 우편행랑을 습격한 투쟁은 6회에 달한다. 그런데 이같은 투쟁은 그의 고향 일원과 인접한 증평 일대에서 전개됐는데, 이는 지형 지세에 밝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투쟁 방법이었다. 그는 1908년 5월 9일 부하 40여명과 함께 내수의 초정에서 증평으로 넘어가는 고개 언덕에 매복했다가 일본 기마병 2명의 호위 하에 이동 중인 우편행랑을 습격했다. 이 교전에서 그는 일본군 1명을 사살하고 2천원의 거금을 노획했다.[31] 앞에서 예시한 의병의 활동 가운데 '참1발 제286호' (1908. 5. 16)의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보고는 한봉수의 투쟁을 보고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동년 6월 29일 모래재에서 7명의 부하와 함께 2명의 일본군이 호위하여 이동 중인 우편행랑을 습격하여 1명을 사살하고 현금과 총기를 노획했다. 이밖에도 괴산과 청안 일원의 의병 활동 중 의병장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한봉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32]

의병 한봉수(원안사진)와 의병격전기념비(모래재)

한봉수 기념비(청주중앙공원)

2. 3 · 1운동

3 · 1운동은 일제의 강점과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한민족 전체가 거족적으로 전개한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여기에는 구한말 이래 전개해 온 구국운동의 전통과 1910년대 줄기차게 이어져 온 비밀결사 투쟁의 역량과 의지가 응집되어 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운동은 곧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3 · 1운동의 지방확산은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관련이 깊다. 일제는 독립선언서의 지방 배포를 '소요 발생의 동기' 로 파악할 정도였다.[33] 당시 충청지방의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자는 천도교측의 인종익(印鍾益)이었다. 그는 보성사 사장 이종일(李鍾一)에게서 건네받은 독립선언서 300매를 충북지방에 배포하기 위해 청주에서 충주로 가던 중 일제에 피검됐다.[34] 또한 일제측 기록에 의하면 3월 2일 청주에서 독립선언서 268매를 발견하고 관계자를 검거하여 취조했음을 알 수 있다.[35]

충북지방에서는 3월 10일 청주농업학교 학생들에 의해 최초의 시위 움직임이 있었다. 3월 10일 밤, 청주농업학교 2학년 학생 31명은 시험연기원서를 교장에게 제출했고, 또한 1학년 학생 15명은 이날 밤 비밀리에 기숙사를 탈출했다. 일제는 이같은 청주농업학교 학생들의 행동이 경성으로부터 선동자가 내려왔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경계했다. [36]

이후 3월 15일 진천에서 소규모의 시위가 있었으나,[37] 충북의 만세시위는 3월 19일의 괴산 장날 시위로 본격화했다.[38] 이처럼 충북의 만세운동이 다른 지방에 비해 늦게 시작된 것은 교통의 불편, 독립선언서 전달 등 연락체계의

3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390쪽의 「한봉수 판결문」.

32) 박걸순, 『舊韓末 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96쪽.

33) 高第 六九二二號, '朝鮮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十四報)', 1919년 3월 14일(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 360~361쪽).

34)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2, 1966, 197~198쪽.

35) 高第5597號,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報)', 1919년 3월 3일자(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 316쪽).

36)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其一)』, 254쪽 및 高第6705號,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十二報)', 1919년 3월 11일(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 350쪽).

37) 1919년 3월 16일자, '朝鮮憲兵隊司令官이 陸軍大臣에게 보낸 電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 373쪽).

38)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槐山文化院, 1996, 105쪽.

차질과 함께 전위대인 학생층 역량의 미성숙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북의 만세운동은 광무황제의 인산에 참배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귀향한 인사들에 의해 본격화하여 4월 중순까지 도내 전역에서 전개됐다. 특히 광무황제의 인산에 참배하기 위해 상경했던 인사 가운데에는 3·1운동을 비밀리에 추진하던 민족대표를 만나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할 것을 부탁받고 만세시위를 주도한 경우도 있었다. 청주와 괴산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한봉수(韓鳳洙)와 홍명희(洪命憙)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광무황제의 인산에 참배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고향의 선배이자 민족대표의 중심인물이었던 손병희(孫秉熙)의 집을 방문했다. 이때 손병희는 이들에게 비밀리에 추진되던 3·1운동의 계획을 알려주며 각자 귀향하는 대로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당부했다.[39] 이들은 귀향 직후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추진하여 홍명희는 3월 19일 괴산군 괴산읍에서, 한봉수는 4월 1일과 2일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에서 각각 만세운동을 주도했다.[40]

3월 19일 괴산읍 시위로부터 본격화한 충북의 만세시위는 이후 4월 18일의 제천군 송학과 청풍시위에 이르기까지 약 1개월간 거의 도내 전역에서 전개됐다. 비록 충북지방의 만세운동은 타도에 비해 늦게 시작됐으나, 전개 양상은 매우 치열했다. 특히 4월 초순은 가장 고조기에 달했다. 당시 조선군참모부의 보고에 의하면 일제는 충청도 지역이 경기도 다음으로 만세시위가 활발했으며, 전개 양상도 매우 격렬했다고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41] 실제로 충북의 경우, 분노한 시위 군중들에 의해 경찰관서 13개소, 헌병관서 5개소, 군청과 면사무소 7개소, 우편소 1개소 등 26개소의 관공서가 습격, 파괴당했다.[42]

이처럼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기 때문에 충북지방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영동·괴산 청안·진천 광혜원·음성 소이면 한내·청원 미원·제천읍 및 대소면과 장호원 등지는 현장에서 일제의 야만적 총탄에 의해 순국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충북지방의 만세운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충북지방 만세시위 통계표[43]

府郡名	會集回數	會集人數	死亡人數	被傷人數	被囚人數
槐山	6	6,000			
淸州	7	5,000			20
沃川	7	4,700	40	92	48
永同	2	1,000	25	47	
鎭川	3	900			
堤川	7	2,900	16	25	41
陰城	6	2,000	6	10	
忠州	6	3,250	12	36	48
忠淸北道	44	25,750	99	210	157

37) 1919년 3월 16일자, '朝鮮憲兵隊司令官이 陸軍大臣에게 보낸 電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Ⅰ, 373쪽).

38)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槐山文化院, 1996, 105쪽.

39) 李龍洛, 『三一運動實錄』, 1969, 482쪽.

40)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61~62쪽.

41) 朝鮮軍參謀部, 朝特報 第九號, '騷擾事件に關する狀況', 1919년 4월 7일(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Ⅰ, 524~526쪽).

42)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106쪽.

43) 이는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全書』 上, 542~544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러나 증평과 도안지방에서는 이렇다 할 만세운동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암리에 거주하던 천도교도 김교환(金敎煥 · 37세 · 염료 제조업)이 인근지역의 천도교도를 동원하여 호응하려 한 기록이 보인다. 즉, 김교환은 1919년 3월 7, 8일경 독립선언서와 경고문을 지니고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에 거주하던 천도교도 최봉길(崔鳳吉)의 집을 방문하여 "우리 교주의 발의에 따라 조선은 독립될 기운을 얻었으니 이를 숙독한 다음 진천의 교도들에게 반포하라"고 전했다. 이에 최봉길은 같은 동리에 살고 있던 천도교 신자 최원순(崔元順)을 통해 진천면 읍내리에 거주하던 천도교 신자 김동한(金東漢)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김교환은 보안법 위반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교환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44]

증평 3 · 1운동 기념비
(증평읍 대동리)

대정 8년 형 제 306호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면 미암리, 염료제조업, 김교환, 37세
충청북도 청주군 북이면 화상리 주물업, 최봉길, 53세

주문
피고 김교환을 징역 1년에, 피고 최봉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 김교환은 천도교 신자로서 대정 8년 3월 7, 8일경 천도교주인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에 관한 계획을 고취한 불온한 내용의 독립선언서 1통 및 경고문 각 1통을 휴대하고 동년 4월 9일경 상 피고 최봉길에 대해 '우리 교주의 발의에 따라 조선은 독립될 기운을 얻었으니 이를 숙독한 다음 진천의 교도들에게 반포하라' 고 선동하고 이를 교부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했다.

피고 최봉길은 천도교 신자인 바 동년 3월 9일경 피고의 자택에서 피고 김교환으로부터 위 선언서 및 경고문을 교부받아 같은 교도인 청주군 북이면 화상리 거주 최원순이라는 자로 하여금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김동환 앞으로 이를 회송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했다.

피고 김교환의 범죄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손병희 등이 인쇄한 선언서 1통과 경고문을 노상에서 습득하여 피고 최봉길 방에서 함께 읽어본 다음 그곳에 두고 나왔다"는 요지의 공술이 있었으며, 상 피고 최봉길이 "피고 김교환의 당부를 받아 최원순으로 하여금 진천 교도들에게 회송했

4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083~1084쪽. 김교환은 이해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했으나 기각 당했고, 9월 4일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기각 당하여 형이 확정됐다.

다"는 요지의 공술이 있고, 사법경찰관의 피고 최봉길에 대한 심문조서 가운데 판시와 부합되는 공술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 최봉길의 범행사실은 피고의 법정진술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문조서에 전시 범행사실과 부합하는 공술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건대 증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등의 소위는 더불어 보안법 제7조 및 범죄 후 공포된 대정 8년 제령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6조에 따라 가벼운 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각각 처단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청수원이 관여하다.

대정 8년 5월 1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한편 도안면에서는 1919년 4월 10일 오후 5시경부터 광덕리에서 3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시위대의 기세에 당황한 일경은 무력탄압을 자행하여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45]

3. 농민운동

일제 강점기 괴산 중평지역의 사회경제는 전형적인 농업구조를 형성했다. 1909년 95%의 절대적 비율을 보이던 농업이 1930년대에 오며 81.7%로 감소했다. 이는 충북선의 개통과 전반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괴산의 전체 농가 16,437호 중 자작농은 1,980호(12%)에 불과하고 자작겸 소작농 5,573호(34%), 순소작농 8,944호(54%), 화전민 561호(3.4%)로 매우 취약한 농업구조를 보였다.[46]

괴산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32년 10월말 각 단체의 대표를 망라하여 이른바 '자작농 창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작농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했다. '자작농 창설위원회'는 10년 사업으로 '순전한 무산자' 중 실농자(實農者)가 될만한 22호를 선정하여 1호당 5단보씩 사주어 자작농으로 육성하고자 했다.[47]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워낙 작아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몇 년이 지난 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괴산지방의 농업실태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114쪽.
46) 『東亞日報』, 1933년 2월 27일자.
47)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18쪽.

●● 괴산지방의 농업실태(1936년 현재)[48]

구분＼통계	호 수	인 원	비 율(호수/인원)
농가(종합)	18,302	101,139	100/100
자작농	2,263	13,518	12.36/13.36
자작 겸 소작농	4,163	24,500	22.75/24.2
소작농	10,989	62,021	60/61.3
피용인	887	2,100	4.84/2.07

농민들은 생활이 곤궁하자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등을 쟁취하기 위한 소작쟁의를 벌였다. 일제하 농민들의 소작쟁의는 반봉건과 항일투쟁의 양면성을 지닌 것이었다. 괴산군내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각 면별로 소작인조합이 만들어졌으며, 1922년 10월에는 칠성 · 연풍 · 장연 · 불정 · 감물 · 소수 등 6개 면의 소작인들이 횡포한 지주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하여 소작인 조합을 만들고 공동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군 당국과 경찰은 지주의 입장을 옹호할 뿐이었다.[49] 6개면 연합소작인조합 대표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를 찾아가 면담했으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1923년 3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8개항을 결의했다.[50]

이같은 농민들의 소작쟁의에 대하여 지주들은 소작권 취소조치로 대응했다. 지주들은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을지언정 소작권을 취소하는 강경자세로 나왔다. 군수가 중재에 나섰으나 지주들은 듣지 않았다.[51] 지주들은 임의로 소작권을 이동시켰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하자 신간회 괴산지회가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52]

마름(농장이나 소작지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횡포와 농간도 극심했다. 마름들은 지주의 지시를 어기고 소작인으로부터 도조를 부당하게 징수하는가 하면,[53] 심지어 소작인을 구타하여 치사케 하는 일도 발생했다.[54]

1930년대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사리면 중흥리에 사는 유재혁(柳在赫)은 증평역 앞의 5두락을 개간, 12명의 식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들이 1년간 농사를 지은 결과 2석을 수확했으나, 지주는 소작료로 3석 4두를 요구했다. 유재혁은 지주에게 반분작을 애원했으나 지주는 듣지 않았다.[55] 이는 당시 소작농이 처해 있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소작쟁의 발생의 원인은 소작권 관계 58.3%, 소작료 관계 27.9%, 비용 부담 관계 5.4%, 기타가 1.1%였다. 그런데 1930년대 농민운동에서 주목할 것은 사상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적색농민조합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색농민조합은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평안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48) 『東亞日報』, 1936년 7월 16일자.

49) 『朝鮮日報』, 1923년 2월 23일자 및 『東亞日報』, 1923년 3월 8일자.

50) 『東亞日報』, 1923년 3월 25일자. 8개항의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畓의 소작료는 총 수확량의 4할 이내로 할 일
② 田及垈에는 舊例賭租에 의하되 加俸換算等은 일절 폐지할 일
③ 소작료 斗量할 시는 斗概를 사용하여 공평을 기할 일
④ 소작권은 지주 또는 관리자라도 임의 移作치 못하고 부득이할 시는 본 조합과 협의 결정할 일
⑤ 지세급 공과금은 일절 지주가 부담할 일
⑥ 지주급 관리인의 斗稅及無償使役을 폐지할 일
⑦ 소작료 운반은 일리 이내에만 소작인이 부담할 일
⑧ 堤堰防築開墾 등 일절공사는 지주가 부담할 일 (단 금 일원 이내의 비용은 소작인이 부담함)

51) 『東亞日報』, 1923년 4월 17일자 및 1923년 5월 25일자.

52) 『朝鮮日報』, 1928년 4월 20일자.

53) 『東亞日報』, 1926년 11월 29일자.

54) 『東亞日報』, 1926년 5월 21일자.

55) 『朝鮮中央日報』, 1935년 12월 2일자.

경상남도 등에서 조직됐는데 과격한 투쟁양상으로 변화했다.[56] 그러나 증평 일원의 경우는 자료의 결핍으로 그 양상을 알 수 없다.

4. 청년운동

3 · 1운동 이후 각성한 청년층은 1919년 말부터 각 지방별로 청년회를 조직했다. 청년회가 내세운 표면적인 목표는 청년의 품성과 자아 계발, 체육장려 등을 통해 청년을 완전한 인격자로 만드는 것과, 풍속의 개량, 사회의 계도 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는 조국의 자주독립이었다.

충북지방에서도 1920년에 도내 각지에서 청년단체들이 속출했다. 그 상황은 전국 도지사 회의석상에서 충북지사의 발언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충북지사는 1920년 봄 이래 청년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하며, 이들이 겉으로는 체육과 덕육의 장려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은 강연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며 불온사상을 양성 보급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년 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단체를 해산시킬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57]

괴산지방에서는 1920년 8월 도내에서 청주와 제천에 이어 세 번째로 괴산청년회가 결성됐다. 1926년 괴산에는 괴산청년회를 비롯하여 1922년 1월 괴산기독교내 청년조직으로서 목사 경환(慶煥)과 최재익(崔在益)의 발의로 결성되어 60명의 회원을 지닌 기독교면려청년회, 1925년 6월 60여명의 회원으로 결성된 소수노농청년회, 1925년 6월 이봉주의 발기로 40여명의 회원을 지닌 증평청년회, 1925년 7월 이좌승 등의 발기로 20여명의 회원을 둔 청천청년회 등이 있었다.[58]

증평청년회는 지역 청년 제씨의 발기로 1926년 6월 20일 조선일보 증평지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이봉주(李鳳周), 부회장에 김현국(金顯國)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59]

초기 청년단체들은 대개 강연회와 토론회의 개최, 학교와 강습소 · 야학 등 계몽 교육운동, 운동회의 개최 등을 통한 사회 교화, 청년들의 심신 단련, 생활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60]

그러나 이같은 청년운동은 점차 성격이 변화하게 됐다. 즉, 1924년 4월 창립총회를 가진 괴산청년총동맹 발기회의 선언과 강령을 보면 청년단체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순수 계몽운동의 성격을 벗어나 이념적 성향을 띠게 된 것이다. 이는 1927년 8월 21일 괴산청년회관에서 개최된 혁신총회에서 결의된 강령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61]

일제는 괴산지방이 양반 유생의 연총지(淵叢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

56)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19쪽.

57)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201쪽.

58) 『東亞日報』, 1926년 10월 9일자.

59) 『東亞日報』, 1926년 7월 2일자.

60)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201쪽.

족의식이 농후하고 치열하며, 민족적 사상은 '본도 제일'로 왕성하다고 했다. 그 역사적 유래로 화양동의 만동묘를 들며, 만동묘를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배일사상을 양성하는 원천지(源泉地)라 했다. 일제가 1919년 만동묘의 제사를 금지시킨 것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였다.

또한 일제는 1930년대 중반에 괴산경찰서 관내가 민족적 사상의 근저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파악했고, 특히 교통의 발달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자들의 내왕이 빈번해지며, 양반 유생의 자제나 농촌 청소년들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여 이 사상을 지니는 경향이 짙어져 낙관할 수 없다고 파악했다. 일제 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간파하고 감시를 더욱 엄격히 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자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엄중한 사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62]

증평청년회의 경우, 존재 시기나 활동 내용, 사회주의에의 접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은 자료의 결핍으로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같은 일제측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증평도 인근의 괴산 지역과 같이 청년운동 등 대중운동과 사회운동에 공산주의 사상이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1) 괴산청년회 혁신총회에서는 1. 우리는 사적(史的) 법칙에 순응하자. 1. 우리는 과학적 이론의 교양에 노력하자.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척하자 등 3대 강령이 채택되어 이전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이념에 경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204~205쪽).

62)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 第五號, 1935년 12월, 56쪽.

5. 연병호의 항일투쟁

연병호(1894~1963)는 도안면 석곡 1리 555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1919년에 승려 송세호(宋世浩)와 함께 상해(上海)로 망명했으나, 같은 해 4월에 귀국하여 서울에서 이병철(李秉澈)과 협의하여 청년외교단(青年外交團)을 조직했다.

연병호 선생

청년외교단은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단체로서 5월에 조용주(趙鏞周)가 합세하여 서울 합동(蛤洞) 170번지 이병철의 집에서 조직됐다.

그 후 조직을 확장하는 중, 안재홍(安在鴻)도 가입하여 이병철과 안재홍을 총무로 추대하고 조직을 정비했는데 간사장(幹事長)에 김홍식(金鴻植) · 외교부장에 김연우(金演祐) · 재무부장에 김태규(金泰圭) · 편집원에 이의경(李儀景) · 외교 특파원에 조소앙(趙素昻)을 선임 결정했으며, 그는 조용주와 함께 외교원으로 선임되어 활약했다.

청년외교단의 목표는 임시정부에 대하여 국내의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를 통신해 주는 것과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것, 선전 활동을 통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것 등이었다. 청년외교단은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면서 내각 각 부장을 상해에 집결해 정무의 통일을 도모하고 열국정부에는 직접 외교원을 특파해 외교 사무를 확장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에도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에 있는
연병호 생가 및 사당

연병호선생 건국공로훈장
(1963)

외교원을 파견하며 국가의 독립을 정면으로 요구할 것, 대표를 연맹회의에 파견하여 외교 사무를 집행하라는 등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파견원으로 서울에 체류 중이던 이종욱(李鍾郁)에게 보냈다. 이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안창호(安昌浩)로부터 감사장을 수령했고, 총무 이병철은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이 발급한 경기도 애국금 수합위원회의 사령서를 수령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동녕(李東寧)의 위촉을 받아 '독립운동 참가 단체 조사표' · '독립운동에 즈음한 피해 의사 조사서' · '독립운동에 관한 가옥 피해 조사표' · '독립운동에 대한 적의 반항행위 조사표' 등을 조사 보고하는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19년 11월에 경상북도 도 경찰 제3부는 기독교도가 중심이 된 비밀결사 대한독립청년외교단과 대한독립 애국부인회가 연계하여 서울에 본부,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 연건동 이병규(李炳奎)의 집을 수색하여 비밀문서 등을 압수했으며, 청년외교단 총무를 비롯한 간부 안재홍 · 이병철 · 김홍식 등은 물론 많은 당원들을 체포하여 청년외교단의 활동은 끊어지고 관계자들은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도 이때 함께 체포되어 1920년 6월 29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다시 상해로 탈출한 그는 1921년 4월 한인대동(韓人大同)을 목적으로 조소앙과 함께 세계한인동맹회(世界韓人同盟會)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했으며, 1922년 7월에는 국민대표회의 개최 등으로 독립운동 단체들의 분규가 심해지자 안창호 · 김현구 · 조소앙 등과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여 수습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서로의 의견이 부합되지 않자 조소앙 · 김용철(金容喆) · 조완(趙完) · 이기룡(李起龍) 등과 함께 동회를 탈퇴했다.

1925년 3월에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탄핵안이 가결되고,박은식(朴殷植)이 2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는 동년 5월 31일 북경에서 이천민(李天民) · 박숭병(朴崇秉)과 같이 이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교정서(矯正書)를 발표하기도 했다.

1929년 말에는 안창호 · 이동녕 · 김구 · 엄항섭 · 이시영 등과 함께 중국국민당과 연계하여 조국광복운동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을 발기 조직했으며, 1934년 2월에는 윤기섭(尹琦燮)과 함께 재남경(在南

京) 한국혁명당 대표로서 재만(在滿) 한국독립당 대표 홍진(洪震) · 홍면희(洪冕熹) · 김원식(金元植) 등과 회합하고 독립전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양 단체를 통합하여 새로이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을 조직했다. 1935년 1월 재남경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대일전선통일동맹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집행위원이던 그는 정무위원회 주임으로 선출되어 의열단(義烈團)을 다시 통합하여 1935년 7월 한국민족혁명당(韓國民族革命黨)으로 발전 조직했다.

그는 또한 1934년에 임시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뽑혀 1935년 10월까지 임시정부에 참여했으며, 이 무렵에 『독립공론(獨立公論)』을 발행하여 민족정신 고취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렇게 활동하던 그는 일제 앞잡이인 상해거류조선인 회장 이갑녕(李甲寧)의 저격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총영사관 경찰의 추적을 받아 1937년 1월7일 체포됐다. 국내로 압송된 그는 징역 8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10월에 출옥했다고 한다.

광복 후에는 임시정부 환국준비위원회 영접부장이 됐으며, 초대와 2대 국회의원으로 건국에 이바지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63]

연병호선생 형사판결문
(복사본)

63) 국가보훈처, 『獨立有功者功勳錄』 제5권, 662쪽.

제3절 광복과 증평

1. 광복 직후의 증평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을 맞이한 증평도 환희와 함께 긴장이 감돌았다. 동아일보 증평지국장을 하던 이인구는 급히 태극기를 인쇄하여 군중집회에 대비했다. 반면 증평군청 근처 네거리 주변에 있던 일본인 상점은 철수를 했고, 주재소 경찰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모자앞 테를 턱에 걸고 경비근무를 섰다. 증평 유지들의 노력으로 특별한 불상사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증평읍 광복절 기념(1945)

그 이튿날 산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반민족적 행위를 한 한국인 순사

가 분노한 군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안과 청안에서 집단행동이 있었다는 풍문도 나돌았다.[64]

실제로 도안에서는 분노한 군중에 의해 오인 살인이 발생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해방 당시 도안 경찰관 주재소의 수석 이모(李某)는 당시 조선인으로는 차지하기 어려운 주재소 수석이 되기 전에 괴산경찰서의 고등계 형사로서 민완을 자랑했다. 그러므로 해방이 되자 군중의 습격을 받고 말았다. 이 때 그는 엉겁결에 대검을 뽑아 휘둘러 군중의 접근을 막으면서 우거진 콩밭 속으로 피하여 숨어 버렸다. 무기가 없는 군중은 발검하는 기세에 놀라 흩어졌으나 곧 콩밭을 포위하고 투석으로 응수했는데 해가 저물도록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지대는 다시 주재소의 사택으로 쇄도했다. 어느 틈에 들어 왔는지 태연자약 머리까지 흩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코고는 소리가 드높았다. 아연한 군중은 잠시 후 터지는 분노에 앞뒤 가릴 겨를 없이 달려들어 불문곡직 치고 차고 뭇매를 퍼부어 절명케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죽은 자는 원한의 대상이던 주재소 수석 그가 아니고 그의 노부였으며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장본인은 콩밭으로 뛰어드는 길로 포복 전진하여 멀리 서울까지 탈출했으므로 노부가 죄없이 횡사한 것조차 알지 못했다 한다." [65]

64) 송기민, 『爐邊鄕史 증평이야기』, 증평문화원, 1998, 9~11쪽.
65) 金顯吉, 『槐山의 歷史』, 괴산문화원, 1990, 225쪽.

2. 치안자치대와 청년회

해방 직후 증평의 공기는 환호 속에서도 친일파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고 신사가 불태워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에 지도급 인사들은 8월 20일경 치안 유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찰을 대신하여 각종 범죄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안자치대(치안유지회)를 결성했으니, 이는 해방 후 증평에서 결성된 최초의 사회단체였던 것이다.

대한청년단 증평지구단 도안면단부원

치안자치대는 옛날 면사무소 앞(궁전예식장 자리)과 증평 농협자리에 천막을 쳐놓고 훈련용 목총과 목검 등으로 무장한 채 경비에 나섰다. 이들의 임무는 혼란기를 틈탄 절도범 단속, 군중들의 일본인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방지, 친일파에 대한 폭력행위 제지 등이었는데, 활동은 경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됐다. 그 기간은 10~15일이었으며 일본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살던

집에 사회단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흥은행 증평지점 자리에는 대동청년단(후에 대한청년단으로 개칭) 증평지부가 간판을 내걸었는데 이혁로, 손용봉, 윤진수가 전면에서 활동했고, 이명로와 정승화가 배후에서 후원했다. 옛 삼거리(제일약국 자리)에는 증평농민조합과 근로인민당 간판이 나붙기도 했다.

대한청년단 증평특별지구단 부원

한편 이범석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의 결단식이 있었는데, 후원자는 송인섭이었으며 윤치훈이 단장으로서 증평지역의 책임을 맡았다. 민족청년당은 후에 자유당이 창당되며 해체됐는데, 정치적으로 족청계로 몰려 수난을 겪기도 했다.[66]

당시 국민회 지부원으로서 신탁통치 반대투쟁을 벌인 인물은 정승화 · 김기석 · 임봉빈 · 박종석 · 김남선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이광우 · 윤진수 · 이호종 · 윤치훈 · 김천수 · 윤영호 · 하영식 · 이형로(이상 증평), 연병률 · 이재우(이상 도안) 등을 청년운동의 선구자로 들 수 있다.[67]

3. 단군전의 건립

해방을 맞이한 다음날인 8월 16일, 분노한 지역의 청년들이 일제 식민지시대를 청산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일제가 건립해 놓은 신사를 불질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사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민족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궁극적으로 동화를 이루기 위한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사를 불질러버리고 민족정기를 회복하자는 생각에서 해방 직후 8일 동안 전국에서 불 태워버린 신사가 자그마치 136건에 달했다.

일제는 1915년 8월 「신사사원규칙」을 공포하여 신사의 설립기준과 인가절차를 정했다. 일제하 괴산지역에는 1928년 11월 24일 괴산읍 서부리에 신명신사(神明神社)가 설치된 것을 위시하여 증평 · 청안 · 사리 · 불정 · 연풍 · 칠성 등지에 7개의 신사가 설치되어 있었다.[68]

66) 송기민, 『爐邊鄕史 증평이야기』, 190~193쪽.

67) 金顯吉, 『槐山의 歷史』, 226~227쪽.

68) 강신욱, 「일제식민지시대 신사와 증평단군전」, 『증평문화』 제5집, 2001, 137~139쪽.

증평읍 대동리에 있는 단군전 전경과 홍살문(1950년)

『조선총독부관보』에 의하면 1929년에 당시 증평면 증평리에서 강청태랑(岡淸太郞) 외 36명이 신사의 설립을 출원하여 4월 27일에 허가했음을 알 수 있다.[69] 즉 이 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설립됐던 것이다.[70] 증평신사는 일본 왕실의 시조인 천조대신을 제신으로 한 것이었는데, 천조대신은 이른바 신도정신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일본정신을 상징했다.

당시 정치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증평에 와서 사거리에서 연설을 하던 몽양 여운형이 청년들이 신사를 불태워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좋은 나무를 정자로 써도 되는데 왜 태워 버리느냐" 며 나무랐다고 한다.[71]

1948년 5월 27일, 신사가 있던 자리에는 한민족의 기원인 단군을 모시는 단군전이 건립됐다. 일제의 신사가 있던 자리에 단군전을 건립한 것은 진정으로 일제로부터의 광복을 실감하는 사건이었다. 이 단군전의 건립은 김기석(金箕錫)의 노력과 지방 유지들의 의지가 결합한 결과였다. 김기석은 독립운동가인 연병호의 자문을 받으며 사재로 18마지기의 토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본전 공사와 담장공사 및 주민 이주비 등을 충당했다.[72]

1955년 초가을, 신익희가 증평을 방문하여 증평의 유지 100여명과 시국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는 독재를 일삼던 자유당에 맞서는 야당인 민주당 당수였기 때문에 당국의 탄압을 받아 음식점도 이용하지 못하고 단군전에서 증평의 인사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는 참석자들이 거출한 몇 푼의 정치자금을 받고는 '구민대도(救民大道)' 라는 휘호를 써주었다고 한다.[73]

한편, 현재 단군전의 현판은 1963년 김사달 박사가 쓴 글씨로 제작한 것이다.[74] 단군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와가로서, 단군 영정(가로 42㎝, 세로 82㎝)을 봉안하고 매년 10월 3일 개천절과 음력 3월 15일 어천절에 단군전봉찬회 주최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69)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5월 3일.
70) 당시 증평의 인구는 총 10,948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인이 130명이 살고 있었다.
71) 송기민, 『爐邊鄕史 증평이야기』, 10쪽.
72) 金奉三, 「단군전 야사」, 『증평문화』 제2집, 1998, 161~165쪽.
73) 송기민, 『爐邊鄕史 증평이야기』, 110~111쪽.
74)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제5호, 2004, 161~162쪽.

제4절

제4절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설치

1949년 8월 13일, 증평은 대통령령 제156호에 의거, 읍으로 승격했다. 그리고 1963년 1월 21일 유지들을 중심으로 증평번영회(회장 이향노)를 조직함과 동시에 정승화를 위원장으로 하는 증평군추진위원회(증평지방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군 승격을 추진했다. 증평군추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와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보내고 이에 증평읍에서는 1965년 3월과 1967년 8월에 증평군 신설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증평군 신설 조서

1. 개편요지
 가. 내용
1. 증평군 신설
 - 괴산군 증평읍 · 청안면 · 도안면 · 사리면 · 진천군 초평면 · 청원군 북이면 등 6개 읍면을 합병한 증평군을 신설함.
 나. 이유
1. 6개 읍면이 지형지세 및 생활권이 동일함.
2. 행정상 거리가 단축됨.
3. 증평읍 도시계획에 청원군 북이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4. 6개 읍면이 증평을 중심으로 중 ·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증평공고교1, 중학2)
5. 주민의 오랜 숙원임

– 부 기 –

1. 시 · 군 구역개편 대상지구인 증평군 신설에 있어서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는 면적 5.73㎢에 인구 1,410명이 거주하고 있음. 해발 510m의 보광산을 넘어 원남면 소재지와 통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여 항시 주민이 불평불만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 이 원남면 문암리를 분할, 도안면에 편입한다면 모든 행정추진상 간편하고,
3. 증평군이 신설되더라도 군 소재지와 불과 6km밖에 안되는 관계로 주민이 더욱더 희망하리라 사료됨.(1967년 8월 1일)

증평군추진위원회는 1960년대 중반, 군 승격을 위한 준비 단계로 청원군 북

이면 초중리를 편입시키기 위하여 상경, 박경원 내무부장관을 면담하여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1973년 7월 1일 초중리를 증평읍에 편입시키는 결실을 거두었다.[75] 증평은 인구 3만이 넘고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주민들의 자치 욕구가 높아지므로, 다시 1989년 10월 13일 증평시추진위원회(회장 김건수)를 결성하여 주민 6,360명의 서명 · 날인을 받아 10월 중앙정부 각 관계요로에 건의문을 보내고, 언론매체를 통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75) 송기민, 『爐邊鄕史 증평 이야기』, 16~21쪽.

증평출장소 개청(1991. 2. 1)

증평은 인구 3만을 넘으면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갔고, 증평번영회를 중심으로 증평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드디어 1990년 12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로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어 증평읍과 도안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됐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출장소는 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설치 승인을 얻어 충청북도 조례로 마련된 것이었다. 즉, 시 승격을 전제로 한 과도기적 행정기구였다.

출장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1.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2.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 수립 추진, 3. 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 구역내 종합 행정 추진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됐다. 출장소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등은 괴산군 자치법규에 의하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는 별도의 특례조례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76]

76)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증평군, 『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2003, 26~27쪽).

출장소는 하부조직으로 증천 · 장평 · 도안지소를 두었는데, 위치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증평출장소 지소의 현황

지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증천지소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증평읍 : 증평리 용강리 사곡리 덕상리 남차리 율리 죽리 남하리(8개리)
장평지소	괴산군 증평읍 교동리	증평읍 :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 초중리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7개리)
도안지소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도안면 : 화성리 노암리 연촌리 송정리 광덕리 석곡리 도당리(7개리)

증평출장소 전경(1995년)

출장소의 설치에 따라 1991년 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와 제141조(사무의 위탁)에 의거, 괴산군과 증평출장소 사이에 행정위수탁협약이 체결됐다.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의 행정위수탁협약서'는 9개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됐는데, 위탁자 괴산군수 박정순과 수탁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김광홍이 서명하고, 충청북도 내무국장 · 기획담당관 · 지방과장(대) 행정계장 · 감사담당관 · 회계과장의 입회하에 체결됐다.

본 협약서는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에 법령상 소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사무의 위 · 수탁과 재산관리 등 협조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튿날인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 협약에 의해 증평출장소장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본소와 지소의 인사관리를 담당했으며(제3조), 이밖에 재산관리(제4조), 행정감독 및 책임(제5조),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제6조), 법률효력의 귀속(제7조), 주요관례사항(제8조) 등에 관한 처리방침이 마련됐다. 마지막 제9조(기타)는 법령에 소속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사무 중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증평출장소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77]

협약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77)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의 행정위수탁협약서」(『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27~29쪽).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의 행정위수탁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에 법령상 소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사무의 위 · 수탁과 재산관리 등 협조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협약 당사자 중 괴산군수를 위탁자(이하 '갑' 이라 한다)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을 수탁자(이하 '을'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인사관리) 출장소 본소와 증천지소, 장평지소, 도안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 및 모든 인사관리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을' 이 관장한다.

제4조(재산관리) ① '을' 의 관할구역 내의 "갑" 의 모든 재산은 '을' 이 관할하고 관할구역내 국공유 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은 '갑' 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을' 의 관할구역내 '을' 이 행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

의 첨기 등기, 관리, 매각은 '을' 이 행하고, '을' 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을' 의 관할구역내 주민의 재산을 각종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을' 이 매수할 경우 매수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비용은 '을' 이 부담하고 매수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 의 명의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의 관할구역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될 경우 '을' 의 관할구역내 '갑' 의 명의의 모든 재산은 '을' 의 요청에 의하여 새로이 승격되는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로 승격되지 않을 시에는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인계인수되어야 한다.

③ '을' 의 관할구역내의 국공유 재산 매각에 관한 '갑' 의 권한 행사는 '을' 의 사전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 단, '갑' 이 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기투자하여 발생한 '갑' 의 소유 잡종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5조(행정감독 및 책임) '갑'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과 출장소지소에 대한 일절의 지휘감독은 '을' 의 책임하에 전행한다.

제6조(특별회계 융자금 징수) '을' 의 관할구역의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는 '갑' 의 부과에 의해 '을' 이 징수 괴산군 금고에 수입 조치한다.

제7조(법률효력의 귀속) 행정협약에 의거 '을' 이 행한 법률상의 효력은 '갑' 에게 귀속하고 법률상의 책임과 행정상 책임 일체는 '을' 에게 귀속한다.

제8조(주요관례사항) ①주민등록증 용지 수불, 철압인 압날 및 접착 업무는 '갑' 과 '을' 의 산하 증천, 장평, 도안지소장간에 행하되 주민등록업무 처리편람(내무부 발행) 요령에 의한다.

②' 을' 의 지역인 증평읍, 도안면 보건지소 주재 공중보건의 보건직 공무원, 보조원 및 보건진료소 요원은 '을' 의 지시감독을 받아 계속 담당 관리토록 하되, 보건지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③별첨 현안사업은 '90년도 사업 발주분에 한하여 '갑' 이 계속 추진한다.

제9조(기타) 법령에 소속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사무중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증평출장소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약은 1991. 1. 16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협약 시행 이전에 '갑' 의 명의로 발부된 모든 납세고지서의 제세는 '갑' 의 수입으로 한다.
3. (예산집행) '갑' 은 '을' 의 관할구역내 기 계상되어 있는 각종 소요예산을 집행케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을' 의 산하 회계관직을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정하여 집행토록 한다.
4. (보칙)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현안 사무가 새로이 발생했을 때는 양

자의 협의에 의하되 양자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정에 의한다.

1991. 1. 15

위탁자 : 괴산군수		박 정 순(인)
수탁자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김 광 홍(인)
입회자 : 충청북도 내무국장		이 상 범(인)
〃	기획담당관	손 문 주(인)
〃	지방과장대 행정계장	박 재 식(인)
〃	감사담당관	신 현 수(인)
〃	회계과장	김 한 식(인)

그러나 증평출장소의 설치와 행정협약은 얼마 되지않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괴산군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에 체결한 행정협약은 내용상으로 현행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괴산군은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괴산군과 충청북도는 행정협약을 폐지하여 법률행위의 외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78]

1995년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조정 방침에 따라 증평을 실 생활권으로 하는 인근 지역의 증평 편입이 추진됐다. 즉,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 송정리 · 옥수리와,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 용산리 · 진암리 · 은암리 · 연담리 주민들이 이해 9월 30일 증평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충청북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원군 북이면의 경우, 11월 30일 전체 232가구 중 72.8%인 169가구가 참가한 가운데 편입 찬반투표가 실시됐는데, 투표 결과 찬성 61가구, 반대 105가구, 무효 3가구로 집계되며 증평으로의 편입이 무산됐다. 진천군 초평면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즉, 일부 주민이 증평 편입 건의서를 제출하자, 11월 23일 해당지역 이장들이 편입을 원치 않는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11월 27일 이장들의 반대의견은 관권이 개입된 결과라는 진정서를 또 다시 제출하는 등 내부의 대립상을 드

78) 강신욱, 「증평의 탄생과 행정구역 변천」, 『증평문화』 제5집, 2001, 117~118쪽.

증평출장소설치기념 제1회 생활체육대회

러냈다. 결국 이들 지역의 증평 편입 문제는 충청북도가 행정상의 준비과정을 이유로 주민의견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지역 언론에서는 증평 편입을 희망했던 진천군 초평면의 5개리 14개 마을에서 관권이 개입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79]

79) 강신욱, 「증평의 탄생과 행정구역 변천」, 『증평문화』 제5집, 121~123.

증평출장소간판 하판식 (2003. 8. 29)

한편, 출장소의 설치 시 일부 잘못 편제된 행정구역에 따른 불편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증평출장소는 증평읍 증평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증평리 이장단과 행정구역 조정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또한 5~6월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 대상 25개 행정리 5,907가구 18,803명을 대상으로 증평리의 법정리 분할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5,375가구(91%)가 투표에 참가하여 5,173가구(96.2%)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증평출장소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 10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했고, 괴산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1월 2일부터 적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정안은 증평리를 장동리 · 신동리 · 창동리 · 증천리 · 내성리로 분리하고 대동 2 · 3 · 4리를 증평리로 존치하는 등 5개 법정리를 신설하는 한편 초중 3리를 분리하여 초중 4리를 신설했다. 이 조정안에 의거, 지소의 관할구역도 조정됐다.

●● 2002년 1월 2일 행정구역 조정현황(증평읍)

지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리수
증천지소	괴산군 증평읍 신동리	증평리, 신동리, 창동리, 내성리, 덕상리, 남차리, 율리, 죽리, 남하리, 초중리, 연탄리	11개
장평지소	괴산군 증평읍 교동리	장동, 교동리, 대동리, 증천리, 송산리, 미암리, 용강리, 사곡리	9개

제5절 제5절 증평군의 설립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체제의 문제점

충청북도증평출장소는 1990년 12월 31일 증평읍과 도안면을 시 승격을 전

제로 한 시 ·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행정 위탁단위였다. 1992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접 시 · 군을 통합하여 지방자치 광역화로 도농복합시를 만드는 정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출장소 출범 1년 만에 증평출장소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인접 중원군과 제원군이 각각 충주시와 제천시에 편입되는 등 통합정책에 반하여 군(郡)을 분리한 증평출장소 존치는 명분을 잃게 됐다.

출장소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법상의 법정조직이 아닌 충청북도 조례에 의한 일반 행정조직으로 충청북도의 위탁사무와 괴산군 그리고 증평읍과 도안면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서 자치단체와 동일한 종합행정을 수행하게 됨으로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증평출장소 주민은 괴산군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회의원이나 군수는 출장소 주민과 무관한 괴산군 자치단체의 의정이나 행정을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둘째 충청북도조례에 의하여 괴산군으로부터 모든 지방자치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함으로서 도안면, 증평읍이 도안지소, 장평지소, 증천지소로 개칭 또는 분할되었으나, 읍 · 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괴산군 도안면장과 괴산군 증평읍장의 직인에 의해 업무가 처리 되어야 했고, 증평읍의 호적업무는 법정마을을 관할하는 각 지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군 단위 행정을 수행하는 출장소민원실에서 대행해야 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한 행정업무를 시행해야 했다.

셋째 지방세인 군세(郡稅)의 부과 · 징수에 대하여 부과(賦課)는 괴산군수 명의로 하고 귀속(歸屬) 역시 괴산군 세입으로 들어가므로, 증평출장소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한 수혜가 적절치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지원사업자금을 비롯한 군세로 받아야 하는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비의 지원자금 수혜를 할 수가 없었다.

2. 증평군 설립을 위한 추진사항

1)일정별 추진사항

- 1992. 11. 28 : 제14대 대선 정당연설회시(증평공업고등학교)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시 승격 공약
- 1993. 01. 07 : 인접지역(진천군 초평면 남부 3개리 10개 마을) 증평출

증평출장소 폐지 반대 궐기대회 광경(1998. 6. 20)

증평독립촉구선언대회(1996. 3. 1)

장소로 편입 추진(마을 주민 편입 반대)

● 1993. 09. 03 : 인구증가를 위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증평시승격추진위원회)결의
- 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 이상 만들기 위한 범주민 운동 일환

● 1993. 11. 19 : 증평 시 승격 추진 서명 건의서 대통령 및 관계기관에 제출(건의문)

● 1994. 02. 16 : 제14대 대선공약사업(증평 시 승격) 확정사항을 내무부에서 충청북도에 시달

● 1994. 06. 14 : 증평 시 승격을 위한 주민염원을 여론조사로 발표
- 증평청년회의소(회장 김덕중) 주관
- 시 승격보다는 증평군설치를 바라는 의견 48.4%(대상:543명)

● 1995. 05. 22 : 지역현안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증평시민회)

● 1995. 10. 26 : 증평기초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위한 범시민연합 결성
- 증평농협회의실에서 증평번영회(회장 박석규) 주관
- 시 승격 촉구를 위한 주병덕 충청북도지사 면담(증평시민회)

● 1995. 11. 14 : 인접지역(청원군 북이면 5개리) 증평출장소 편입운동
- 증평괴산신문사 주관 간담회
- 11월 30일 청원군 북이면 주민의견조사 결과 편입 부결

● 1996. 03. 01 : 범시민 자치단체 촉구 선언대회 개최(신라부페: 증평시민회 주관)
- 3.1절을 기해 '증평독립촉구선언문' 채택 대내외 천명
- 증평시 추진 보다는 증평군 추진으로 설정

● 1996 05. 18 :제15대 국회의원 괴산군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 촉구

(증평시민회주관)

● 1997. 11. 24 : 제15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자치단체 촉구 건의문 발표 (증평시민회)
- 김대중, 이회창

● 1998. 01. 08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증평군설립 건의서'를 박권상행정개혁위원장을 면담 제출

● 1998. 02. 03 : 증평군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기민) 결성

● 1998. 02. 21 : '증평군설립촉구결의대회' 개최
- 증평출장소 앞에서 주민 1,000여명이 집회, 주민결속 다짐
- 2월 18일 증평군 추진위원회 회보1호 발행
-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언론, 학계, 연합 특별세미나 개최

● 1998. 06. 18 : 행정자치부의 증평출장소 폐지방침 발표

● 1998. 06. 19 : '증평 출장소 폐지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

● 1998. 06. 20 : 증평출장소 폐지방침 규탄대회 개최
- 6월 21일 국회의원 김종호(자민련부총재) 주민초청 대책회의
- 6월 23일 증평출장소 폐지 규탄 분향소 설치
- 6월 25일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1차 면담
- 6월 30일 증평출장소 폐지 반대 범주민 총궐기 대회 개최
- 7월 04일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2차 면담
- 7월 06일 괴산군의회, 증평출장소 폐지 반대 서명
- 7월 24일 증평 · 도안지역 사회단체연합회(회장 엄병석) 결성 · 분향소 운영을 위한 결성
- 8월 04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기구 개편안 행정자치부에 제출

● 1998. 08. 10 :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기구 개편안(폐지) 결정 유보

증평군 설립촉구 결의대회(1998. 2. 21)

주민들의 자치권 쟁취결의대회, 삭발식(1998. 2. 21)

● 1998. 08. 31 : 증평 · 도안지역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증평출장소 폐지 반대를 위한 분향소 철거 성명서 발표
● 1998. 12. 02 : '계룡시, 증평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김종호, 김범명의원 발의
● 1999. 04. 09 : 증평자치단체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증평자치단체설립추진위원장:김기환)
● 1999. 05. 02 : 제16대 국회의원후보(진천, 괴산, 음성군) 초청토론회 개최
- 증평독립자치단체 설립의 공약과 당위여론 조성
● 1999. 06. 16 : 김기재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촉구(증평자치단체설립추진위원회)

증평출장소 폐지방침 규탄대회 분향소 설치(1998. 7. 24)

국회의원후보자 초청토론회(2000. 4. 1)

- 10월 29일 조세형 새천년민주당 부총재 면담 촉구(증평자치단체설립추진위원회)
- 11월 12일 한나라당 중앙당 정책실, 도지부와 충청북도, 청원군, 괴산군 등에 증평군 당위성 촉구(증평자치단체설립추진위원회)
● 2000. 09. 06 : 증평출장소발전협의회(회장 유명호) 결성
- 각종 증평군설치추진단체를 통합하고 단합을 결속
● 2001. 02. 01 : 증평출장소 개청 10주년 토론회 개최(증평발전협의회)
- 각 언론기관 초청 지방자치 사각지대의 증평출장소 문제를 기획특집 방영 보도
● 2001. 09. 20 : 김대중 대통령, 충청남도청 방문시 계룡출장소 특례시 승격 검토지시

시승격을 위한 한마음 등반대회(2001. 11. 23)

- 10월 26일 충청북도의회 193회 임시회에서 '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한 건의문' 채택
- 10월 30일 괴산군의회 101회 임시회에서 '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한 건의문' 채택
- 11월 17일 특례시 승격건의 7,065명의 서명문 발송(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3당 총재)

● 2001. 11. 23 : 자치권 총궐기대회, 시승격을 위한 주민 한마음 등반대회

● 2001. 11. 26. : 김대중 대통령 충청북도 순시, 증평자치단체 승격 건의
- 12월 4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촉구(증발위)
- 12월 26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면담 시승격 건의(증발위)

● 2001. 12. 11 : 증평자치단체승격을 위한 조찬 기도회(증평지역기독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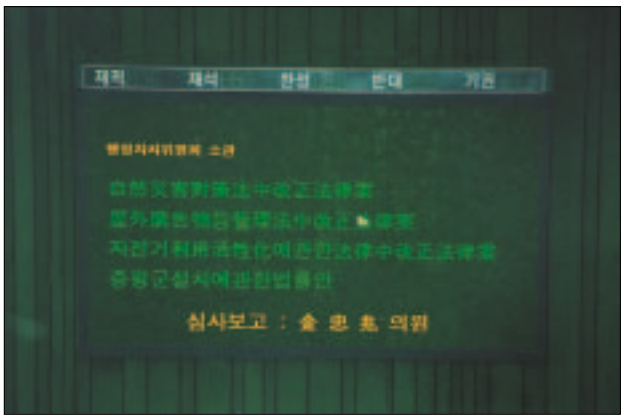
● 2002. 02. 05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삼 위원장 면담 의원입법 추진 제의(증발위, 정우택 국회의원)

● 2002. 04. 01 : 기초지방선거 참정권 포기 선언(증평시민회: 수석대표 김영호)
- 충북시민회와 합동하여 CJB현장 24시 방송프로의 기획 특집물로 제작 방영

증평문화제 증평군 설치 기원 퍼레이드

● 2002. 04. 08 :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229회 임시회 발의
- 정우택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 51명
- 4월 17일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자위 상정

● 2002. 04. 23 : 충북정치개혁연대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중 증평출장소의 독립자치단체 실현' 선정 발표



국회 제238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증평군 법률안 통과 표결판(2003. 4. 30)

● 2002. 08. 01 : 국회행자위원(23명) 방문 증평군 설치 당위성 설명 촉구

● 2002. 10. 09 :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6명) 방문 증평군 설치 당위성 설명 촉구

● 2002. 12.12 : 증평군 법률안 통과 촉구 선언문 발표(증평시민회)

● 2003. 01. 09 : 국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병석) 방문 증평군 설치 당위성 설명 촉구

제9차 국회 본회의 법률안 통과 (2004. 4. 30)

제9차 국회 본회의 법률안 통과후 환영모습(2004. 4. 30)

- 2003. 01. 21 : 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에게 독립자치단체 승격에 관한 건의문 발송
- 2003. 02.20 : 국회 236회 임시회 행자위 1차 법안심의 통과(증평군법률안)
- 2003. 02. 28 : 국회 행자위원 23명에게 증평군 법률안 통과 협조 서한문 발송
- 2003. 03. 14 : 이원종 도지사의 특별지휘보고서(법률안 의결지원 요청)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남상우 충북정무부지사)
- 2003. 04. 04 : 증평군설치추진범도민대책위원회 결성
  - 공동위원장 : 남상현 행정부지사, 유동찬 도의회기획행정위원장
- 2003. 04. 23 : 국회 238회 임시회 행자위 6차 전체회의 통과
- 2003. 04. 28 : 증평군 법률안 국회법사위원회(위원장 김기춘) 통과
- 2003. 04. 30 : 국회 제9차 본회의 증평군법률안 통과
  - 재적위원 272인, 출석인원 145인, 찬성 76인, 반대 52인, 기권 17인
- 2003. 05. 07 : 증평군설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봉회) 구성(실무위원 15명)
- 2003. 05. 15 : 증평군설치실무지원단 구성(단장: 김영호 행정부지사, 7개반 30명)
  - 증평군설치실무준비단 구성(단장 이종배, 6개반 23명)
- 2003. 05. 20 : 증평군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2003. 05. 23 : 증평군 법률안 대통령 재가
- 2003. 05. 29 : 법제처 관보 법률 6902호로 증평군 법률 공포
- 2003. 05. 31 :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승격 범주민 환영대회
- 2003. 08. 29 : 충청북도증평출장소 하판식, 하기식
- 2003. 09. 01 : 증평군청 개청식(군수직무대행 이종배)

2)주요 건의 및 선언문

2001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남도를 방문했을 때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러자 충청북도 의회는 10월 26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 ·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의원 · 한나라당 총재 · 자유민주연합 총재 ·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증평출장소도 시 승격이나 특례시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80]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0)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한 건의문」(『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177~187쪽).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한 건의문(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의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장관님!

새천년, 새시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충청남도청 방문시에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을 검토하라는 지시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3만 2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도 계룡출장소와 더불어 특례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2개 읍, 9개면 중 증평읍과 도안면을 분리하여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보다 1년 후인 '91년 3월에 개청했습니다. 증평출장소를 계룡출장소와 비교를 하여 보면

- 관할면적은 증평은 81.8㎢, 계룡은 60.68㎢이고,
- 현재 인구는 증평이 3만 2천 400명이며, 계룡은 2만 8천 200명이며,
- 공무원 수는 '98년도에 223명에서 구조조정으로 현재 141명으로 축소시킨 반면, 계룡은 개청시나 지금이나 90명입니다.
- 계룡출장소에는 3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나, 증평출장소 관내에도 37사단과 67사단, 공수특전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주민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괴산군수 선거와 괴산군의회 의원 선거시 주권을 행사하면서도 괴산군의 행정적 영향이 전혀 없으며, 2명의 군의원 역시 증평출장소와 관련한 행정권에서 벗어나 있어 주민들은 소외의식과 박탈감에 차 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을 아주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직진단 없이 무작위로 퇴출시키고 소장 직급을 낮추는 등 관심이 없는 중앙 부처와 도정의 행태는 증평출장소를 폐지하려는 처사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룡출장소 보다 우위에 있는 증평출장소의 3만 2천 200명의 주민과 140여명의 직원들에게 더 이상 푸대접, 무대접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대통령께서 충청남도 방문시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증평출장소 주민들과 150만 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어떠한 형태이든 시승격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감에 벅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의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

합 총재, 행정자치부장관님!

우리 도민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주민이 갈망하는 시승격 또는 특례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 드리오니 특단의 결단으로 주민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괴산군의회에서는 증평읍 엄병석, 도안면 연길희 의원의 발의로 2001년 10월 30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례시 승격을 건의하며 충청북도 의회와 보조를 같이 했다.[81] 괴산군의회의 건의문은 다음과 같다.

81)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특례시 승격에 관한 건의문」(『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176~177쪽).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특례시 승격에 관한 건의문(괴산군의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의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장관님!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의회에서는 8만여 괴산군민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와 더불어 특례시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1991년 지역주민의 편의를 돕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출범되어 10여년 동안 시승격에 대비한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형성하고 행정집행의 경험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군 6개 면의 생활권 중심으로 이미 중심도시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의 시승격 검토와 관련하여 증평은 면적이 81.8㎢ 인구는 3만 2천여명으로 면적 60.68㎢ 인구 2만 8천여명의 계룡출장소 보다 규모면에서도 앞설 뿐 아니라, 증평출장소 관내에도 37사단, 67사단, 공수특전단이 위치하고 있어 3군사령부가 위치한 계룡출장소와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결코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를 특례시 승격 대상으로 검토하면서 그보다 여건이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를 시승격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8만 괴산군민에게 소외감과 더불어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출장소 관내 증평읍민과 도안면민들은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원을 뽑고 있으나 행정에 있어서는 괴산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민간에 또는 주민간에 불편만 가중되는 차별화를 겪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에 의한 자치가 배제된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인내해 주었던 것을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의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장관님!

더욱이 증폭되는 행정수요는 아랑곳없이 40%나 되는 공무원을 감원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증평출장소 관내 주민들을 당혹하게 하면서 분노를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증평출장소 특례시 승격에 커다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이웃한 자치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떳떳하게 자치행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8만 괴산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승격을 건의합니다.

2001년 10월 3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증평군 승격에 대하여 중앙 정계도 호응했다. 2002년 4월 8일, 지역구 의원인 자민련 정우택 의원이 국회의원 51명의 찬성 동의를 얻어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에 찬성 서명한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서정화 이승철 김영배 강창희 안동선 장재식 이강래 이상배 김정숙
곽치영 정진석 조부영 안태륜 함석재 이재선 원철희 이원성 정인봉
심규철 현경대 유용태 오장섭 송석찬 신경식 홍재형 이완구 송광호
김종호 박종희 추미애 원유철 윤경식 김락기 이병석 박종우 김학원
남경필 김부겸 이양희 권태망 김동욱 강숙자 서상섭 임진출 주진우
박혁규 김민석 박주천 박병석 최연희 이주영 이상 51명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82)]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증평시 설치 이전까지 원격지 주민의 행정 편의와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 괴산군의 증평읍과 도

82) 『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37~38쪽.

안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충청북도 관할의 일반 행정 조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의 자치 행정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의원 입법의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안' 은 이튿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4차에 걸쳐 논의한 후 최종 수정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 4. 17) : 상정, 제안 설명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2. 10. 25) : 검토 보고, 대체 토론, 소위 회부
제2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 2. 21)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3. 4. 23) : 수정 의결

그런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낙후된 증평지역 발전의 필요성과 괴산지역이 별개의 생활권(증평 : 금강 수계 · 청주 생활권, 괴산 : 한강 수계 · 충주 생활권)임을 감안하면 증평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러나 이 경우 1995년 이후 81개 시 · 군을 40개시로 통합하는 등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어긋나게 되고, 증평군이 설치되게 되면 괴산군의 인구는 4만 6천명, 증평군의 인구는 3만 1천명으로 두 군 모두 전국 군의 평균인구 6만 3천명에 크게 미달되는 등 군세가 약해져서 발전 잠재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평출장소 지역을 괴산군으로 환원시키는 대안 등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치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 를 열어 괴산군 귀속을 강력히 반대했다.[83]

증평출장소는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를 모두 망라하여 '증평 자치단체 승격 추진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증평 자치단체 승격 추진대책위원회' 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를 위원장으로 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최재옥 · 괴산군의회 의원 엄대섭 · 괴산군의회 의원 연만흠 · 증평문화원장 최성균 · 증평발전협의회장 김봉희 · 증평리우회연합회장 김인화 · 증평여성단체협의회장 송만자 · 증평사회단체연합회장 김영호 · 증평시민회 공동대표 이종일 · 증평농민단체연합회장 연기찬 · 전 증평발전협의회장 유명

83) 『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38~41쪽.

호 ·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양승렬 · 증평출장소 재무과장 신재영 · 증평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했다.

마침 제16대 대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충북 도내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는 2002년 12월 5일, 이 법률안의 통과를 충북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11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12월 12일에는 증평시민회에서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 촉구 선언문' 을 발표했다.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 촉구 선언문'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84]

84) 『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178~180쪽.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 촉구 선언문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에 대해 약속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증평군 설치 법률안' 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에서 소외된 우리 증평지역 주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며칠 후면 나라를 대표할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정치권은 저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와 균형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외치면서 증평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현실에 통탄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1991년, 중앙 정부와 충청북도는 증평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이라는 명분하에 증평출장소를 개청시킨 후 시 승격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실질적인 주민참정권을 박탈하고 예산상 불이익만 주어왔습니다.

무릇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합니다. 증평시 승격 추진을 위한 증평출장소 개청을 정치권과 정부가 만들고 승인한 지 1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증평출장소는 시 승격 요건인 5만 인구가 충족되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는 13년 동안 정부와 정책 당국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는커녕 예산상 불이익만 이 지역 주민에게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MBC 문화방송에서 집중 취재해 1시간 동안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인 '현장포커스' 와 올해 CJB 시사방송 프로그램인 '현장 24시' 에서도 정부는 지방자치에 소외된 채 온갖 불이익을 감수한 증평지역에 대해 보상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증평출장소를 자치단체로 승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 행정전문가 및 충청북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또 충북도내에 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 대표적인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서도 지난 12월 5일 충북지역사회가 요구하는 11개 정책과제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를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6 · 13 지방선거에서도 충북의 지방행정 개혁 의제 제1순위로 선정된데 이어 다시 한번 충북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됐음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우택 국회의원이 증평자치단체 설립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면서 충청북도 및 전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정당히 행사하는 의미에서 초당적으로 적극 지지해 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청주(서원경) 문화권에 속했던 우리의 옛 증평인 청안군의 행정구역이 갈갈이 찢겨진 증평지역을 독립자치단체로 승격시키는 것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찢겨진 증평의 행정구역이지만 생활권과 학군, 금융 등은 이미 증평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법정 행정구역만이 4개 군으로 여전히 찢겨진 채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방치만 하고 있으니 어찌 올바른 국가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증평지역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한 채 자치단체가 아닌 이유로 예산상 불이익을 강요한다면 이에 13년간 책임을 엄중히 물릴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서 촉구한 증평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이번 대선 후보 및 각 당에 주지시키며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를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 12. 12

증 평 시 민 회

강사구 강신욱 강영식 김경만 김규환 김동인 김봉회 김영유 김영진
김영호 김주호 김준기 김태구 김태식 김태면 류근원 민광국 박만규
박종만 배종관 송광섭 심재봉 안용호 안재근 양순직 연동진 연병석
연영찬 유덕열 유일형 윤기홍 은창식 이관희 이규정 이동석 이상세
이상운 이종일 이진규 임준빈 정동원 정동원 조관조 조성주 조송연
진홍렬 추영우 한홍태 황동수 김길자 김선자 김성례 신예숙 유현숙
이창숙 이복순 이재경 조태숙 최군선 최경옥

지역의 모든 언론들도 적극 나서 증평군의 설치를 요구하는 충북인의 의지를 보도했다. 2003년 4월 18일에는 '증평군 설치 범도민대책위원회' 명의로 150만 도민과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 등에게 증평 주민의 13년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호소문이 발표됐다. '증평군 설치 범도민대책위원회' 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영호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유동찬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분과위원회 · 행정분과위원회 · 홍보분과위원회 · 증평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였다. 호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85]

85) 『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174~175쪽.

호 소 문

증평군 설치 법률안 대통령 재가모습(2003. 5. 23)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 증평 주민들의 염원을 풀어줍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증평출장소는 13년 전 1991년에 시 승격을 전제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형적인 행정 체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증평 주민들의 가슴에 한과 아쉬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3만여 증평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증평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군수와 군의원을 선출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꽃이 활짝 피고 있는 지금에도 증평 주민들은 다른 지역 '자치'를 억울하지만 부러워하면서 한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3년 아픈 세월 동안 증평 주민들은 '증평의 독립'을 위하여 눈물겨운 노력을 했고, 마침내 지난 2월 '증평군 설치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여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국에서 증평지역과 유사한 군이 24개 군이 있으며, 증평보다 인구가 적은 군이 전국에 9개나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증평출장소를 자치단체로 독립시키겠다며 시민 사회단체와 서면으로 약속을 했고, 개혁과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부임하면서 증평군 설치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증평 주민들의 13년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증평 주민들은 증평을 위하여 행정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군수 및 군 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증평출장소는 호적, 주민등록, 지방세 등 지방행정도 증평출장소장과 지소장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직제상 존재하지도 않는 증평읍장, 도안면장의 공인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평 주민들도 진정한 자치권과 참정권을 갖고 지역살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소

외감과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스스로 지역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남들처럼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싶은 일념 하나로 13년 동안 눈물로 호소해 온 증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3. 4. 18

증평군설치추진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이같은 노력의 결과, 2003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치고, 제4조(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 가결되고, 4월 28일 법사위원회도 통과했다.

드디어 2003년 4월 30일 오후 2시, 제9차 국회 본회의에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 상정되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재석의원 145명 중 찬성 76, 반대 52, 기권 17명으로 극적으로 가결됐다.

이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

고진부 구종태 권기술 김경재 김경천 김기배 김기춘 김덕배 김명섭
김무성 김성호 김영환 김옥두 김용학 김운용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윤식 김정숙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황식 나오연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병석 박종우 박주선 배기선 송광호 송석찬
송훈석 신경식 신기남 안대륜 안택수 오세훈 오영식 원유철 유시민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이강두 이강래 이만섭 이미경 이병석 이재창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임태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정우택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조성준 조희욱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함석재 홍재형 홍준표 이상 76명

〈반대〉

강삼재 권영세 김광원 김부겸 김성조 김영일 김영춘 김학송 김홍신
도종이 박근혜 박명환 박세환 박시균 박종근 박종웅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서병수 송영길 신계륜 심재철 안경률 엄호성 윤영탁 윤한도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연숙 이우재 이원형 이창복 장영달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세균 정의화 조배숙 천정배 추미애 하순봉 현승일 이상 52인

〈기권〉
김덕규 김용갑 김택기 배기운 서상섭 신영국 윤철상 이용삼 이재정
이종걸 임종석 임진출 정범구 조응규 조한천 홍문종 황우여
이상 17인

이 법률안은 곧 정부로 이송되어 2003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5월 29일자 관보에 법률 제6902호로 게재됨으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발하게 됐다.[86]

86) 『증평군설치결과보고서』, 41~46쪽.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충청북도에 증평군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증평군 설치) ① 충청북도에 증평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명 칭	관 할 구 역
증평군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 도안면 일원

② 충청북도 괴산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 라 한다)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이하 '증평군' 이라 한다)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 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출장소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지역을 증평군의 구역 또는 관

할구역으로 본다.

제4조(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 증평군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 의원 및 증평군수의 선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 등과 동시에 실시한다.

3. 증평군 개청과 설치

역사적인 증평군의 탄생에 증평군민은 물론 도민 전체가 환호했다. 5월 31일 오후 7시부터 증평출장소 광장에서 '증평군 자치단체 승격 범주민 환영대회'가 뜨거운 환영과 축제의 열기 속에는 열렸다.

증평군 설치 주민환영대회
(2003. 5. 31)

한편 2003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충청북도는 증평군 설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즉각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충청북도는 2003년 5월 초 김영호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증평군 설치 실무지원단'(총괄반 · 조직반 · 예산반 · 법제반 · 관재반 · 선거반 · 확인반 등 7개반 30명)을 구성했고, 증평출장소는 이종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증평군 설치 실무 준비단'(총괄반 · 개청반 · 예산 법제반 · 재산반 · 관재반 · 공부반 등 6개반 23명)을 구성했으며, 곧 '증평군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15일 도청에서 실무지원단과 준비단의 연석회의를 열고 세부 실천 지침을 시달했다. '증평군 설치 실무 준비단'은 '증평군 설치 자체 준비계획'을 수립, 5월 16일 출장소 관계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차질 없는 진행에 돌입했다. 한편, 민간으로 별도의 준비위원회도 발족했다.

이종배 증평출장소장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원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조례안은 8월 19일, 제216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됐고, 8월 29일자 도보 제2265호에 고시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됐다.

8월 29일 오후 6시, 13년 증평출장소 시대를 마감하는 출장소 현판 하판식과 출장소기 하기식이 거행됐고, 이튿날 오전 11시에는 단군전에서 증평군의

증평군 개청 경축 불꽃놀이
(2003. 9. 1)

개청을 국조 단군과 천지신명께 고하는 고유제가 열렸으며, 31일 밤에는 보강천 둔치에서 화려한 경축 불꽃놀이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드디어 9월 1일, 청주시립국악단과 공군사관학교 군악대, 신명풍물예술단의 흥겨운 공연 속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이원종 충청북도지사, 유주열 도의회 의장, 이종배 증평군수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고, 군기도 게양됐다. 경축식은 오전 10시 개식 선언(최재옥 충청북도의회 의원)을 필두로 경과보고(김봉회 증평군설치준비위원회 위원장), 축하 메시지(고건 국무총리) 낭독, 식사(이종배 증평군수 직무대행), 치사(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축사(이원종 충청북도지사), 축사(유주열 충청북도의회 의장), 축사(정우택 국회의원), 축시 낭송(이화선)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식후행사로는 기념탑 제막, 다과회, 오찬간담회,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등이 진행됐다.

이로써 청안군에서 증평면과 도안면으로 분리된 지 89년 만에, 그리고 출장소 시대 13년을 마감하고 자치단체로서의 증평군이 출범하게 됐다.

증평군청현판식(2003. 9. 1)

증평군 개청식(2003. 9. 1)

증평군 개청식 행사(2003. 9. 1)